중편소설

리상의 언덕

김 혜 영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1(2012)

1

윤재철국장은 타조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일로 몹시 바쁜 사람이다. 대규모의 목장에 대한 먹이보장으로부터 수의약품과 첨가제보장, 고기가공과 가축수출,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류통…

눈코를 뜰수 없게 하는 직무가 그로 하여금 빠른 걸음씨와 빠른 말씨, 불같은 성급함과 칼날같은 예리함을 가지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처장들이 한아름씩이나 되는 결재문건들을 들고 줄을 섰는데 석대의 전화기가 련이어 호출신호를 울렸다. 한손으로 문건수표를 하면서 다른 손에 송수화기를 엇바꾸어들며 차례로 전화를 받았다.

《윤재철입니다.》하고 응답하기 바쁘게 저쪽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울렸다. 타조고기가공공장을 담당하고 나가있는 1처장 주병호였다.

《국장동지, 박수혁지배인이 오늘 비행기로 도착하겠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마중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니, 그럴 필요가 없소. 내가 직접 마중을 나가겠소.》

《국장동지가요?》

주병호가 깜짝 놀랄만도 했다. 그토록 바쁜 국장이 아래사람을 직접 마중나간다는것은 아직 있어본적 없는 일

이였던것이다.

그만큼 박수혁의 이번출장길에 큰 기대를 걸고있는 윤재철이였다.

그는 서둘러 일처리를 끝내고 비행장으로 떠났다.

승용차는 시외로 곧추 뻗어간 포장도로를 따라 고속으로 달렸다.

간밤 내린 눈에 때아닌 꽃을 하얗게 피운 가로수들이 차창으로 휙휙 스쳐지나갔다.

윤재철의 뇌리에는 한달전 관리국협의회때 있은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산하 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참가한 협의회에서는 올해 인민생활향상에서의 대비약을 위한 대책문제가 토의되였다.

모든 일군들이 시대의 요구대로 공장의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갱신하고 제품의 가지수와 질을 높일 결의목표와 실천방도를 내놓았다.

윤재철은 마감차례로 연단에 나선 박수혁지배인의 토론에 각별히 귀를 기울였다. 바로 며칠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국제시장에 내가던 타조고기를 전부 우리 인민에게 공급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싶어하시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을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타조고기가공공장이 맡은 임무는 그만큼 중요한것이다.

박수혁은 타조고기를 우리 인민에게 공급할데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관철에 모를 박아 현존설비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고기와 가축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할것을 결의하였다.

제품의 질제고문제를 외면한 토론의 결점을 대뜸 찍어

낸 윤재철은 성미대로 불같은 추궁을 들이댔다. 자기 사업에 대한 연구심이 없다, 새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심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계획수행에나 만족할 때인가.

박수혁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물론 타조고기가공공장에서 인민봉사망에 대한 고기공급만 하자 해도 아름찬 일이라는걸 아오. 아마 타조를 고기채로 넘기는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할거요.

하지만 지배인동무가 뭘 모르는가?

김철로동계급이 보낸 편지의 한구절에는 이렇게 씌여있소.

우리 인민은 문명하고 리상이 높은 인민이다, 인민생활에 대한 우리 당의 구상은 그저 먹고 입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유족한 최상의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데 있다.》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다. 격한 숨소리들만이 울릴뿐이다.

윤재철은 잠시 동안을 두고 강조했다.

《알겠소? 〈세상에서 가장 유족한 최상의 생활〉— 바로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리상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장군님의 이 높으신 뜻을 한몸바쳐 실현해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우리 어깨우에 지워져있소. 이걸 명심해야겠소.

지배인동무는 여기에 립각하여 새로운 대책안을 탐구하시오.》

그날 밤엔 윤재철자신도 잠들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갈것인가를 피타게 모색하였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설비는 현대화되

였지만 고기가공조법과 기술은 아직 세계적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조고기가공품의 질을 높일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과 함께 이를 위해 실무일군들을 외국에 파견할데 대한 대책까지 취해주시였다.

윤재철은 실로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수 없었다. 옛날엔 타조에 대해 관심밖이던 우리 인민에게 타조고기가 차례지게 하는것만도 경이적인 일인데 고기도 가장 맛좋고 영양가 높고 먹기도 편리한 세계적수준의 가공품으로 만들어먹이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다. …

어느덧 승용차는 비행장에 들어섰다.

려객기가 착륙하고 손님들이 줄지어내렸다.

검은 외투차림에 트렁크를 든 박수혁의 풍채좋은 모습이 멀리서도 눈에 띄였다. 시원한 언덕이마밑에 약간 오목진 쌍겹눈, 남성적인 체격에 녀성적인 이목구비를 가진 나무랄데없는 미남이다. 헌데 어쩐지 수척해진감이 든다.

《지배인동무!》

《아니, 국장동지!》

박수혁은 놀람과 반가움이 어린 얼굴로 달려와 인사를 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수고했소. 그래 먼길에 앓지는 않았소?》

《저야 원래 건강체질이 아닙니까?》

수혁은 흰 이를 가쯘히 드러내며 웃었다.

윤재철은 그 웃음에서도 무엇인가 어설픈것을 발견했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자, 가면서 얘기하기요.》
재철이 차문을 열어주고 자기도 올랐다.
차는 쾌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래 세상을 돌아본 소감이 어떻소?》
박수혁은 한참만에야 대답했다.
《예, 정말…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왜서인지 그의 대답은 인차 이어지지 않았다. 워낙 입이 무거운 사람이지만 윤재철은 박수혁의 침묵이 심상치 않게 생각되였다. 그가 이번 외국참관에서 세계적인 고기가공발전추세를 똑똑히 보고 그것을 돌파할 방안들을 탐구해가지고 오기를 기대했던 윤재철이였다.
그는 자기의 불안한 예감이 예감으로 그치기를 내심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래일 아침 협의회를 조직했으니 그때 동무가 생각한바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겠소.》
《예? 래일 아침 말입니까?》
박수혁은 뜻밖인듯 흠칫 고개를 돌렸다.
《왜? 무슨 사정이라도 있소?》
《저…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해봐야겠는데… 며칠 좀 미루어줄수 없겠습니까?》
《아, 연구야 물론 해야지. 하지만 당장은 외국참관과정에 보구 듣구 느낀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오. 모두 동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그렇다면… 제가 더욱 책임적인 발언을 해야겠는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말이 자신없게 들렸다.
윤재철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수혁의 얼굴을 다시한번 일별해보았다. 확실히 얼굴빛이 어두웠다. 무슨 고뇌

가 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차는 관리국앞을 지나 시내중심으로 들어섰다.
얼핏 밖을 내다본 수혁이 당황해서 물었다.
《아니, 관리국에 안 들어갑니까?》
《출장보고는 래일 아침에 받겠소. 오늘은 집에 가 푹 쉬오. 가족들도 몹시 기다릴텐데…》
《…》
수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하더니 죄스러움이 실린 어조로 나직이 뇌였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차가 수혁의 집이 있는 아빠트앞에 멎어섰다.
윤재철은 박수혁이 현관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서야 차를 돌리였다.
관리국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무엇때문일가? 조용하면서도 결패있고 담력있던 그가 외국참관과정에 갑자기 의기소침해졌단 말인가?
재철은 박수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성급하고 즉흥적인데가 있는 자신에 비해 침착하고 진지하면서도 예리한 박수혁의 기질을 장점으로 여기고있었다. 김책공업대학(당시) 최우등졸업생으로서 지성적인 두뇌가 준비되여있는데다 축구선수출신에 로동계급경력자로서 완강한 실천력까지 겸비되여있다.
그가 겉보기와 달리 얼마나 담력있고 배짱이 드센가 하는 것을 윤재철은 이태전 새로 지배인이 되여 진행한 공장후생건물공사때 알게 되였다.
원래 탈의실과 목욕실 등 위생시설들과 사무실, 휴계실들은 공장건물내부에 배치되여있었다. 그런데 생산의 폭이 넓

어지고 위생학적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후생건물을 따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지배인이였던 주병호의 제안에 따라 관리국에서 단층으로 설계를 해주었는데 그무렵 주병호가 관리국으로 소환되여 박수혁이 말아하게 되였다. 그런데 수혁은 이왕 지을바에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최상급으로 일떠세워야겠다고 하면서 설계부터 2층으로 개작하고 달라붙었다. 후생건물을 너무 요란하게 짓는다고 다들 눈을 흡뜨고 혀를 내둘렀지만 윤재철은 그를 지지해주었다. 사람들의 놀라움은 건물의 면적만이 아니라 내부를 꾸리는데 들어가는 최신건재들을 보면서 더더욱 커갔다. 천정엔 고급외장재에 무리등, 벽체는 고급타일, 바닥과 계단은 온통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무장시켰다. 후생건물옆으로는 야외휴식터도 꾸렸는데 화초와 나무를 심고 대리석으로 탁과 의자들을 만들어놓았다. 건설에 드는 많은 량의 세멘트와 대리석은 그가 직접 화물차를 타고 세멘트공장으로, 대리석광산으로까지 다니며 실어왔다. 박수혁이가 공명심과 소총명에 들떠 상급기관에도 붙이지 못하는 대리석을 일개 공장의 후생건물에 온통 붙인다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윤재철은 새 세기 일군의 안목과 일본새는 그래야 한다고 오히려 시비군들의 말을 일축해버렸었다. 하여 지난 10월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토록 크나큰 만족을 드릴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박수혁은?

어쩐지 믿음의 한귀퉁이가 허물어져내리는것만 같았다.

2

집에서 박수혁을 제일먼저 맞아준 사람은 일곱살난 외동딸 은경이였다.

《야! 아빠 왔네! 아빠야!》

고사리같은 두손을 벌려들고 담쏙 품에 안겨든 딸애는 연방 아빠를 불렀다.

《아빠!》

《응.》

《아빠!》

《응.》

딸애의 초롱초롱한 두눈을 들여다보며 무심코 대답하던 박수혁은 그만 가슴이 쩌릿이 젖어들었다. 얼마나 불러보고싶던 이름이였으면…

와락 딸애를 껴안고 정신없이 볼을 비벼주다가 문뜩 생각나서 물었다.

《할머닌 어디 가셨니?》

《저어기.》

그제야 부엌쪽에 기쁨의 미소를 짓고 서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70이 다되였으나 정정하고 끼끗한 어머니의 풍채와 얼굴은 언제나 박수혁에게 큰 힘으로 되였다.

《저 어린게 날마다 아버지 올 날자를 손꼽더니만…》

《어머님, 그새 무고하셨습니까?》

《나야 잘 있지 않구. 은경 애비가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겠나?》
《아빠, 어서 들어가자요.》
은경이는 아버지의 커다란 한손을 자그마한 두손에 꽉 감싸쥐더니 제 어깨에 올려놓고 끌어당기는것이였다. 견마잡이에 끌려가는 말처럼 어린것의 어깨에 손을 맡기고 꺼꺼부정해서 따라걷는 모양이 스스로도 우스워 껄껄 웃었다.
은경이는 놓치기라도 할듯 아버지의 팔을 단단히 둘러멘채 전실을 서너바퀴 빙글빙글 돌고서야 방안으로 들어간다.
수혁은 트렁크를 열고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사온 안경부터 내놓았다. 로동신문사 론설원으로 일하다 들어온 어머니는 지금도 짬짬이 신문과 책을 들여다보느라고 안경을 찾군 했다.
은경이한테는 타조가죽으로 만든 참대곰모양의 멜가방을 안겨주었다.
《히야! 곱네.》
은경이는 가방을 메고 삼면경대가 있는 전실로 달려나갔다.
외국문으로 된 여러 나라의 고기가공기술도서와 잡지를 한묶음 꺼내놓은 수혁은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가?》
저도 모르게 나간 혼자소리였다.
《애엄마야 저녁두 늦게야 들어오지 않나?》
어머니가 일깨워주어서야 수혁은 실언을 깨달았다.
《아, 그렇지요. 제가 그만…》
하도 집에 들어와본지 오래니 안해의 하루일정이 어떤지도 감감 잊고있었던것이다.
외국문출판사 편집원으로 근무하는 안해 역시 남편 못

지 않게 바쁜 사람이였다. 사회생활에 바쁜 안해여서 남편의 사업도 리해해줄수 있는것이라고 수혁은 그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있었다.

공장지배인이 된 다음부터는 안해와 만날수 있는 저녁시간마저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어떤 때는 명절도 현장에서 보낼 때가 드문했다.

돌이켜보니 새삼스럽게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일만 일이라고 집안의 세대주역할을 너무도 잊고 살았다.

그래도 안해는 만날 때마다 투정 한번 할줄 몰랐다. 그저 쌓이고쌓인 그리움과 기쁨을 깡그리 정으로 쏟아줄뿐이였다.

안해는 지금도 마음속으로 남편이 외국출장에서 돌아올 날을 은경이 이상으로 간절히 기다리고있을것이다. 돌아왔댔자 예전대로 공장에 나가살다싶이 하는 그 생활의 련속이련만 그래도 마음상이나마 제 나라, 제땅에서, 한결 가까이에서 그 존재를 느낄수 있는것이다.

웃방에 들어갔던 은경이가 뜻밖에도 휴대용콤퓨터를 두팔에 안고 끙끙거리며 내려왔다.

《아니, 이건 어디서 났니?》

수혁은 콤퓨터를 받아놓으며 놀라서 물었다.

《엄마가 사준거예요. 이걸 다룰줄 알아야 학교에 다닐수 있대요.》

은경이의 자랑스런 대답이였다.

하나밖에 없는 딸애의 교육을 위해 지금껏 저축한 돈을 털어냈을 안해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옳다, 지금은 소학교학생들도 콤퓨터로 보고싶은 책도 보고 쓰고싶은 글도 쓰고 그리고싶은 그림도 그리고 뭐나 다 하는 때란다.

그러니 우리 은경이도 올해 소학교에 입학하려면 이걸 잘 다룰줄 알아야 해. 어려서부터 꿈을 크게 가져야 이다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수 있지. 알겠니?》

《알겠어요, 아빠! 그럼 이제부턴 저녁마다 집에 꼭꼭 들어와 이걸 배워주어야 해요.》

《그럼.》

《정말? 약속했어요!》

무심결에 대답했던 수혁은 그만 당황해났다. 딸애가 새끼손가락을 딱 펴들고 무릎에 마주앉는것이였다. 다른 손으로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끌어올린다.

수혁은 어쩔수없이 딸애와 약속을 하고말았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온다는 약속! 그것은 곧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이였다. 그것은 또한 어머니와 안해, 딸애의 사랑과 애무속에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겠다는 자기자신과의 약속이였다.

안해의 얼굴이 떠오른다. 행복에 겨워 속삭인다.

《아이, 정말 약속했어요?》

《약속했소.》

《당신은 정말 가정에 들어와 행복할수 있어요?》

《…》

《이젠 그만큼 일했으면 가정의 행복도 창조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태동안 밤잠을 잊고 아글타글 뛰여 지난 10월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지 않았나요? 이제 또 무엇을 바랄게 있겠다고…》

《그렇소, 장군님께 기쁨드리고 만족을 드린 현대화된 공장에서 이제는 생산만 정상화하면 되게 되였소.》

수혁은 석달전 그날만 해도 정말 오래동안 밤잠을 모르고 일해온 2년간의 쌓인 피로를 풀고 발편잠을 잘 때가 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신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새로운 자각과 의욕을 불태워주었다.

더우기 한달전 정초에 타조고기를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은정깊은 사랑의 말씀을 전달받던 순간에는 자신의 위치와 존재가치를 두고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단위의 일군이다, 결코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아선 안될 경제일군이다, 일군이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게 된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껴야 할 오늘의 일군은 그 어느때보다, 그 누구보다 바빠야 하고 힘들어야 한다,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 불철주야의 헌신의 길을 따라서는것이 일군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편안히 살 궁냥을 했다면 애당초 자리를 내놓아야 할것이다.

수혁은 방금전 자기가 마음속의 안해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 소스라치듯 놀랐다. 이젠 그만하면 됐다고?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고?

잠시나마 잊었던 자각이 번쩍 눈을 떴다.

장군님께서는 타조고기가공품의 질을 높이라고 나를 외국참관단 대표로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장군님의 믿음에 실적으로 보답해야 할 내가 그이의 뜻을 실현할 방책도 탐구하지 못한채 어떻게 잠시나마 안일한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인가?

수혁은 아름찬 시대적과제를 안은 지금 자기가 결코 딸애

와의 약속을 지켜낼수 없으리란것을 깨달았다. 은경이앞에 죄스러웠다. 그러나 그 애도 언젠가는 이 아버지를 리해할것이다.

수혁은 딸애에게 콤퓨터건반의 글자와 수자를 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고나서 익혀보라고 했다.

탁아소시절부터 머리가 좋기로 소문났던 은경은 사기가 나서 달라붙었다. 오른손과 왼손으로 자모건을 번갈아 꼭꼭 짚어가며 재미가 나는듯 캐득캐득 웃는다.

수혁은 그동안 종이 한장을 꺼내 달필로 편지를 썼다.

《여보, 미안하오. 저녁때까지 기다릴수 없는 사정이 있어 먼저 나가오.

래일 아침 관리국협의회에서 외국출장총화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공장에 나가 급히 토의할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리해를 바라오.

래일을 기다려주오. 협의회끝에 집에 들리겠소.

참, 그리고 미안한 부탁이 있소. 외국에서 사온 이 기술자료를 속한 기일내에 번역해주기 바라오.

당신에게 기념품대신 무거운 짐을 안겨주어 정말 미안하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남편의 믿음인줄 알아주면 고맙겠소.

당신의 수혁으로부터.》

편지를 접어 잡지묶음우에 끼워넣고 안해가 사용하는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사정이야기를 듣더니 더 붙잡지 않았다. 그런 급한 일이 있다면야 어서 가야지 하고 떠밀었다.

딸애에게는 잠간 나갔다 오마 하고 가까스로 떼여놓았다. 잠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것의 두눈엔 서운함의 눈물이 대뜸 맺혀올랐다.

3

타조고기가공공장은 타조목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의 오른쪽에 자리잡고있었다.

수십종의 진귀한 나무들과 화초들이 흰눈을 이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가운데 산뜻하면서도 현대미가 비낀 공장건물이 안겨온다. 하얀 벽체에 넓고 시원시원한 늪창유리들이 한낮의 해빛을 반사하여 눈부시게 번쩍거린다. 둘레에 합창대마냥 3렬횡대로 줄지어선 키와 모양이 서로 다른 나무아지들마다 흰눈이 다복다복 덮인것이 마치 활짝 핀 목화꽃바다를 련상케 한다.

불과 보름만에 돌아온 공장이였으나 수혁에겐 모든것이 몇달만에 보는것처럼 감회가 새로왔다.

공장에 깃든 장군님의 사랑이 오늘따라 더욱더 사무쳐왔다.

아직은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행군을 하고있던 10년전 겨울, 새로 일떠선 타조목장을 처음으로 현지지도하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타조가금업을 통이 크게,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가자면 하루빨리 고기가공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시며 친히 공장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건설을 2년동안 끝내겠다는 일군들의 결심을 들으시자 그이께서는 2년이면 너무 늦는다고, 1년내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강력한 군인건설력량과 함께 고기가공설비를 들여오는데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타조목장건설과 거의 동시에 가장 훌륭한 우리 식의 고기가공기지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적인 전례를 깨뜨리고 타조사양업과 가공업이 동시에 발족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구상이 얼마나 선견지명한것이였는가는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 세계적인 타조위기가 도래했을 때 여실히 증명되였다. 국제시장에서 타조고기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각국에서 너도나도 타조사양을 경쟁적으로 벌리는 바람에 타조고기가 과잉되였고 그통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했던 수백개의 타조사양업체들이 파산몰락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만은 대규모의 타조목장운영이 세계적인 위기와 파동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할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타조가금업을 지켜낸 비결은 바로 타조고기가공공장에 있었다.

박수혁의 귀전에는 불현듯 외국의 어느 고기가공회사 사장이 하던 말이 쟁쟁히 되살아왔다.

《오늘날 타조산업이란 한갖 욕망이고 환상에 불과하오. 발전된 나라의 고관대작들도 돈을 저울질하며 사먹는것이 타조고기란 말이요. 그만큼 원가가 많이 들고 비싼 고기이기때문에 타조업을 시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몇해전 세계를 휩쓴 타조위기때 벌써 다 꺼꾸러지지 않았소?》

그 사장이 조선에 와서 그처럼 비싼 고기가 국내인민들에게 눅은 값으로 차례지는 이 현실을 본다면 뭐라고 할가?

생각할수록 장군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가슴뜨거워지는 수혁이였다. 동시에 그 사랑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가닿게 해야 할 자신의 책임으로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고기가공품의 질을 높이라고 외국참관까

지 조직해주셨는데 나는 아직 똑똑한 결심조차 세우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수혁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가공반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쪽으로 향해졌다.

점심시간이여서 현장안은 조용했다. 어디선가 맑고 은은한 처녀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아 행복넘쳐라 총잡은 이내 가슴
장군님가까이엔 내가 산다네
병사가 산다네

수혁은 노래소리가 울려오는 쪽으로 먼저 걸음을 옮겼다. 타조제품진렬실이였다.

새파란 위생복에 같은 색갈의 위생모를 쓴 처녀가 타조뼈에 타조털을 묶어 만든 먼지털개로 벽체를 살살 털어내고있었다. 보통키에 몸매가 날씬한 그 처녀는 이태전에 제대되여 여기 분육반에 배치된 유일한 처녀당원이다. 그는 분육공으로 일하면서도 타조제품진렬실관리를 맡아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낸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두차례나 보아주신 타조제품들을 관리한다는 남다른 긍지로 하여 힘든줄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행복의 노래가락만 뽑아내는것이다.

《장군님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는 병사출신이며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작업모습을 직접 보여드린 박영혜에게서 언제나 지정곡 1번이였다.

처녀는 이쪽으로 돌아서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마나! 지배인동지! 언제 오셨습니까?》

상큼한 얼굴에 어글어글 광채도는 쌍까풀눈이 활짝 웃

음을 머금었다.

《지금 오는 길이지. 그새 잘있었소?》

《예, 그런데 지배인동지 외국갔다오시더니 축간것 같습니다. 혹시 음식과 물이 맞지 않았던게 아닙니까? 아니면 기후풍토가 맞지 않았던지?…》

처녀의 도두룩하면서도 선이 또렷한 입술이 걱정스럽게 모아졌다. 리지적이고도 살틀하고 인정깊은 처녀였다.

《괜찮아, 점심시간인데 쉬지 않고있구만.》

《예, 외국대표단이 또 참관을 온답니다. 우리 공장을 통해서 사회주의 우리 나라의 면모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막 자랑스럽구 힘든줄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여기처럼 훌륭한 일터가 또 있을가 하구 말입니다.》

《허허, 자랑을 가득 안구 사는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 자랑이 자랑으로 끝나선 안돼.》

《예?!》

처녀는 지배인의 말을 리해할수 없는듯 커다란 두눈을 깜박이며 마주본다.

《우리가 자랑하고있는 사이에 세계는 멈춤없이 발전하고 있다는걸 알아야지. 우린 더욱더 분발해서 세계에 도전해야 하거던.》

이것은 박수혁이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놀라운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있는 처녀를 잠시 바라보던 수혁은 문뜩 화제를 돌리였다.

《참, 영혜도 이젠 나이가 찼으니 시집갈 생각을 해야지?》

《아이, 어디 마음끌리는 남자가 있어야지요?》

《야단났구만. 그러다 로처녀가 되면 이 지배인이 어떻게 책임진다?》

사실 처녀의 일신상에 대한 수혁의 관심은 그저 겉치레로 해보는 걱정이 아니였다.

영혜의 아버지는 목장 초창기에 당비서로 사업했는데 고기가공공장건설당시 세멘트수송을 위해 앓는 몸으로 출장을 갔다 와서 병이 악화되여 세상을 떠났다. 이미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은 몸이였으나 장군님의 사랑으로 일떠서는 고기가공공장에 넋이라도 깡그리 바치고싶어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건설장을 떠나지 않았던것이다.

영혜가 제대되여 아버지의 넋이 깃든 공장에 온 그때부터 수혁은 그를 친혈육처럼 생각하고있었다.

《걱정마십시오. 전 나이때문에 고민은 안합니다. 사랑은 심장이 한다는데 어느때든 내 심장이 저 사람이다! 하구 가리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 그 신심이 중요한거야. 처녀시절에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느라면 같은 리상을 지닌 훌륭한 총각이 꼭 나타날게다. 그런 때가 오면 나한테 말만 하라구. 그럼 내 힘껏 도와주지.》

《호호… 그럼 약속했습니다.》

박수혁은 미덥게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는 진렬대의 제품들을 감회깊은 눈으로 둘러보았다. 타조가죽으로 만든 트렁크와 여러가지 가방들, 구두 등은 국제시장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값비싼것들이다. 타조털부채와 목도리, 타조알공예품들… 모든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일이 보아주시고 만족을 표시하신 사적물들이다. 타조는 버릴것이 하나도 없는 수익성높은 가금이라고, 타조가금업은 21세기의 리

상적인 가금업이라고 하시던 그날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왔다.

장군님의 그 뜻을 현실로 꽃피우자면 바로 우리 가공공장이 제품의 질을 하루빨리 높여야만 하는것이다. 이때까지는 제품진렬실을 돌아볼 때마다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군 하였는데 오늘의 견지에서 긍지란 결코 자랑으로 그치는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가 자랑하며 현상유지나 할 때 남들은 우리를 뒤떨구고 멀리 앞서나가게 될것이다. 전진해야 한다. 세계를 향해 돌진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그의 가슴을 태우는 새로운 충동이였다. 그 충동에 떠밀려 그는 어느덧 가공반의 구이로앞에 다가서고있었다. 외국참관때부터 줄곧 그의 마음을 괴롭혀온것이 바로 이 설비였다.

내열성불수강으로 된 함통모양의 집채같은 대형로였다. 은빛으로 번쩍거리는 본체의 오른쪽측면에 수자조종자동장치가 설치된 조작함이 붙어있고 그밑으로 증기발생기와 압축공기배관이 련결되여있었다. 수자조종자동장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온도와 시간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준다. 꼴바싸인 경우 85도씨 온도에서 2시간동안 구워내야 하는데 자기 온도에서 필요한 시간이 되면 저절로 꺼진다. 각종 고기제품에 해당되는 온도와 시간이 다 기억되여있다. 10년전만해도 최신형으로 손꼽히던 가공설비였다.

수혁의 눈앞에는 이번에 외국에서 본 새형의 구이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훈연, 증자, 구이, 건조, 랭각, 연기려과장치가 다같이 겸비된 새형의 설비였다. 이것을 한마디로 훈증로(훈연증자로)라고 했다.

훈연이란 인위적으로 연기를 발생시켜서 (주로 넓은잎

나무를 태운다.) 증기로 익힌 고기제품에 방부, 부착, 보관성을 보장하는 공정이다. 훈연의 의의는 고기제품의 색을 내고 연기성분이 침투되면서 냄새가 배여 독특한 맛을 낼뿐아니라 부패를 방지한다. 비유해말하면 군고구마가 삶은고구마보다 맛도 더 좋으면서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식의 새 고기제품을 개발하자고 해도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서 보장하자면 이 가공설비의 개조를 선행시켜야만 한다.

최신설비를 새로 사오자고 제기할것인가?

수혁은 한순간의 욕망을 애써 지워버리며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 올해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되는 때에 나라에 손을 내민다는것은 량심이 허락치 않는 일이다. 더구나 이 설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닿아있고 윤재철국장과 주병호처장의 노력이 깃들어있는것이다. 교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만… 구이로에 훈연장치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할수 있지 않을가?)

피뜩 떠오른 이 생각이 수혁을 흥분시켰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흥분을 눅잦히고 랭정한 리성으로 따져보았다. 개인집의 부뚜막 한개도 뜯어고치려면 심중해야 하는데 하물며 현대정보기술의 성과를 도입하여 만든 이 고급하고 정밀한 설비를 다쳐놓았다가 미세한 변화라도 생겨 성능을 파괴한다면? 그 후과는 보상할수도 책임질수도 없는 엄중한것으로 될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설비의 현대적개조는 불가능하단 말인가?

수혁의 생각은 설비반장 최경천에게로 가닿았다. 유능

한 기술자이며 설비전문가인 그에게는 반드시 출로가 나질것만 같았다. 수혁이보다 10년우인 최경천은 그때의 전기단과대학과 기계대학통신을 졸업한 이 공장의 초대설비반장이다. 10년전 윤재철국장과 초대지배인 주병호가 외국에서 설비를 들여왔을 때 우리 식으로 배치하고 자체로 조립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더우기 그는 박수혁이 한때 곡절을 겪을 때 인간적으로 진심을 바쳐 도와준 은인이며 생활의 선배였다.

수혁은 지금 그때처럼 최경천에게 의지하고싶은 강렬한 기대를 누를수 없었다.

그러나 설비를 다치는 문제는 단순한 기술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금 뇌리를 때렸다. 윤재철국장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주병호처장은?

우선은 담당처장과 의논해보아야 했다.

4

현장에서 나온 박수혁은 공장뒤의 후생건물 2층에 자리잡은 사무실로 올라갔다.

지배인실에서는 그 기간 공장의 행정사업을 맡아본 부문당비서 리태성과 관리국 담당처장 주병호가 콤퓨터앞에 머리를 맞대고 주간지표별생산실적을 종합하고있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체소하면서도 날파람있게 생긴 리태성비서가 먼저 뒤를 돌아보더니 활짝 웃으며 일어났다.

《아니, 지배인동지!》

곱살하게 생긴 얼굴에 패기와 강단이 느껴지는 30대초의 제대군인이다.

뒤미처 다부진 체격의 주병호가 놀라 일어나며 안을듯이 두팔을 쩍 벌렸다.

《이게 누구요? 지배인동무! 무사히 왔소? 국장동지가 마중나가지 않았습데? 오늘 집에 들렸다 래일쯤 나올줄 알았는데? 응?》

주병호는 살결 흰 환한 얼굴에 유난히 두드러져보이는 새까만 눈섭을 쫑깃 세우고 연방 물어댔다. 그의 감정표현에서는 언제나 숱짙은 이 눈섭이 앞장서군 한다.

박수혁은 빙그레 웃어보였다.

《그새 처장동지가 공장을 돌봐주느라 힘썼겠습니다.》

《에끼, 이 사람이 주병호를 어떻게 보구 그래? 이 공장이야 내 살붙이나 같은데 힘썼다고 할게나 있나.》

《하하…》

두사람은 동시에 껄껄 마주웃었다.

리태성비서가 말했다.

《참 지배인동지, 시장하시겠는데 제 식당에 좀 내려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만두, 집에 들려 요기를 하고 오는 길이요.》

《그래도 오래간만인데 같이 마주앉아야지요. 우리도 마침 점심을 하려던 참입니다.》

비서가 내려가자 두사람은 쏘파에 나란히 앉아 회포를 나누었다.

그들은 중학시절 한아빠트에 살면서 한학급에서 공부한 동창생들이였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하급관계이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흉허물없는 너나들이친구이다.

《그래, 세상구경을 하고온 감상이 어때?
히말라야산줄기와 태평양으로, 지중해연안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남아프리카까지 지구를 한바퀴 돈셈이 아닌가? 정말 멋들어진 려행이지!》
수혁은 《허.》하고는 손을 내저었다. 마치도 세계명승지들에 대한 관광려행이나 하고온것처럼 떠들지 않는가?
《너무 기가 막혀 말을 다 못하는구만. 하긴 나도 외국출장을 드문히 다니군 하지만 사람은 역시 보는게 많아야 시야가 트이는 법이거던. 안 그래?》
주병호는 여전히 싱글벙글이다. 가뜩이나 환한 얼굴이 이렇게 환히 웃을 때면 온 방안이 함께 웃는것처럼 환해진다.
주병호는 중학시절부터 머리좋고 성격좋고 무엇이나 막히는데가 없는 쾌남아였다. 유모아가 풍부해서 사람들을 웃기는데도 선수였고 정황에 따라 말을 잘하는 림기응변의 명수이기도 했으며 노래 잘 부르고 기타 잘 타고 체육 잘하는 다재다능한 락천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팔방미인》이라는 별명이 붙어다녔다. 어디 멀리 오고갈 때 학급녀동무들이 힘들어하면 그앞에서 재주넘이를 앞으로 뒤로 옆으로 연방 해가며 웃기군 했다. 오락회때면 입으로 연주 못하는 악기가 없었고 다부진 몸으로 못 추는 춤이 없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노래련곡도 멋들어지게 불러넘겼다.
교원들은 주병호가 영화배우감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예언과는 달리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경제무역일군이 되였다.
어찌보면 개방형의 주병호와 내성적인 박수혁이 한초소에서 다시 만나 손을 맞잡고 일하게 된것도 하나의 연분인지 모른다. 중학시절에도 기발한 착상은 주로 주병호가 했

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면밀한 타산은 박수혁이 했다. 생활에서는 박수혁의 까다롭고 따분한 성격적약점을 주병호의 쾌활하고 호방한 성격이 종종 메꾸어주군 했다.

박수혁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말을 뗐다.

《주동무, 롱담은 그만하구… 사실 내가 바람이나 쏘이자구 외국갔다온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고기가공발전추세를 따르자면 설비의 현대화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보았네.》

주병호는 의아쩍은 눈으로 수혁을 치떠보았다.

《그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현대화된 우리 공장에서 무얼 더 현대화한다는건가?》

《솔직히 이번에 나가보니 우리보다 더 발전된 가공설비가 출현했더란 말이요. 실례로…》

《아, 됐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든 우린 우리 식대로 하면 돼. 주체라는게 뭐요?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사고하고 실천하는게 바로 주체란말이요. 다른 나라의것을 부러워하구 덮어놓구 본따려 하는건 창조가 아니라 교조요.》

《나도 교조하자는건 아니요. 우리 식대로 창조하자는거지. 외국참관의 목적이야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따라앞서자는것인데 그걸 무시하면…》

《누가 무시한다고 했소? 앞선 나라의 고기가공기술을 참고하는것과 설비를 현대적으로 갱신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문제란 말이요.》

《설비갱신이 없이 가공기술의 발전을 생각할수 있는가?》

수혁은 저도 모르게 격해져 어성을 높이였다.

주병호도 맞받아 짜증을 냈다.

《무슨 설비를 갱신한다는거요? 지금 우리 나라 고기가공분야에서 이 공장처럼 현대화된데가 어디 있소? 세계각국에서 참관을 오구 탄복을 하는데. 심지어 고기가공기술이 제일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의 정계인물도 와보고 어떻게 감탄했소? 세상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고기가공공장으로서 커다란 인상을 받았다고 했소.》

《…》

주병호는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수혁에게로 담배갑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거 제발 복잡하게 굴지 말구 현존설비로 어떻게 하면 제품의 질을 높이겠는가 이걸 생각해보오. 그러지 않아도 내 그 문제때문에 신경을 쓰고있는중이요. 내 외사촌동생이 식료연구소에서 고기가공전문가로 일하는데 어려서부터 비상한 수재였구 지금도 고기가공명수지.

새 제품개발을 위해 그를 공장에 동원시키기로 국장동지와 연구소소장이 락착을 보았으니 곧 나오게 될거요.

우린 어떻게든 남의것을 넘겨다볼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야 해.》

주병호는 강조하듯이 곱씹었다.

《우리 식》이라는 말에는 수혁이도 반박할 말이 없었다. 가슴속엔 해야 할 말이 가득찼으나 어쩐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담배갑을 당겨 한대 꺼내물었다. 타는 속을 식히자고 피우는것인데 오히려 가슴은 더 활활 타번진다.

그러는데 리태성이 식사준비가 되였다고 알렸다.

식당칸에 들어서던 수혁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식탁우

에 보기에도 시원하고 얼벌벌한 새빨간 깍두기와 고추장, 새파란 부루와 쑥갓이 신선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던것이다.
《야— 이거 김치깍두기노래, 토장의 노래가 절로 나오겠구만.》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흘레브와 빠다 같은거만 잡술래기 얼마나 조선음식이 그리웠겠습니까? 로씨야에 3년 갔다온 우리 형님이 끼때마다 김치 생각나 미칠번 했다더군요.》
젊은 비서의 다심한 지성에 수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해외에 나가보니 역시 민족의 향기가 제일이요. 음식문화에서도 민족의 피줄은 속일수 없단 말이요.》
박수혁의 말에 주병호가 동을 달았다.
《그러길래 우리의 타조고기제품도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게 현대화를 해야 한다 이거요. 우리 인민이 먹을 고긴데 다른 나라의 방식을 넘겨다볼것 있나?》
《옳은 말씀입니다. 례하면 꼴바싸에 고추를 넣는다든가, 마늘을 넣는다든가…》
리태성의 말까지 들으니 박수혁은 눈앞이 트이는것 같았다.
《정말 좋은 의견이요. 그런 방향에서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할수 있겠소. 그런데…》
《그런데 뭐가 또 고민인가?》
주병호가 따지듯 물었다.
박수혁은 주저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했다.
《새로운 우리 식의 제품을 개발하자면 결정적으로 가공설비에서 이빠진 공정을 보강해야 하네.》
《아, 또 설비타령인가? 있는 설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질제고를 할수 있다는데 그래.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사람두 참…》

식당안의 분위기는 대번에 어성버성해졌다.

다행히 리태성비서가 제꺽 끼여들었다.

《자자, 사업토의는 차차로 하고 식사부터 합시다. 생각이라는것도 뇌수에 영양물질이 보장돼야 하지 굶으면 합니까? 책에서 보니 한번 머리를 쓰는데 뇌단백이 몇천카로리나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정신로동하는 사람들이 가만 앉아있어두 몸이 더 여위는가봅니다.》

《비서동문 젊은 사람이 아는것도 많구만, 하하…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빨리 듭시다.》

박수혁은 고기국물을 둔 메밀랭면에 김치꾸미를 욕심스럽게 무둑 올려놓고 식초와 겨자까지 푼푼히 쳐서 활활 저어 먹기 시작했다.

리태성은 국수를 먹으면서도 부루에 고추장을 발라 곁들여먹었다.

《아니, 국수에 부루쌈 먹는 사람도 있소?》

《지배인동지도 이렇게 잡숴보십시오. 별맛입니다.》

《아니아니, 동무나 먹소. 나까지 부루벌레가 됐다간 목장온실의 부루가 남아나겠소? 허허…》

《아닌게아니라 난 어디가나 부루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니 야단 아닙니까? 시내에 부루봉사하는 식당은 왜 없는지? 부루식당, 부루집 이런거 말입니다.》

《하하…》

좌중에는 즐거운 웃음이 넘쳤다.

박수혁은 자기가 공장당일군을 잘 만난것만 보아도 사람복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는 거의 10년이나 아래지만 성격이 탁 트이고 영민한데다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정치사업을 아주 참신하게 한다. 생긴것처럼 싹싹하고 친절한가 하

면 체소한데 비해 그릇이 큰 일군이기도 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애로가 그의 입을 통하면 아주 별치 않은것으로 해소되며 울고싶다가도 웃게 되는것이다. 가령 식당근무처녀가 찬감이 없다고 걱정하면 《그 걱정이 얼마나 좋아?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그만큼 지극하다는거지.》하고 추어주고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작식대원들은 뭐가 있어서 식사보장을 했나? 그 정신으로 하면 돼.》하여 더는 우는소리를 못하게 만든다.

식사가 끝나자 박수혁은 리태성비서에게 설비반장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뜻밖이였다.

《최경천동문 얼마전부터 병으로 출근하지 못합니다.》

《뭐라구?》

박수혁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갑자기 무슨 병으루?》

《본시 위가 좀 나빴더랬는데 요새 와서 간에까지 영향을 미친것 같습니다. 지배인동지가 돌아오시면 사직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수혁은 딛고선 땅이 흔들리는것 같았다. 공장을 버티고있던 기둥이 뽑혀나가는듯 한 환각이 들었다. 주병호가 하는 말도 꿈속에서처럼 들렸다.

《이젠 최경천반장도 기대를 가질만 한 사람이 못되는것 같소. 식료품생산기지에서 위생학적요구는 첫째가는 생명이 아니요? 그가 누구든 몸에 질병을 가진 사람은 량심적으로 공장에서 나가는게 옳은 처사지. 최경천이도 그래서 사직하겠다고 하는건데… 어찌겠소? 가슴이 아파도 다른 기술자를 택해야지.》

수혁은 머리를 흔들며 부르짖었다.

《아니, 그럴수 없소! 병이 났으면 치료받아 고치면 되는건데 사직이라니? 불치의 병이기라도 하오? 지금같은 때 그와 같은 기술자를 어디서 데려온단 말이요?》

《왜 못 데려온다는거요? 현대과학을 배운 새 세대 기술자들이 가뜩한데…》

《하지만 이 공장설비에 대해 최경천이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소?》

순간 주병호의 입가에 이상스러운 랭소가 비꼈다.

《흥.》하고 무엇인가 말하려던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관리국에 들어갈 시간이 됐구만.》

통계문건이 든 가방을 들고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그가 수혁에게 물었다.

《함께 들어가지 않으려나? 아무래도 래일 아침 협의회에 참가해야 할텐데.》

잠시 말이 없던 박수혁은 주병호가 차문을 열고 올라앉는 순간에야 결심한듯 말했다.

《국장동지한테 말씀드려주게나. 협의회를 하루이틀이라도 미루어달라구. …》

《아니, 건 왜?》

《아무래도 구이로개조문제를 연구해봐야겠네. 최경천이 병문안도 가볼겸 그와 토론을 좀 해보구…》

《뭐? 구… 구이로를 어떻게 한다구?》

주병호의 깜질은 눈섭이 벌떡 곤두섰다.

수혁은 내친김에 명백히 대답했다.

《구이로에 훈연장치를 따로 만들어 덧붙이자는거지.》

주병호는 눈이 튀여나올듯 커지더니 차에서 훌떡 내려섰다. 다짜고짜로 박수혁의 팔을 잡아끌고 저쯤 떨어진 휴식터의 숲속에까지 들어갔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게 어떤 설빈데 떼구붙이구 손댈 생각을 감히 한단 말이요?》

《내가 왜 모르겠나?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귀중한 설비라는걸. …》

《안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인가?》

《황당하다구?》

《그럼 그게 온당한 소리라는거요? 내 참…》

주병호는 대리석의자에 먼저 앉아 담배 한대를 붙여물었다. 수혁이 맞은켠에 앉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다.

《자넨 이 공장의 설비들이 어떻게 마련됐구 어떻게 여기까지 와닿게 되였는지 아마 나처럼은 다 모를거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기에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구 설비자금까지 보내주셨을 때 초대지배인으로 내정됐던 내가 국장동지와 함께 설비납입을 직접 맡아하질 않았나?

한푼의 돈이 귀하던 고난의 행군시기라 될수록 값이 눅은 설비를 사려고 가까운 나라에서 실무접촉을 하고있을 때 이 보고를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책망하시며 유럽과 아프리카를 다 돌아서라도 세계최상급의 고기가공설비를 일식으로 들여올데 대한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였지.》

수혁이도 그때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들으며 가슴들먹이던 생각이 삼삼했다.

인민들이 아직 생활난을 겪고있는 이때 내가 왜 많은 투자가 드는 타조가금업의 개척을 시도했으며 대규모의 타

조목장을 건설하도록 하였겠는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것은 바로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집도 제일 좋은 집에서,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고기도 제일 좋은 고기를 먹으며 만복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나의 념원이고 리상이다, 때문에 오늘 돈을 많이 들인것만큼 래일은 반드시 그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겨안으며 수혁은 무엇을 생각했던가. 무엇을 하나 건설해도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할수 있게 손색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를 바라시는 장군님의 그 높으신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였고 눈앞의 실리만 따지는 근시안적안목을 가지고서는 그이를 진심으로 받들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었다.

주병호는 감회에 젖어 계속했다.

《국장동진 어떻게 하면 장군님뜻대로 제일 좋은 설비를 사면서도 될수록 자금을 적게 들이겠는가 하는것을 모색하면서 밤을 새워 콤퓨터작업을 했소. 그러다가 마침내 찾아낸 방도가 가공설비일식을 어느 한곳에서 통채로 사지 말고 따로따로 사자는것이였지. 통채로 사게 되면 그 나라에서 조립까지 해주기때문에 값이 많이 들어야 했거던.

그대신 우린 설비조립을 자체로 할수 있는 기술을 빈틈없이 잡아쥐여야 했지. 정말 긴장한 신경전, 두뇌전이였소. 국장동진 코피를 쏟고 고열이 나며 몹시 앓았지만 잠시도 안정할 여유가 없이 전투를 지휘했소. 계약한 회사들에서 설비를 제 기일내에 만들도록 하고 사놓은 설비를 조국으로 보내느라고… 참, 그때를 생각하면…》

주병호는 잠시 말을 끊고 담배를 빨았다.

박수혁의 눈앞에는 윤재철국장의 날카로우면서도 정열에 넘친 얼굴이 선히 떠올랐다. 장군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안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더 값있게 쓰기위해 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바치며 피타게 뛰고 또 뛰는 그 모습!

수혁은 이 시각 장군님을 받드는 일군의 자세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이윽고 주병호가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사놓은 도살설비들을 조국으로 보내오는 과정에도 장군님의 손길이 뜨겁게 미쳐왔소.

대양과 대륙을 넘어 머나먼 곳에서 수송을 하다나니 자금은 물론 기일이 많이 걸리는것은 당연한 일이였지. 원래 예정은 프랑스 브리타니지역에서부터 배로 운반하여 지중해를 돌아서 중국의 항구도시로, 거기서부터 남포항으로 들어오기까지 45일 걸리게 되여있었소.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그사이 공장건물이 완공된 조건에서 조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겠다시며 비행기로 설비를 실어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신것이였소. 그렇게 돼서 45일 걸려야 했던 수송을 15일로 단축하게 되였고 1년으로 목표했던 고기가공기지를 불과 여덟달만에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던거요.》

박수혁은 숭엄한 생각에 잠겨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주병호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젠 알겠나? 나는 단지 현재 공장을 담당한 처장으로서뿐아니라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설비를 국장

동지와 함께 직접 사들여온 초대지배인으로서 여기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입히는걸 절대 허용할수 없단 말일세.》

《자네의 심정이 리해되네. 하지만 난 설비에 손상을 입히자는게 아니라 보다 현대적으로 개조하자는거네.

장군님께선 우리 공장을 세계1등급의 고기가공기지로 일떠세워주시려구 그리도 마음써주셨는데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설비의 현대화를 따라세워야 할게 아니겠나?》

《이보라구, 난 그걸 부인하는게 아니야.

현대화를 하려면 대담하게 새 설비를 사들여오는 방향에서 해야지 고도로 정밀화된 설비를 뜯어고친다구 하다가 망쳐놓으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소? 나나 동무가? 안될 소리지.》

《왜 망친다고만 생각하나? 공장의 기술자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의 지혜를 총발동한다면 능히 될수 있다고 보네.》

《뭐? 최경천이따위를 믿구?》

주병호의 얼굴에 쓰거운 경멸감이 어리는것을 수혁은 놀랍게 쳐다보았다.

《왜 그런 투로 말하나? 자네가 이 공장 초대지배인 할 때 기술적으로 받침해준 사람이 누군데?》

주병호는 담배를 또 한대 꺼내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량반이 젊어서 공세운건 있지만 지금은 설비개조는 고사하구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내 이 말은 후에 천천히 하자구 했댔는데 자네 외국출장간 사이에 전동기사고가 났댔소. 완전히 태워먹어서 전기공장에 권선교체해달라구 맡긴 상태요.》

《아니, 그럼?!…》

《내 그래서 하는 소리요. 밤낮으로 공장에 붙어살면서 설비들의 가동상태를 살펴보고 사전에 고장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설비반장의 임무로 보아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요.》

수혁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최경천의 사직리면에 단순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주병호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끄며 단호히 말했다.

《난 그런 무책임한 사람을 믿구 하겠다는 설비개조를 절대로 승인할수 없소.

그리구 철저히 명심하게. 누구도 구이로설비에 손댈 권리가 없다는걸.》

주병호는 이렇게 오금을 박아놓고 씨엉씨엉 차있는데로 갔다.

5

최경천의 집을 찾아가는 수혁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어야 하니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전동기사고를 내고 사직서까지 내고…

(최경천 그 사람이 과연 그럴수 있는가?)

머리를 젓는 수혁의 눈앞에 이제는 옛일로 되여버린 추억의 한토막이 떠오른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김책공업대학(당시)을 졸업하던 해 국제문제연구소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고있던 박수혁의 아버지는 뜻하지 않았던 사업상실책과 그 엄중한 후과로 하

여 해임처분을 받고 멀리 북변의 탄광으로 내려가게 되였다.
박수혁은 대학졸업증을 쥐였으나 로동현장으로 탄원하였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과오를 함께 씻는 심정으로 로동속에 몸을 잠그고싶었다. 하여 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라고 생각되는 화력발전소에 나가 공무직장 용접공이 되였다.
량심의 의무를 걸머지고 스스로 택한 길이였으나 생활은 헐치 않았다.
그때 전기단과대학을 졸업하고 발전소 열생산직장 조작공으로 일하던 최경천이 한호실에서 합숙생활을 같이하였었다. (그의 집은 시내에서 수십리 떨어진 교외―지금의 타조목장지구에 있었다.)
순박하고 성실한 그는 수혁을 친동생처럼 극진히 위해주었다. 단련되지 못한 그에게 로동을 배워주었고 써레기담배를 말아피우는 법도 배워주었다. 힘에 겨워 미처 하지 못한 빨래를 남모르게 해주었으며 앓아누웠을 때는 밤새워 찬물찜질도 해주었다. 입맛을 잃었을 때엔 땀흘리며 시내식당에 나가 숭어탕을 받아다준 일도 있었다.
언젠가 그가 처음으로 혁신자영예게시판에 소개되던 날 합숙호실에 들어와보니 책상우의 꽃병에 향기그윽한 생화 한 묶음이 꽂혀있었다. 불타는듯 한 빨간 장미와 눈처럼 새하얀 다리아… 무엇인가 열정적인것과 순결한것을 상징하는듯 한 꽃송이였다.
그때 그의 눈앞에는 영영 잊어버리려 애썼고 잊어버렸다고 생각되던 한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눈물을 가득 담고 원망에 차서 바라보던 그 눈빛! 초연한 아름다움과 지성이 풍기는 그 처녀를 알게 된것은 주병호와 함께 모란

봉에 올랐던 전해 5.1절의 야유회에서부터였다. 처녀가 어떻게 되여 자기에게 남다른 감정을 품고 따르기 시작했는지는 그때로선 바이 알수 없었다. 김책공업대학졸업생과 외국어대학졸업생의 결합은 가장 리상적인 결합이라며 주병호가 처녀의 미덕을 극구 불어넣어 저도 모르게 그자신도 마음이 쏠렸을뿐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철직으로 자기의 처지가 뒤바뀌자 수혁은 처녀와의 교제를 단념하지 않을수 없었다. 불미스러운 가정사를 가진 용접공에 불과한 자기가 어떻게 아름답고 총명하고 전도유망한 처녀를 바라볼수 있으랴. 그에게 미련을 가진다는것은 한 처녀의 앞날을 짓밟는 너무도 량심없는 짓이였으며 그보다 앞서 부질없는짓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처녀가 기업소정문에까지 찾아올줄이야…

당황하고 부끄러웠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꼴을 보인다는것부터가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필요없는 일에 정열을 흘려버리고싶지도 않았다.

그는 모질게 마음먹고 면회를 거절한다는 전갈을 보냈다. 그러고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헌데 이튿날 아침 출근시간이 되여 합숙현관을 나서던 그는 못박힌듯 굳어져버렸다. 밤이슬에 푹 젖어 후줄근해진 수연이가 앞에 서있었다.

수혁은 한순간 전류에 닿은듯 놀랐으나 그다음엔 모르는 사람처럼 수굿하고 지나쳐버렸다.

수연이가 달려와 앞을 막아서며 눈물먹은 소리로 부르짖었다.

《어쩌면 이럴수 있어요? 온밤 기다린 사람을…》

그때 수연에게 필요했던것은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혁은 그럴수 없었다. 차디찬 리성이 그의 마음을 얼구었다. 나직이, 그러나 랭정하게 잘라말했다.

《난 동무가 찾는 박수혁이 아니요.》

얼음덩이같은것을 내던지는것으로써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는듯 씨엉씨엉 멀어져갔다. 뒤에서 억눌린 흐느낌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다. 처녀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아픔이겠지만 이 한순간의 아픔을 이겨낸 대가로 그가 일생의 행복을 찾을수 있을거라는 위안이 자기의 무례한 행위를 정당화해주었다. 얼마후 처녀가 편지를 써보냈을 때도 자기한테 온게 아니라고 돌려보냈다.

그후부터 처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수혁이자신도 더는 생각지 않았다. 오직 일, 힘겨운 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치고싶은 욕망뿐이였다. 그렇게 한해가 흘러 영예게시판에 사진이 나붙게 되였는데 우연하게도 바로 그날 꽃병에 아름다운 생화꽃묶음이 나타났던것이다.

수혁은 혹시나 했던 자신의 생각을 비웃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꽃이라고 해서,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다 처녀를 상징하는것은 아니다. 나약했던 자신을 이끌어 혁신자로 키워준 최경천의 마음이 그 꽃의 아름다움에 담길수 없단 말인가?

그로부터 얼마후 로총각이였던 최경천은 공장의 마음고운 처녀와 결혼식을 했다. 축하하러 갔던 수혁은 거기서 뜻밖에도 리수연을 보게 되였다.

수연은 아무 말도 걸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 대하듯 했다. 최경천이도 그에 대한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

박수혁은 수수께끼같은 일에 의혹을 금할수 없었으나 어

쨌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퍽 세월이 흘러서야 수혁은 최경천이가 수연이로 하여금 수혁의 진정을 알고 기다릴수 있게 마음의 다리를 놓아주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수연은 한동안 수혁이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경천을 통하여 수혁의 모든 생활을 다 알고 기쁨과 아픔, 힘겨움을 함께 호흡해왔던것이다.

수혁이 후날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이 공장 지배인으로 배치되여왔을 때 이미 초대설비반장으로 일해오는 최경천을 만나 얼마나 기뻐했던가. 장군님께서 타조목장지구에 능력있는 기술자들을 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을 때 마침 이 주변마을에 살던 부모들의 소원도 합쳐져 최경천은 상급의 소환조치에 쾌히 응해왔다는것이였다. 말하자면 고향땅에 깃든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것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장식하려던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가 병도 병이지만 전동기사고를 내고 사직을 요구했다니 좀처럼 믿을수가 없었다.

최경천의 집은 목장에서 5리가량 떨어진 먹이기지농장 소재지에 자리잡고있었다. 새로 지은 아담한 단층집이였다.

주인을 찾으니 개가 먼저 컹컹 짖으며 달려나왔다. 한참만에야 방문이 열리며 이마에 수건을 동인 최경천이 나타났다.

《아니, 이거… 지배인동지가 어떻게…》

그는 당황해서 수건을 벗어쥐며 마주나왔다. 기름한 얼굴이 볼편의 살이 빠져 더 길어보였다. 유순한 빛을 담은 둥실한 눈이며 두툼한 입술만이 여전했다.

그는 황황히 방안에 깔아놓았던 이부자리를 개여 한켠에 밀어놓으며 어서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다. 한쪽구석에 놓

인 밥상우에 조금 헐다 만 죽그릇이며 약봉지들이 아프게 눈을 찔렀다.

《그래 몸은 어느 정돕니까?》

수혁은 올방자를 틀고앉아 써레기통을 끄당기며 물었다.

최경천은 마주 담배를 말며 서글프게 대꾸했다.

《자리에 누워있자니 골까지 쏘아나서 이러질 않습니까? 빨리 농장에라도 일을 나가야겠는데…》

수혁은 의아해졌다.

《농장에 나가 일할수 있는 정도면 어째 공장을 그만두겠다는겁니까?》

《농장에 나가서야 몸에 맞게 그럭저럭 일할수 있겠지만 공장이야… 그게 어떤 공장인데 나같은 병자가 자리지킴을 한단 말입니까? 젊구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지배인동지! 공장을 생각하구 이 최경천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해임수속을 하게 해주시우다.》

짧은 순간 수혁은 생각했다. 최경천의 부탁을 들어주는것이 정의일수도 있다. 그의 말은 옳다. 하지만…

수혁은 이내 머리를 저었다.

《난 반장동무를 가식을 모르는 진실한 인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그 마음이 변할수도 있을가요?》

《그건 무슨…》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정말 건강때문입니까?》

최경천은 구슬픈 눈빛으로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더니 천천히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 장군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고 세상사람들이 다 와보는 공장에서 설비관리 하나 제대루 못해

서 전동기사고를 냈으니… 이게 어디 쓸모있는 육체라구 할 수 있겠소?》

《사고원인은 무엇이였습니까?》

《휴식일이여서 제 혼자 설비를 돌보고있었는데 군대갔던 아들이 표창휴가 받구 왔다는 전화가 오질 않았겠습니까? 너무 기쁜김에 집에 가려구 서두르면서 랭동전동기의 주파수안정기스위치를 그만 깜빡… 정말 제정신이 아니였지요.》

《그래서 반장동문 자기의 과오를 사직으로 씻으려 했습니까?》

수혁은 의분을 느끼며 엄하게 물었다. 고기가공에서 랭동설비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째조건이며 선도보장을 위한 생명선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온몸의 혈관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과 같다. 최경천이 이걸 몰라서 무책임하게 자기 초소를 리탈했단 말인가!

최경천은 풀썩풀썩 담배만 태우다가 꺼질듯이 한숨을 지었다.

《어찌겠습니까? 어차피 물러나야 할 몸인데 공장을 위해서라도 빨리 처분을 내려주시우다.》

《정말 공장을 위해서라면 들어갈 땐 들어가더래도 그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예, 꼭 반장동무 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최경천은 죄를 씻을수 있는 일감이라면 무엇이든 기쁘게 말아안을 그런 표정이였다.

《구이로에 훈연장치를 도입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것입니다.》

《예? 구이로에… 뭐라구요?》

최경천은 흠칠 놀라 눈을 흡떴다.

수혁은 외국에서 떠온 최신설비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경천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 난 못합니다. 제 능력이 그런데까지 닿을수도 없겠지만… 설사 능력이 있다 해두 그 설비만은… 차마 엄두를 낼수 없습니다. 그러다 무슨 죄를 또 짓자구. 안됩니다. …》

수혁은 완강히 거절하는 최경천의 심정을 리해하고도 남았다. 그도 그 설비에 깃든 사연을 잘 아는것이다. 알뿐아니라 직접 제 손으로 조립까지 한 설비인것이다.

그는 애타하는 눈빛으로 경천을 마주보았다.

《꼭 하자고 마음먹으면 방도가 나질거라고 믿습니다. 반장동무야 오랜 경험과 높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주는건 고마운 일이지만… 못합니다.》

경천은 절망적으로 같은 소리를 뇌이고는 머리를 떨구었다. 다시는 쳐들릴것 같지 않았다.

수혁은 어쩐지 그가 못하겠다고 하는 리유의 근저에 또 다른 말 못할 리유가 숨어있는듯이 생각되였다.

6

최경천의 집을 나선 박수혁은 공장으로 돌아오면서도 줄곧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설비개조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새록새록 더해만 갔다. 외국출장때부터 이미 예상한바이긴 하지만 담당처장이 반대하고 설비전문가가 못하겠다고 하니 손맥이 풀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자기가 공연히 하지 않아도 될 허망한 욕심에 포로된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정말 주병호의 말처럼 설비를 다치지 않고서라도 가공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가? 그의 외사촌동생인 식료연구사를 데려온다고 했지? 고기가공분야의 쟁쟁한 실력가라고 자랑하던 그 수재급연구사가 정말 온다면? 그가 여기에 와서 새로운 타조고기가공품개발에 달라붙는다면 십분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실 고기가공전문가를 초빙해오는 문제는 이미전부터 관리국적으로 토론되여온 문제였다. 그것이 오늘의 시점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다가온것이다.

한가닥 미련을 품고 공장으로 돌아온 수혁은 곧장 가공반으로 들어갔다.

오후작업이 한창인 현장안에서는 여러가지 기계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있었다.

자동출입문을 통해 가공반안에 들어서니 온통 은백색으로 번쩍거리는 크고작은 설비들의 반사광으로 눈이 부신데 곳곳에서 웅― 웅― 울리는 기계동음들이 귀를 멍멍하게 했다.

세단기와 분쇄기, 큰 원통을 눕혀놓은 모양의 탐블로(진공교반회전기)와 주입기, 구이로와 랭각기들이 제각기 세찬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고있었다.

채양이 물결모양으로 된 둥글고 파란 위생모에 같은 색갈의 위생복들을 입고 하얀 마스크에 고무장갑을 낀 남녀로동자들이 매 기대에 한명씩 붙어있었다.

매 사람들의 작업모습을 살펴보던 박수혁은 마지막공정인 제품주입기를 맡아보는 가공반장 유춘삼에게로 다가갔다. 철색얼굴에 눈빛이 근엄한 그의 이마에 굵은 주름살이 한두개 건너갔다.

올해 쉰고개에 들어서는 그는 공장적으로 제일 년한이 오랜 원로들중의 한사람이며 나이로 보아도 좌상이다. 공장 초창기부터 가공반장으로 일해온 그는 경력과 실적에 있어서 누구도 허물수 없는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있었다. 그자신의 말마따나 우리 나라 5천년력사에서 타조고기가공이라는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다름아닌 유춘삼자신이였다. 10년전 처음 초빙되여온 고기가공기술자에게서 이악하게 배우고 터득한 타조고기가공조법은 그 누구도 흔들수 없는 일생의 밑천으로 되였으며 또한 우리 나라 타조가공업발전의 기초로 되였다고 그는 자부하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없이 자기가 터득한 가공조법을 절대적인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10년간을 고수하여왔다.

만약 그러한 신념이 없었다면, 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기웃거리면서 좌왕우왕하였더라면 공장의 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주고 원료랑비는 물론 계렬제품생산에 혼란을 주었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는것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그의 신념이란 창조가 없는 낡은 조법의 고집에 불과하다는것을 박수혁은 깨우쳐주어야 했다.

언젠가 리태성비서가 젊은 기술자들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유춘삼에게 우스개섞인 어조로 《고집불통령감》, 《완고한 민족주의자》라고 에둘러 비판한적이 있는데 반장은 그쯤한 별명에 눈섭 한오리도 꿈틀하지 않았다.

이제 새 제품들을 개발하자면 이 고집불통반장의 무쇠기둥같은 신념부터 갱신시켜야 한다. 반원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간단치 않기때문이다. 과묵하면서 속대가 굳은 반장을 젊은 로동자들은 다들 어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반장이 금빛비단띠같은 피막을 주입봉에 밀집시켜넣고 스위치를 누르니 팔뚝만 한 굵기의 고기반죽이 맵시있게 포장되여 일정한 길이로 자동매듭이 지어지면서 련속 흘러나왔다. 이것을 한아름씩 되게 척척 타래를 지어 밀차의 가름대들에 가득 채워가지고 구이로에로 밀고간다.

박수혁은 구이로에 눈길이 가는 순간 또다시 외국에서 본 훈증로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무래도 최신설비에 대한 욕망을 누르기 어려웠다. 고기가공의 첨단을 돌파하자면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였다.

주병호의 말처럼 설비를 새로 사오자고 제기하는게 옳은 처사가 아닐가? 그런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지 않는가? 오히려 관리국담당처장의 의견이니 쉽사리 접수될수도 있을것이다.

다음순간 박수혁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타조사양업에 돌려야 할 자금으로 새 설비를 사온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지금 있는 구이로를 개조해 써야 할텐데…

그새 춘삼은 구이로문을 열고 밀차를 교체해넣었다. 익은 꼴바싸의 마디마디에 련결된 매듭들을 절단기에 물려 절단한 다음 검사를 받고 상표를 붙이게 되여있다.

반장은 절단한 꼴바싸 한개를 검사용으로 박수혁의 앞에 밀어놓았다.

수혁은 얇게 저며낸 꼴바싸편을 한쪼각 맛보고 그에게도 맛보도록 했다.

춘삼의 얼굴엔 언제나와같이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됐습니다, 지배인동지.》

되긴 뭐 됐다는건가?

영양가가 최고라는 타조고기가 응당 그 맛에서도 최고수준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돼지고기가공품보다도 확실히 맛이 떨어진다.

지배인이 이마살을 찌프린채 아무 말이 없으니 유춘삼이도 웃음을 거두고 정색해졌다. 무엇이 잘못되였는지 알수가 없었다. 하긴 수혁이자신도 그전에는 느낄수 없었던 불만감이였다.

의미를 알수 없는 침묵이 한동안 지속되였다.

수혁은 끝내 한마디의 평가도 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나왔다.

어느덧 저녁총화시간이였다.

종전처럼 작업반장들이 지배인실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외국에서 돌아온 지배인을 뜨겁게 맞이했다.

도살반, 분육반, 가공반, 공예반, 설비반의 차례로 출근정형과 생산실적,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보고했다.

수혁은 그동안 수고많은 그들에게 안겨줄것이 없는 자신에 대해 죄스러움을 느끼면서 공장앞에 제기된 문제를 허심하게 털어놓았다.

가공제품의 가지수를 다양화하고 그 질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시간이 흐르도록 누구도 안을 내놓지 못했다.

하긴 외국참관을 갔다온 지배인이 내놓지 못하는것을 누가 내놓는단 말인가?

가공반장을 찍어 물으니 조언대신 의문으로 대답했다.
《우리 제품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그전에 세계적인 타조위기때도 국제시장에 나가 성공한건데 이이상 뭐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그는 제기된 문제자체를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반장동무! 오늘날 우리의 타조가공은 국제시장이 아니라 국내인민들을 위해 필요한겁니다.
명백히 이것을 출발점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산활동이 진행되여야 한단 말입니다.》
《아, 우리 인민들이야 5천년력사에 처음으로 타조고기맛을 보게 됐으니 그것만 해도 행복이지 뭡니까? 실지로 지금 우리 제품이 질이 낮아 안 나가는가요? 없어서 더 못 나가지요.》
《반장동문 입버릇처럼 5천년력사를 외우군 하는데 물론 옳습니다. 5천년력사에 처음 먹는 타조고기라면 그 맛도 응당 5천년력사에 제일 높은 수준이 되여야 하지 않습니까? 대답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싼 원가를 들인 고기인데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맛이 떨어지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고생한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먹이시려고 타조목장을 건설해주셨습니다. 타조뿐이 아니지요. 칠면조, 철갑상어, 자라 등 희귀한 고기를 다 우리 인민에게 먹여야겠다고, 먹여도 최상의 수준에서 먹여야겠다고 그렇게도 마음쓰시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할수 있겠습니까? 자랑만 하고있을수 있는가 말입니다.》

유춘삼의 철색얼굴은 눈에 띄게 컴컴해졌다.

지금까지 한가지 종류에 한가지 방식으로 꼴바싸생산을 전문해온 그에게 있어서 지배인의 호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아름찬것이였다. 이제와서 굳어질대로 굳어진 생산방식을 깨뜨리고 여러가지 새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자기의 수준이 너무 어리고 배워서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였다.

그는 도저히 넘기 어려운 험산절벽에 맞다들린것처럼 두려움마저 들었다. 이러다 스스로 자리를 내놓아야 되지 않을가?

박수혁은 박수혁이대로 설비개조를 떠난 이런 론의자체가 무의미한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최경천설비반장이 없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총화를 끝냈다.

반장들이 자기 작업반 휴계실로 흩어져가자 수혁은 리태성과 함께 최경천의 병치료문제를 토의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윤재철관리국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오늘 하루 집에서 푹 쉬라구 했는데 그시루 공장에 나갔구만. 사람두 참… 그런데 협의회를 미루어달라구 했다는게 사실이요?》

수혁은 얼른 대답을 못했다. 물음이 아니라 추궁이였던것이다. 평소에도 윤재철이 된추궁을 안길 때면 반박하는 법이 없이 잠자코 듣기만 하는 박수혁이였다.

이상하게도 국장의 무서운 욕설에는 가시가 없었다. 오히려 사랑의 열정이 느껴졌다. 그래서 욕설이 무서울수록 반감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더욱 크게 느껴져서 괴로와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러오? 응? 외국참관하구 와서 그렇게두 할 말이 없는가? 배운게 있겠지?》

또다시 불덩이같은 목소리가 날아온다. 이건 진짜 물음이다.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박수혁은 목이 말라드는것을 느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국장동지!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식의 가공조법을 창조해야겠는데 그러자면…》

수혁은 여기서 그만 목이 떡 막혀버렸다. 차마 국장의 노력이 깃든 구이로설비의 부족점에 대해서는 말할수가 없었다. 그의 진짜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의 심중을 알길 없는 윤재철은 한결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알만 하오. 그런 고민이야 좋은것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해서 구체적인 대책안을 가지고야 회의에 참가하겠다는거지?》

《예, 기술자들과 토론을 좀더 해보고…》

《그렇게 하라구. 내 기다리겠소.》

수혁은 송수화기를 놓자 진땀이 내밴 이마를 수건으로 문대였다. 또 한차례 넘기 어려운 고비를 넘은 심정이였다.

그는 부문당비서와 최경천의 병치료문제를 토의하고나서 그날 밤을 사무실에서 새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조목장을 세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자자구구 탐독하느라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7

관리국정문을 빠져나온 승용차 한대가 시내중심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한창 출근시간이여서 거리는 승용차와 뻐스, 전차들로 꽉 차 물결처럼 흐르고있었다. 바람이 지동치듯 불어 가로수의 아지들을 세차게 흔들어놓는다. 그러나 바람을 맞받아 걸음을 다그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엔 활기가 넘쳐보인다. 거리의 곳곳마다엔 《인민생활향상대진군》, 《최첨단돌파》 등의 표어들이 나붙어있다.

주병호는 지금 윤재철국장의 과업을 받고 식료연구소로 가는 길이다. 고기가공전문가인 동생을 하루빨리 공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박수혁이가 외국갔다와서 뚱딴지같은 설비현대화문제를 들고나오지만 않았던들 연구사동원문제가 이다지나 긴급하게 나서진 않았을것이다.

주병호는 아직 국장앞에서 수혁이 한 말을 일언반구도 내비치진 않았지만 어쩐지 불안스러웠다.

구이로가 어떤 설비인데 함부로 손을 댈 엄두를 낸단 말인가? 그것도 최경천이같은 무책임한 사람을 믿고 해보겠다고 하니 말이다.

수혁이가 외국에 갔다온 체면도 세우고 뭔가 표나게 실적을 내보려는 야심으로 설비개조문제를 들고나온것 같은데 제때에 눌러놓아야 한다.

일단 국장에게 제기되면 일은 복잡해질게 뻔했다. 담당처

장인 자기가 개입 안할수 없고 실패하는 경우 책임문제가 돌아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박수혁이가 외국에 갔다오더니 꽤 담이 커지고 공명심에 분별을 잃을 정도가 된 모양이다. 절대로 방임해두어선 안된다. 그런걸 바로잡으라고 담당처장도 있는것이 아니랴.

수혁이가 제품의 질제고문제를 전면에 걸고 설비타령을 하는 이상 현존설비조건에서도 한계단 질을 높일수 있는 가공조법을 탐구하도록 속히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적어도 관리국협의회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면 수혁이도 다른 말을 못할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랴부랴 연구사문제를 국장에게 제기하고 자기가 솔선 말아나선것이였다.

…

차안의 록음기에서는 최근에 새로 나온 노래 《우리 집사람》이 구성지게 울려퍼지고있다. 건드러지면서도 절절한 맛이 있는 민요풍의 서정가요이다. 노래자체가 가사와 곡이 독특한데다가 음색이 독특한 인기있는 남성가수가 부르는 노래여서 더욱 들을 맛이 있고 흥취가 난다.

여느때같으면 참지 못하고 따라불렀을 음악애호가 주병호였으나 오늘은 그러고싶지 않았다. 눈을 꾹 감고 자기 생각에 옴해버렸다.

그의 눈앞에는 수혁이와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던 중학시절의 추억이 토막토막 떠올랐다.

그때의 수혁이는 한번 가위질을 하려면 열번, 스무번을 재여보고 또 재여보는, 아이답지 않게 신중한 소년이였다.

시험칠 때 제일먼저 시험지를 바치는 1번수가 주병호였다면 맨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버티기선수는 수혁이였다.

문제를 다 풀어놓고도 시간이 될 때까지 착실히 앉아 열번, 스무번이라도 검산하고 검산하고 또 확인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매번 바치는 순서는 꼬리여도 실수라는것을 몰랐다. 그러나 속도순위를 고려하는 경우엔 뒤로 밀려나기가 일쑤였다.

수업시간에도 선생님의 물음에 남먼저 자진하여 답변하는 법이 없었다. 지명해서 물어보기 전에는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만 대답을 굴려보는것이였다. 몇번씩 입안에서 굴려보는 사이에 대답할 기회는 지나가버린다.

병호가 보기에도 그 꼬장꼬장한 성미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정도였다. 활동형의 성격에 환상과 모험을 즐기던 병호에게는 도저히 손발을 맞출수 없는 짝패였다. 그래도 한 아빠트에 살면서 동무가 되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아이는 학교 콤퓨터실에 공부를 하러 나갔다. 병호는 콤퓨터교원인 이모부가 열쇠를 주었다고 뻐기였지만 사실인즉 이모부의 열쇠뭉치에서 슬그머니 빼낸 것이였다. 그의 가방속에는 이모부가 콤퓨터를 수리할 때 쓰군 하는 공구주머니까지 척 들어가있었다.

언제부터 콤퓨터의 내장을 뜯어보고싶어 안달이 났던 그는 이제나저제나 이런 기회만을 노려왔던것이다.

그런줄을 꿈에도 모르고 따라온 수혁은 콤퓨터앞에 단정히 마주앉아 건반을 두드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느덧 몸이 쑤셔나기 시작한 병호는 하던 공부를 집어치우고 수혁에게 자기계획을 말했다.

수혁은 쌍겹진 오목눈을 동그랗게 치뜨고 놀란 소리를 질렀다.

《데거ㅡ 너 정신나가지 않안? 그러다 망가뜨리면 큰 변

날려구?》
《쳇, 겁쟁이같은게… 망가뜨리긴 왜 망가뜨린다고 그래? 분해한 순서 반대로 조립하면 될텐데, 넌 배우겠다는 애가 호기심도 없니?》
이 말에 수혁은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린듯 했다. 그러면서도 선뜻 응해나서진 못했다. 이것저것 걱정과 타산이 많았다.
《나두 뜯어보면 좋겠는데 콤퓨터선생님한테 승인받아야 하지 않을가? 그러다 고장나면 어쩌는가 말이야?》
《걱정두 팔자다. 콤퓨터선생이 우리 이모부이구 이렇게 열쇠까지 척 맡겼는데 승인한게 아니구 뭐가?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는거구. 싫으면 그만둬, 내 혼자 할테다.》
병호가 결단성을 보이며 나사틀개를 꺼내들고 접어들자 수혁은 할수없이 그의 옆에 붙어앉았다. 함께 뜯어보는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짝패가 무슨 일을 칠가봐 걱정이 돼서 지켜보자는 자세였다.
결과는 뻔했다. 고장난 콤퓨터를 수리할 재간이 없었다. 일직선생이 돌아보기 전까지 철수해야 했다.
바빠맞은 병호는 콤퓨터실문을 잠그고 달아나 황급히 열쇠를 이모부의 열쇠뭉치에 다시 매달아놓았다.
이튿날 소동이 일어났다. 장본인이 누군가고 교장선생님이 학생모임에서 따져묻자 병호보다 먼저 머리를 숙이고나선 애는 바로 수혁이였다.
(그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야 건늘만큼 고지식하고 마음도 깨끗했던 수혁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무분별해지다니… 과연 무엇이 그의 성격을 변화시켰단 말인가?)
그러자 문득 중학시절의 또다른 추억이 떠오른다.

수혁이가 남보다 두각을 나타낼수 있었던 기회는 오직 축구경기장에서뿐이였다. 일상생활에선 지나친 신중파이고 사색형인 그가 이상하게도 체육마당에만 나서면 남에게 양보를 몰랐다. 무자비한 공격, 땅크와 같은 완력…

아마도 그의 진짜본성과 기질은 양보를 모르는 체육인으로서의 그것이였던지도 모른다.

참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외피속에 감추어져있던 그 기질이 지금에 와서 때를 만나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인가 하고 병호는 허거프게 웃으며 생각했다.

어쨌든 기질은 기질이고 한아빠트, 한학급에서 살며 생활한 친구를, 더우기 다른 구역으로 이사간 후에도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었고 제대후 대학시절엔 반려자까지 붙여준 친구를 모욕하고 무시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리해할수 없는 도덕적인 배신행위였다. …

차는 어느덧 식료연구소 정문앞에 멎어섰다.

접수를 하고 들어가 소장부터 만났다. 사람좋게 생긴 소장은 림정우연구사가 지금 하던 일을 마무리하면 곧 보내겠노라고 선선히 응해나왔다. 그러다가 불쑥 생각난듯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헌데 한가지 말쨉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정우연구사의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압니까?》

《아, 왜 모르겠습니까? 나이가 서른둘이지요. 장가보내는 문제때문에 그러는게 아닌가요?》

《허허, 바로 맞췄습니다. 무슨 총각이 따르는 처녀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사업에만 몰두하니… 지금 맡은 과제만 끝내면 무조건 매련을 보자고 했던건데 이제 또 거

기 가서 새로운 과제에 달라붙게 되면 아까운 나이를 또 한살 넘기지 않겠습니까?》

《아, 그 〈미치는 증세〉때문에요? 하긴 공부에만 집착하느라 처녀 하나 홀려내지 못한 학자님이니까, 하하. …

소장동지, 그 문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십시오.》

《처장동무한테요?》

《제 동생문제인데 응당 이 형이 책임져야지요. 그러잖아도 보아둔 처녀가 있답니다.》

《아, 그랬댔소? 그렇다면 내 마음을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공장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시는 소장선생님께 제가 인살 드립니다.》

《뭘요? 장군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타조고기가공문제를 돕는거야 우리 식료연구소의 응당한 본분이지요.》

《그럼 제 동생을 잠간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어서 그러십시오.》

소장은 친절하게 문밖까지 나와 고기가공연구실을 가리켜주었다.

흰 위생복을 입은 림정우가 실험탁에 마주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실장이 등뒤로 다가가 불러서야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무슨 일인가 해서 돌아보다가 벌씬 웃음을 지었다.

《아니, 형님 오셨군요.》

키가 훤칠하고 기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준수하게 생긴 동생의 모습을 보니 새삼스레 대견한 생각이 든다. 게다가 제대군인당원에 대학졸업생 이렇게 안팎으로 미끈한 남자한테 어느 처녀인들 반하지 않으랴.

《머리쉼도 할겸 밖에 좀 나가자꾸나.》

두사람은 청사앞 정원의 긴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군데군데 쌓인 눈이 불어오는 바람에 휘말려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가시만 남은 장미꽃나무덩굴이 애처롭게 떨고있다.

《겨울이 발악을 하는걸 보니 봄도 멀지 않았구나. 인생도 이렇게 해마다 봄을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니?》

《형은 오늘 별스레 감상에 빠진것 같군요.》

《바루 너때문이지.》

《예?!》

어리둥절해하는 동생에게 주병호는 다짜고짜 품속에서 사진 한장을 꺼내 내밀었다.

《좀 봐라. 이중에 어느 처녀가 제일 안겨오는지?》

그것은 7～8명의 관리국처녀들이 무대에서 중창을 하는 사진이였다. 주병호가 직접 찍고 깨워서 나누어준것인데 다행히 한장 남아있었다.

정우는 얼결에 받아보고는 씩 웃으며 도로 내미는것이였다.

《뭐, 다들 곱구만요.》

주병호는 그만 실망했다. 그가 점찍어둔 처녀는 오른쪽 제일 끝에 선 처녀인데 뛰여나게 아름다왔다. 부모들이 다 성기관에 있고 본인은 원산경제대학졸업생이다. 특별히 안겨오는 처녀를 짚으라면 동생도 의례히 이 처녀를 짚으려니 했는데 모두거리로 다 곱다니?…

《그러지 말구 한명한명 자세히 뜯어보라니까? 다 고운것 같애도 개개의 얼굴이 다 특성이 있단 말이야. 황홀하다든가, 매력있다든가, 귀엽다든가, 복스럽다든가, 리지적이든가.… 하여튼 마음드는 녀자를 선택만 하면 이 형님

이 무조건 성사시키겠다.》

《그러니 형님은 절더러 처녀의 얼굴만 보고 일생문제를 결심하라는거예요? 참…》

《무슨 소릴? 내용두 모르는 처녀를 소개해주겠니, 아무렴? 이 형님이 다 파악이 있는 처녀들이길래 담보하는거지.

우리 관리국처녀들은 하나같이 쭉쭉 빠지구 예쁘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대학, 전문학교졸업생들이다. 너와 짝이 기울지 않아. 배경들도 그쯘하고 간단치 않은 집 딸들이야.》

《그런 집 처녀들은 대개가 과학자의 성격과 생활을 리해하지 못하더군요. 하여튼 난… 생활속에서 서로 파악되고 진정으로 공감된 정신적인 결합을 원해요. 인간의 마음이란 한순간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볼수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원,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해서야 언제 장가를 가겠니? 너처럼 잘생긴 남자가 늦도록 장가를 못 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 뭔가 하나 모자라지 않는가 하구. …》

《하하. …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하라지요. 생각은 인간의 자유니까요.》

《너 무슨 사고방식이 그러냐? 상하좌우를 둘러볼줄 알고 그에 맞게 처신할줄 아는게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이야. 너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형님의 말씀이 리해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는 범인간과는 달라서 사면팔방 정신을 팔구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다가는 아무런 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연구사업자체의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병호는 한숨을 쉬고말았다. 담배를 꺼내 한대 피워물고 동생에게도 내밀다가 그만 걷어넣었다. 림정우는 술과 담배를 일체 입에 대지 않는다는것을 상기했던것이다. 식료연구

사가 돼서 그럴가? 남자가 술, 담배도 할줄 모르고 처녀를 달고다니는 멋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인가? 과학자의 생활이란 참 따분한것이라고 주병호는 새삼스레 생각했다.

담배를 피우다말고 그는 결론적인 어조로 말했다.

《아무래도 너한테 방임해둘순 없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구 처녀 하나 사귀지 못한 네가 무슨 재간에 자체로 대상자를 골라?

어쨌든 네 사업을 리해할만 한 학력과 마음을 갖춘 처녀라면 되겠지?》

《그런 처녀가 쉬울것 같습니까?》

《걱정말래두. 넌 그저 빨리 공장에 와서 제품개발할 생각이나 해라.》

《참, 그 공장설비가 굉장히 멋있다지요? 참관갔다온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감탄하더군요.》

《너도 와보면 눈이 휘딱 뒤집어질게다, 하하. …》

《제 하던 일을 다그쳐끝내고 즉시 나가겠어요.》

《전활 해라. 차를 보낼테니.》

주병호는 자기의 손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길로 공장에 나간 주병호는 박수혁지배인에게 연구사가 곧 오니 가공설비는 절대로 다칠 생각을 말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나 수혁은 설비개조의 필요성을 완강히 주장했다. 훈연공정이 없이는 제품의 질제고도, 새로운 가공조법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외국에서 떠온 훈연증자로의 도면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파고들어 설명을 하는데 나중엔 주병호도 그 우월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좋네. 그럼 새로운 훈연설비를 수입해들여올것을 내 판

리국에 제기하겠네.》

《수입이라구? 관리국에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럼 방법 있소? 꼭 필요하다면야 돈을 쓰는 수밖에…》

《지금 쓰는 구이로가 있지 않나?》

《그건 못 다친다지 않아?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소?》

주병호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승산없는 모험에 기대를 걸지 말구 수입안을 제기하자구. 다시한번 말하지만 구이로를 뜯어고친다구 하다가 망쳐놓으면 책임질 방법이 없어. 이건 중학교때 콤퓨터를 뜯어보다가 망가뜨린따위의 사고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거란 말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자넨… 끝내 수입안을 제기하겠다는건가?》

《자네가 설비개조를 끝내 주장하는 한에서는!》

주병호를 노려보는 수혁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번뜩이였다. 책상우에서 틀어쥔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나라에 손실을 끼치면서라두… 제 한몸만은 상하지 않게 안전한 길을 택하겠다?!…》

주병호도 격분해서 마주 쏘아보았다.

《난 자네처럼 제 공명을 위해 무분별한 모험은 하고싶지 않아!》

《공명을 위해서라구?! 내가?》

《그럼 뭔가? 아니라면 개조안을 포기하란 말이야!》

《아니! 난 절대 물러설수 없네! 개조의 가능성을 외면하구 수입안을 제기하는데는 더더구나 동의할수 없구!》

주병호의 얼굴엔 차디찬 랭소가 흘렀다.

(끝내 친구의 의리를 짓밟겠단 말이지. …)

《좋네! 어디 관리국회의에서 제기해보자구!》
그는 씹어뱉듯 내치고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다.

8

방안에는 무덤속같은 고요가 깃들었다.
이불속에서 눈을 꾹 감은 최경천은 불시에 쓸쓸하고 서글픈 심회가 마가을 저녁의 찬바람같이 가슴속을 휩쓸었다.
나이 50이면 한창 정력이 왕성한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최경천은 침상에 누워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게 되는것이였다.
화력발전소 열조작공으로 일하던 그가 기계대학을 졸업하고 여기로 온것은 타조목장이 새로 일떠선 그해였다. 목장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력량이 부족하다는것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능력있는 기술일군들과 대학졸업생들을 선발배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최경천은 그때 제일먼저 적임자로 선발되여왔던것이다.
그때 그는 얼마나 큰 포부로 가슴을 설레였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든 고향땅을 기술로써 빛내여가리라! 그것으로 나의 후반생을 자랑스럽게 빛내이리라. …
하여 그는 한창 설비납입중이던 고기가공공장에 배치되여 설비조립에 있는 힘과 정력을 다 바쳤다. 정말 힘든줄 모르고 밤낮으로 땀을 흘렸다.

주병호지배인이 꼬박 붙어 함께 일하면서 고무해주었다. 윤재철관리국장도 후방물자를 싣고 매일이다싶이 나왔었다.

아, 그때 최경천은 얼마나 보배로 떠받들렸던가? 젊음이 넘쳐서였던가, 기술이 높아서였던가.

참으로 긍지롭고 보람찼던 그 시절이야말로 경천의 인생엔 다시 없을 좋은 시절이였다.

헌데 이제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인생도 절기가 있어 어차피 락엽의 계절을 맞게 되는것이라고 그는 애써 위안도 해보았다.

하지만 미칠듯 한 이 고요와 공허를 이겨내기가 힘들었다. 공장의 동음이 그리웠다. 늘 웅웅거리는 랭동전동기소리와 각종 가공설비들의 동음속에 살아오면서 어느덧 거기에 익숙된 그에게 있어서 이 고요는 죽음과도 같았다. 고막을 울리던 그 소음들이 그에겐 삶의 노래였고 환희였다.

불현듯 멀리에서 그 음향이 울려오는것 같다.

벌떡 일어나 귀를 강구었으나 그것은 바람소리였다. 우— 우— 나무우듬지를 흔드는 청승맞은 바람소리…

경천은 고목이 넘어지듯 털썩 베개우에 쓰러졌다. 눈물이 관자노리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세상의 모든것이 자기를 버리고 외면한것만 같은 고독감과 서러움…

문뜩 일전에 찾아왔던 박수혁지배인의 얼굴이 떠오른다. 준절한 목소리가 울린다.

《그래서 반장동문 자기의 과오를 사직으로 씻으려 했습니까?》

《정말 공장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할일이 있습니다.》

구이로에 훈연장치도입… 그것은 정말 최경천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경천은 그 희망의 마지막 한가닥실오리마저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붙잡으려는 그 순간 눈앞에 주병호처장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타버린 전동기를 앞에 놓고 격분과 혐오감에 불타던 그 눈빛, 추상같은 절규…

《동무같은 사람이 이 신성한 일터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가? 동무는 애국자촌의 신성한 이름에 오점을 남겼단 말이요!》

한생 순박하고 성실했던 그가 한순간의 실책으로 이런 오욕을 당하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이게 어떻게 마련된 설비요? 동무가 그래 모르는가?

그래 공장이 입은 이 손실을 무엇으로 보상하겠소? 이젠 늙어서 감각두, 책임성두 무디여졌다는거요? 이렇게 너절하게 일할바엔 싹 그만두구 들어가란 말이요!》

최경천은 한순간 눈앞이 아찔했다. 과격한 주병호처장이 너무 격분한김에 내뱉은 욕설로 리해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경천은 더없이 고지식한 사람이였다. 달리 리해할수가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정신없이 집으로 가자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말짱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고통을 이겨낼수 없었던것이다.

만취되자 꼬꾸라졌다. 나른한 쾌감이 그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정신이 들만 하면 또 마셨다. 빈속에 식사대신 연거퍼 술이 들어가니 위가 견디여낼수 없었다. 그래도 취하지 않으면 미칠것만 같았다. 정신만 들면 주병호처장의 말이 무섭게 공명되여왔다. 마디마디가 시퍼런 비수가 되여 날아와 박히고 구정물이 되여 온몸에 들씌워졌다.

다른 사람도 아닌 주병호처장이, 8년간을 함께 일해온 초대지배인이 자기의 인생을 너절하다고 했다. 그것은 성실한 땀과 지혜를 깡그리 바친 자기의 귀중한 시절을 통채로 부정하는것과 같았다.
분하고 억울했다. 통곡을 하고싶었다. 그러나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솟구쳐오르던 의분과 원망감마저 스러져버리고 무서운 허무감이 덮쳐든다. 그래서 또 취해버리고싶었다.
부엌에서 달그락소리가 나더니 안해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여보, 미음이라도 좀 들어야지 그러다 어쩔려구 그러우?》
《됐소, 술이나 가져다주오.》
《원, 또 술이요? 의사선생이 뭐랬소? 위장염이 이제는 위궤양으로 넘어갔다구 절대 술을 금하라구 하였는데… 그러다 정말…》
마누라는 푸념을 하다말고 끔찍한 생각이 들었는지 흑 하고 앞치마자락을 눈에 가져갔다.
《죽으면 마는거지, 이렇게 살아선 뭣하겠소? 쓸모없이 버림받은 인간이…》
마음착한 마누라는 죽그릇을 놓고 돌아앉아 서럽게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최경천은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마누라가 설분을 토한다.
《그래, 사람이 그렇게 죽으라는 법이 어디 있소? 령감이 공장에서 일을 좀 많이 했소? 이 녀편네를 홀로 내쳐두구 밤낮나가 공장에만 붙어살더니 결국은 다 써먹었다구 그렇게…
사람이 일하느라면 실수할수도 있는거지 무슨 반동짓을 했

다구 사람을 이 모양 만들어요?

휴가왔다간 아들이 부대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 하겠수? 아버지란 사람이 이러구 있으면 아들이 군사복무를 어떻게 하는가 말이요?

그래도 아들에게 떳떳하게 살아야지. … 이제래두 정신차리구 몸을 추세워서 농장일이라도 나가면 될게 아니요?》

마누라의 말이 옳았다.

최경천은 가까스로 일어나앉았으나 전혀 당기지 않아 멍하니 죽그릇만 내려다보았다.

박수혁이 다시 찾아온것은 바로 이때였다.

《반장동무, 빨리 나가 차를 탑시다.》

《예?!》

《중앙병원들에 가보고 치료대책을 세워야지요.》

뜻밖의 말에 최경천은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구역병원에서 나와 진단을 내렸는데… 무슨 중앙병원엘 또 간다고 이럽니까? 난… 난 정말… 그만두겠습니다. 날 제발 내버려둬주십시오.》

수혁은 그를 안타까이 질책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반장동문 그렇게 주저앉아 적당히 여생을 보내선 안될 사람이기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반장동무가 했던 말이 생각나겠지요? 무엇때문에 여기로 왔는가? 어떤 믿음을 안고 온 반장동뭅니까?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든 고향땅을 높은 기술로써 빛내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후반생을 장식하겠다던 그 결심을 반장동문 쉽사리 버릴수 있단 말입니까?》

《…》

《지난 가을 장군님을 공장에 모셨을 때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애국자존의 고귀한 이름을 영원히 빛내여가자고 불같은 맹세들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박수혁이 눈물을 머금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바람에 최경천이도 그만 눈물을 흘리고말았다.

《제가 왜 그걸 잊겠습니까? 애국자의 자격을 잃었으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고칠수 없는 병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꼭 고치겠다고 마음먹어야 약도 효험을 내는 법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마음 절반, 약 절반이란 말이 있는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 꼭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맥을 놓고 누워만 있던 최경천은 현대의학기술이 안받침된 병원들마다에서 초음파검사도 해보고 복강경투시와 위내시경검사, 위액검사도 해보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였다. 다행히 종물은 생긴것이 없었고 급성궤양에 간부종이 겹친것이였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술을 많이 마신데 기인된다는 일치한 의견도 받게 되였다.

그제서야 최경천은 전동기사고를 내고 너무 속이 상한 김에 며칠동안이나 밥을 안 먹고 술을 과음한 사실을 고백하였다.

결국 사고와 함께 나약해진 정신력이, 정신적허탈이 빚어낸 병이였던것이다.

이것은 최경천에게 심각한 인생의 교훈을 주었다. 인간의 파멸을 초래하는 타락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법이다.

실패와 시련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인

간은 불피코 정신육체적으로 병들기마련이다.
《옳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인간은 죽지 못해 생존하는 식물인간과 같지요. 반대로 신념의 대가 굳건한 정신적강자는 죽음도 이겨내는 법입니다. 신념의 대란 무엇이겠습니까?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장군님께서 하라시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잘살수 있다는 믿음, 그것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배짱이고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기어이 실현하기 전에는 죽을수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비상한 자각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힘을 낳게 하고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게도 하는것이지요.》
박수혁의 말은 마디마디가 최경천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병원들에서는 여러가지 치료대책도 세워주었다. 약물주입, 침치료, 뜸치료와 같은 고려치료, 입원치료, 료양치료, 식사조절법, 보약치료…
수혁은 여러 병원들에서 자기의 특성에 따라 내린 각이한 처방들을 다같이 적용해보자고 했다. 즉 위궤양을 회복시키는데 특효가 있다는 온천에 가서 료양을 하면서 약물치료와 고려치료, 식사료법과 보약치료를 배합하자는것이다.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회복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그는 확신성있게 주장했다.
최경천은 좀 아름차다고 생각했는지 선뜻 응하지 못했다.
박수혁은 이것저것 다른 생각할 필요없이 오직 치료에 전심하라고 하면서 이튿날로 그를 료양소에까지 태워다주었다.
치료기간은 한달로 정해졌다.

9

미루어졌던 관리국협의회가 열린것은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발표된 다음날이였다.

《로동신문》에 실린 구호들의 랑독이 끝난 다음 윤재철국장이 회의취지를 알렸다.

《방금 들은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나온 공동구호에는 〈첨단을 돌파하라!〉,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라!〉,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지적되여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번에 외국참관을 갔다온 박수혁지배인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참가자들의 눈빛이 일시에 박수혁에게로 날아왔다. 계획되였던 협의회를 미루게 하면서까지 며칠간이나 침묵을 지켜온 리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혹과 기대의 눈빛이였다.

특히 윤재철국장의 가늘게 뜬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속깊은 곳을 낱낱이 투시해보는듯 했다.

수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잔잔하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사실 외국참관을 떠날 때만 해도 발전된 나라들의 고기가공기술과 타조산업추세를 파악하고 그것을 릉가하여 세계적인 첨단에 올라서자는 야심에 불타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명백히 세계적으로 타조산업이 가장 발전된 나라

의 기술과 경험, 방식을 돌파하는것이였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바로 이것이 첨단돌파의 의미였고 세계에로 나가는 길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15일간의 외국참관결과 또 조국에 돌아와 위대한 장군님의 타조목장현지지도문헌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세계에로의 길, 최첨단돌파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수혁의 말은 여기서 잠시 멎어섰다.

청중의 시선은 더욱더 긴장되였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 제가 타조업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남아프리카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니 중소규모의 목장들에서 생산도 소극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고있었습니다. 10년전 우리가 타조업을 시작할 때의 그 활발하고 양양하던 기세와 경쟁열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였는가? 한마디로 투자가 많이 드는데 비해 순화사양의 성공률이 낮았기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발전이 따라서지 못해 국제시장의 판로를 장악하지 못한것도 그 중요한 원인으로 됩니다. 이러한 좌절의 진통과 침체상태에서 200년의 타조산업력사를 가진 나라들에서도 기껏 년산 2 000마리정도의 타조목장들을 운영하고있을뿐입니다.》

놀라움의 파문이 일었다.

긍지에 넘친 박수혁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오직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어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가

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 세상에 없는 대규모목장을 일떠세워주실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서라도 타조가공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고기가공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설비의 현대적장비로 보나 위생학적수준으로 보나 또 생산공정의 과학기술적수준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제품의 질, 포장수준에 이르기까지 현혹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쏘세지나 양벨순대 같은것은 그 맛과 질적수준이 매우 높은데 이것은 최근에 새로 개발된 가공설비인 훈연증자로에 비결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의 일반고기가공기술을 우리의 타조고기가공에 가능한껏 리용하면서도 타조고기에 고유한 우리 식의 가공조법을 반드시 탐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고 세계적으로도 으뜸인 우리 식의 타조고기가공품을 개발하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돌파해야 할 최첨단의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렬한 호응의 박수갈채가 또다시 터져올랐다.

박수혁은 이어 대책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가공품종류를 개발하며 그 가지수를 늘이는것.

둘째로, 가공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이로에 훈연발생장치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이빠진 공정을 해결하는것.

셋째로, 고기의 선도를 최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서 랭동전동기관리에서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것.

넷째로, 공장의 위생학적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

다섯째로, 공장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는것.

여섯째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 등이였다.

다른 조항들은 다 만장의 지지성원을 받았으나 둘째 조항만은 그렇지 못했다. 참가자들모두가 놀라고 웅성거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의혹과 반대, 반신반의…

윤재철국장의 얼굴도 심각한 빛으로 굳어져있었다.

한참만에 그가 의논조로 말했다.

《설비개조안에 대해서 다들 의견들이 있는것 같은데 어디 기탄없이 말해보오.》

누구도 선뜻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론의하기조차 서슴어진다는 자세들이였다.

《담당처장동무!》

윤국장이 불러서야 주병호가 일어났다. 량손으로 책상모서리를 짚은채 상체를 숙이고 서있다가 이윽고 머리를 들었다. 찌르는듯 한 그의 눈빛이 한순간 수혁이쪽을 일별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씹어말했다.

《제 생각에는 이빠진 공정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구이로에 손을 대는것은 매우 심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대정보기술이 도입된 고급한 설비에 만회할수 없는 손상을 줄수 있고 또… 성공한다 해도 오히려 공장의 현대적면모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거야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비개조안은 취소하자는 의견이요?》
《저는 설비개조가 불필요하다고 한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동무생각을 말해보오.》
주병호는 버릇처럼 또다시 책상을 짚은 팔에 상체를 싣고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결연히 입을 열었다.
《땜때기식으로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훈연증자로를 새로 사오는것이 먼 앞날을 위해서도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중한 문제인가를 잘 아는지라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주병호의 견해에 지지표를 던지자고 해도 나라의 경제사정, 구체적으로는 관리국의 자금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그들로서 서슴없이 말할수 없었던 것이다.
하기에 박수혁은 구태여 자기가 왜 이런 개조안을 내놓게 되였는가에 대해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자, 다들 자기 견해들을 말해보시오.》
끝내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이쪽도 저쪽도 지지할수 없다는 말없는 의사표시였다.
주병호는 남모르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는 애당초 자기의 수입안이 통과될수 없으리란걸 알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제기한것은 적어도 개조안을 막자는 의도에서였다.
차라리… 그렇다, 차라리 이런 문제는 애당초 상정되지부터 말았어야 누구나 편안했을것이다. 무엇때문에 이런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놓는것인가. 타결책이 없는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얻어질것이란 자기자신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딱한 처지에 빠뜨리는 결과밖에 없다는것을 박수혁이 그래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개조안도 수입안도 다 부결되고 회의가 무난히 결속될것이라 보았던 주병호의 예상은 맞지 않았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윤국장이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던것이다.

《나는 두사람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라에 손을 내밀지 말고 자체의 힘으로 설비를 개조하면서도 높은 수준에서, 현대적설비와 공장의 면모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나는 지배인동무와 처장동무가 합심협력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위임합니다.》

주병호의 환한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위험천만한 모험의 길에 어차피 들어서야만 하는가? 합심협력—이로써 윤국장은 두사람의 의견을 다같이 부결이 아니라 지지한듯이 표현했으나 주병호는 결국 박수혁의 개조안이 채택되였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았다.

그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장을 타고 망망대해우에 선 아찔한 심정이였다.

박수혁의 마음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직은 해야 한다는 결심뿐이고 실질적인 성공의 담보는 없었다.

10

휴식일이였다.

미용원을 나선 영혜는 통일거리로 가는 전차에 올랐다. 시내에 미용을 하러 나왔던길에 박수혁지배인의 집으로 심부름을 가는 길이다.

요즘 지배인은 새롭게 벌려놓은 여러가지 사업때문에 눈코뜰새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낮에는 생산지휘와 위생관리, 정보화실현을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렸고 밤에는 콤퓨터에 마주앉아 날이 새도록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작성하고 연구했다. 그러느라니 늘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눈에 피발이 섰으며 입술엔 물퉁구리가 지다못해 조갈이 들었다.

영혜는 그런 지배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견딜수 없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는대로 《지배인동지, 좀 쉬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야— 오늘은 집에 좀 다녀오십시오.》하고 간청하다싶이하군 했다.

그때마다 지배인은 《우리 청년비서가 걱정해주는데 인차 가야지.》하는 말로 굼때군 하는데 그 인차라는게 어느때나 될지 알수 없었다. 집에선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워하고 기다릴것인가?

그래서 휴식일이 되자 《지배인동지, 오늘은 집에 가시겠지요? 함께 갑시다. 저도 시내에 나갈 일이 있는데…》하고 응석부리듯 청했다. 사실은 구실을 만드느라고 한 소린데 지

배인은 《응? 시내 어디?》하고 따져묻는 바람에 《저, 머리를 좀 하려구요.》이렇게 어물쩍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반가와하며 이렇게 부추기는것이였다.

《오, 머리를 좀 해야지 너무 애돼보여서 나이대접 못받겠어. 참, 갔던길에 우리 집에 좀 들려오라구. 그러찮아도 시간을 낼수 없어 가지 못하던 참인데 마침이로구만.》

영혜는 새초롬해서 입술을 뿌죽 내밀었다.

《아이, 싫습니다. 아주머니가 기다리는 사람은 지배인동진데 제가 불쑥 나타나면…

불청객이라구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지배인동지, 그러지 말구 함께 갑시다, 예?》

영혜가 이렇게 떼질하다싶이 졸랐으나 지배인은 그대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야— 내가 지금 자리 뜰 형편이 못돼서 그러지 않니? 청년동맹비서가 날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전화해줄테니 들려오라구. 가면 집사람이 뭘 보내는게 있을거야.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여 지배인을 집에 보내려고 작전했던노릇이 엉뚱하게 자기가 미용원신세를 지는것으로 번져지고말았다.

토성종점에서 전차를 내린 영혜는 지배인이 적어준 주소를 찾아 어느 아빠트 3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나요?》하는 애된 소리와 함께 문이 빠끔히 열렸다. 갸름한 얼굴에 쌍까풀진 눈이 유표한 소녀가 나타나 말끄러미 올려다본다.

《아이, 예쁘구나. 네가 은경이냐?》

《예. 아지민 누구예요?》

《응, 아빠공장에서 왔다, 너의 엄마 만나러.》

그러는데 어느새 듣고 녀주인이 따라나와 반기였다.

《어서 들어와요. 그러찮아도 전화받고 기다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알게 되여 반갑습니다.》

영혜는 인사치레를 하며 녀인의 모습을 은근히 새겨보았다. 척 보기에도 세련미가 느껴졌는데 뜯어보니 더욱 매혹적이였다. 그윽하고 다감해보이는 눈매며 상큼한 코날이며 섬세하고 윤기나는 입술이며…

《자, 여기 좀 앉아요. 오느라고 힘들었지요?》

말씨도 사근사근한게 대뜸 정이 들 정도였다.

영혜가 쏘파에 앉자 리수연은 얼른 당과류통을 앞탁에 놓아주며 말했다.

《잠간 쉬면서 기다려주세요. 외국기술잡지 번역한걸 보내야겠는데 채 끝내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랬댔군요.》

리수연이 건너편 끝방으로 사라지자 영혜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알뜰하고 정교하게 꾸려진 응접실의 한쪽벽면에는 여러상의 대회기념사진들이 모셔져있었다. 주로 지배인의 아버지가 참가한 대회사진들이였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아나가던 영혜는 문뜩 눈이 휘둥그래졌다. 지배인의 어머니에게 수여된 공훈기자증서를 보았던것이다. 로동신문사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기자라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대단한 문필가인줄은 몰랐었다. 류다른 존경심이 가슴에 그득 차올랐다.

창문쪽으로는 크고작은 화분들에 갖가지 화초들이 우거져있고 그옆의 장식장에는 기묘하게 생긴 도자기들과 공예품, 조각상들이 진렬되여있었다.

(지배인동진 이렇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뒤두고 밤낮 공장에 붙어사시는구나. 일년에 집에 들어와 가족과 지내는 날이 몇날이나 될가?)

영혜는 까닭모를 한숨이 호— 새여나가는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닫이가 열려있는 옆방을 기웃해보았다. 이불장, 양복장이 한쪽벽을 차지한 방 한가운데서 은경이가 앉은뱅이책상우에 휴대용콤퓨터를 펼쳐놓고 영어공부를 하고있었다.

《야— 우리 은경이가 정말 대단한 수재로구나. 이 콤퓨터는 아빠가 사주었니?》

은경이는 총명해보이는 두눈을 깜박이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건 엄마가 저금한 돈으로 산거랬어요.》

소녀가 고집스레 우기는 바람에 영혜는 그만 당황해졌다. 천진한 그 말에 아버지에 대한 야속한 감정이 다분히 울려나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영혜는 소녀를 품에 안아주며 달래듯 속삭였다.

《은경아, 앞으로는 아빠가 이 콤퓨터와는 대비도 안될 더 크고 멋진걸 안겨줄거다. 정말이야.》

《난 그런건 바라지 않아요.》

소녀의 어른스런 대답은 또한번 영혜를 놀래웠다.

《바라지 않는다구? 건 왜?》

《난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좋겠어요. 난 아빠가 보구싶은데… 아빤 날 보구싶지 않아해요.》

《무슨 소릴 하는거냐? 아버지가 널 얼마나 보고파하시는지 아니?》

《거짓말! 아지민 거짓말쟁이야. 아빠가 날 보고싶으면 왜 오지 않겠나요? 일요일두, 명절날두…》

《거야 일이 너무 바쁘니까 오고싶어두 못 오는거지.》

《그럼 다른 아이들네 아버지들은 바쁘지 않아서 집에 오나요?》

영혜는 그 어떤 말로도 소녀를 납득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심정을 리해하기엔 너무도 어린 나이인것이다.

영혜가 더는 대답을 못하자 은경이는 새무룩해지며 눈망울이 내려앉았다. 초리 긴 속눈섭끝에 물기가 매달린다.

영혜는 본의아니게 어린것의 정에 주린 마음을 건드린 자신을 의식하며 황황히 말을 돌렸다.

《아이, 은경아! 우리 저쪽방에 가서 재미나는 영화나 좀 볼가? 아지미 못 본거 좀 보게 해주렴.》

그제야 소녀는 밝게 웃으며 일어나더니 쪼르르 앞서 건너갔다.

록화기를 켜니 텔레비죤극 《뻐꾹새가 노래하는 곳》이 나왔다.

《이거 아지미 봤나요?》

《아니, 못 봤어. 어서 보자!》

사실 그것은 영혜가 여러번 본것이였다. 눈은 화면을 보았으나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였다. 아버지에 대한 은경이의 감정과 태도는 자연히 지배인에 대한 안해의 감정을 련상해보게 했다.

아니, 안해가 남편에게 사랑만을 바라며 남편이 품은 뜻과 사업에 대한 헌신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는것은 속된 녀자만이 할수 있는 생각이다. 지배인의 안해는 결코 그런 부류의 녀성이 아니라고 믿고싶었다.

그때 풍채좋은 은경이 할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문대며 들

어와 식사를 하자고 불렀다.

나이 70이나 되였다는데 얼마나 정정하고 끼끗한지 영혜는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60이 지나도록 출판보도부문에서 일해온 녀인의 원숙한 지체와 품위가 그대로 온몸에 배여있었다. 이런 녀인은 범박한 할머니로 가정잡사를 돌보며 앞치마를 두르고 여생을 보내기보다 백발이 되도록 안경을 끼고 서재에 앉아 며느리가 받쳐주는 식사를 들면서 인류의 문화고에 보태여질 저서를 집필하는것이 제격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식탁에 마주앉으면서 한담삼아 말을 여쭈어보았다.

《은경이 할머닌 어쩐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울리지 않아보입니다.》

《허, 그럼 어찌겠소? 아들며느리가 다 직장에 나가는데 뒤바라지를 해주지 않을수 있나? 생활이란 그래. 명예구 지위구 사정이 없이 녀자에게 가정적부담을 지워놓는다네.》

《그래도 한생 펜대만 쥐고계시다가 로년에 이렇게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자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처년 정말 다심하구 인정이 깊구만. 공장청년동맹비서라지?

사실 난 우리 은경이 아버지가 나라의 명예를 걸머진 중요한 공장의 책임자로서 집걱정없이 일을 잘해 당의 신임에 보답하기만을 바랄뿐이네. 거기에 이 에미의 보람도 있는게 아니겠나.》

영혜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굽이 쩌릿이 젖어들었다.

《은경이 할머니의 그 마음에 받들려서라도 지배인동진 꼭 장군님 아시는 훌륭한 일군이 될겁니다.》

《고맙네. 자, 어서 식기 전에 들라구.》

식탁에서는 닭알을 풀어넣은 칼제비국과 기름에 튀겨낸 명태자반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리수연은 프랑스잡지 《고기가공기술》을 번역한 자료와 함께 꿀에 마늘을 재워넣은 보약단지를 영혜에게 부탁하며 말했다.

《멀리 있으니 마음뿐이예요.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돌봐주기 바래요. 그리구 시내 들어오면 허물하지 말구 들려요. 언니처럼 생각하구 말이예요.》

《아이, 저도 그러구싶어요. 지배인동지에 대해선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잘하는것으로 받들어드리겠어요.》

《고마워요.》

아빠트현관앞에까지 따라나와 영혜를 바래우고 선 리수연의 두눈엔 맑은 눈물이 맺히였다.

11

영혜는 생각에 골몰하여 걸음을 걷다나니 전차정류소를 지나친줄도 모르고있었다.

한참만에 정신을 차리고 선 그는 어디로 갈가 하고 잠시 망설이였다. 《락랑—서평양》을 타면 목장으로 가는 로정이 되고 《토성—문수》를 타면 경공업대학 강좌장을 하는 삼촌네 집으로 가는 로정이 된다. 시내에 나오면 무조건 삼촌네 집에 들리는것이 철칙이였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늦은감이 난다.

(그렇지, 지배인동지한테 급히 전해야 할것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영혜는 총총히 《락랑－서평양》정류소로 향했다.

(차라리 잘됐어. 삼촌네 집에 가면 또 시내총각을 선보자고 성화일텐데.)

삼촌부부는 영혜가 제대되여오자부터 시내에서 맞춤한 신랑감을 골라준다고 극성이였다. 제대군인당원이겠다, 인물도 잘났지, 게다가 인민군적으로도 손꼽히던 손풍금수였던 영혜를 교외의 목장에 묻어두기는 너무 아까운 처녀라는것이다.

영혜 아버지가 목장 당비서로 일하다가 순직한 뒤 비육반 사양공이였던 영혜 언니는 목장 화물차운전사에게 시집을 갔다. 아버지를 대신하게 된 삼촌은 영혜만은 시내로 데려가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것이였다. 전번 양력설때도 삼촌은 잘생기고 머리좋고 전도가 유망하다는 경공업대학졸업생을 소개해주었는데 영혜는 만나도 안 보고 머리를 흔들었다. 자기네 타조목장에도 훌륭한 총각들이 많은데 왜 하필 시내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삼촌어머니는 혀를 찼다.

《원, 주변구역 어떤 처녀들은 시내로 들어오지 못해 안달이 나 한다는데 너는 고작 거기 총각들을 바라본다는 거냐?》

《거기 총각들이 어때서요? 하긴 삼촌어머니야 충분히 모를수 있지요 뭐. 어쨌든 난 타조목장을 떠나선 살수 없다는것! 이걸 알아주세요.》

기실 그러했다. 바로 지난 10월 장군님께서 《애국자촌》

이라 표창해주신 영광의 일터, 분육공 자기의 모습을 장군님께 직접 보여드린 크나큰 영광, 영혜에게는 이것이 한생 간직하고 빛내여야 할 값높은 긍지였다.

하기에 그의 남편이 될 사람은 장군님께서 관심하시는 타조가금업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할수 있는 사람, 그 목적실현에 안해로서 뜻과 마음을 아낌없이 고여줄수 있을만한 그런 사람이여야 했던것이다.

부흥역에서 지하전동차를 타고 붉은별역에 내린 영혜는 역사를 나서 시외뻐스정류소로 향했다.

그때 한발 앞서가던 키큰 남자 하나가 뒤를 돌아보더니 타조목장으로 가는 뻐스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고 물었다.

무심히 3대혁명전시관앞이라고 위치를 말해주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그가 비위좋게 또 말을 걸었다.

《처녀동무도 타조목장으로 가겠는데 함께 가기요.》

그제야 영혜는 경계심을 곤두세우고 손님을 마주보았다. 키가 후리후리한 지성인풍의 청년이였다. 실없이 처녀를 희롱할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좀 떠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십시오. 전 타조목장처녀가 아니니 함께 갈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청년은 례의적인 웃음도 없이 뻣뻣한 얼굴로 《아니, 동무가 타조고기가공공장에서 분육공으로 일하는 처녀가 아니란 말입니까?》하고 의분에 차서 반문하는것이였다.

하, 이 사람 봐라. 내가 분육공이라는것까지?

영혜는 다시한번 자제력을 발휘하여 아닌보살을 했다.

《전 동무를 본 일이 없는데 안다고 하니 참 딱하군요. 그

렇게 소경이 문고리 잡는 식으로 넘겨짚는다고 제가 분육공이 됩니까?》

《그래요? 동문 눈감고 아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예?!》

《동무가 날 못 보았다고 해서 나도 동무를 못 보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경우를 비유한 말이지요.》

영혜는 보기 좋게 한꼴 먹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그리고 곰곰히 추리해보았다. 이 사람이 날 어디서 보았을가? 타조목장… 분육공… 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 지난 10월 2일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텔레비죤화면으로 여러번 방영되였지. 보도와 기록영화로… 그때마다 장군님앞에서 타조고기를 분육하는 나의 모습이 생동하게 비치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몰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왜 없겠는가? 있어도 많지.

마침내 판단을 이끌어낸 영혜는 흡족해졌다. 자기의 긍지감을 돋구어준 고마운 손님에게 방긋 미소를 지어보였다.

《제가 졌어요. 대신 길안내를 말아드리지요. 갑시다.》

그다음엔 내기나 하듯 서로 침묵을 지키며 걸음만 옮겼다.

영혜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대방앞에 불필요한 말을 먼저 건네는것은 스스로 자존심을 허무는 경솔한짓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일단 상대편에서 물어오는 말에는 성실하게 대답하는 아량이 있었다.

《책에서 보니 타조고기가 그렇게 만문하고 영양가가 높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럽요. 살이 연한데다 위생상 안전해서 회를 쳐먹는데 그저그만이랍니다. 그리구 지방과 콜레스테롤함량이 극히 적

을뿐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예방접종해도 화학제를 몸에 저축 안하기때문에 타조고기야말로 세계적인 천연건강식품이지요. 영양가로 말하면 소고기이상의 높은 카로리를 가지고있고 리진을 비롯한 필수아미노산과 글루타민산, 아스파라긴산 등 20여가지의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며 특히 정력을 보하는데서 록용보다도 훨씬 효과가 세다고 해요.》

《동문 정말 좋은데서 일하고있구만요.》

《그야 말할거나 있어요?》

《참, 타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타조고기맛을 실컷 보겠지요?》

영혜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리해시켜야 할가? 깔끔한 말을 골라 면박을 주고싶은 생각도 불끈 일어났다.

하지만 고쳐 생각했다. 이 청년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은 그였다. 흔히 떡하는 사람 떡집어먹기마련이라는 격으로 고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기맛을 못 보겠는가 하는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인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혜는 참지 못했다. 상대가 누구이든 바른 인식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디였다.

《동지! 미리 경고해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지배인동지앞에서 했다간 큰코 다치는줄 아세요.》

영혜의 말은 부드러운것 같으면서도 맵짠 기운을 풍겼다.

청년은 조금도 주눅이 드는 기색이 아니였다.

《지배인동지가 그렇게 무서운가? 내 듣기엔 성격이 차분하고 내성적인 사색형이라고 하던데… 큰소리 한번 안 치면서도 실력과 정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혜는 사뭇 놀라 감탄했다.

《어마나, 자료탐지를 괜찮게 했는데요?》

《정보시대가 아닙니까?》
《하지만 아주 정확치는 못해요. 동무의 정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있거던요.》
《그게 뭔데요?》
《우리 지배인동지가 타조고기 다루는데서만은 얼마나 매정하고 무서운지 모른다는것! 이런저런 인맥관계로 타조고기를 사업하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혀를 털고 돌아가군하지요. 무슨 말인들 안하겠어요? 체통 아까운 깍쟁이, 보기와 다른 구두쇠, 물감장사도 울고갈 린색한, 제 먹는것도 아까와할 곱세크…
호호… 그래도 지배인동진 고민 안해요. 그런 말은 들을수록 좋다는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소?》
《그런 사람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우리 공장 사람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됐답니다.
명절공급도 돼지고기로 하면 하지 타조고기는 발쪽 한개도 다치지 못하게 해요. 단 한점의 고기라도 인민봉사기관에 넘겨 하루빨리 온 나라 인민이 맛보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뜻을 실현하고싶어서지요. 평양시민들뿐아니라 저 자강도나 강원도 산골사람들에게까지도 타조고기가 다 차례지게 될 때 우리도 한번 실컷 먹어보자는거랍니다.》
영혜는 한껏 긍지에 넘쳐 시를 읊듯 말했다.
청년은 감동되여서인지 말을 못하고 머리만 끄덕인다.
어느덧 뻐스정류소에 이르렀다. 기다렸던듯이 뻐스가 와닿는다.
영혜는 부피큰 청년의 려행용가방을 맞들어올리며 비로소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하러 목장에 가는 사람일가 하는 호

기심이 부쩍 들었다.

하긴 요즘은 타조목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하도 많아 심상히 여길수도 있었다. 구경하러 오는 사람, 배우러 오는 사람, 도와주러 오는 사람, 취재하러 오는 사람, 그림그리러 오는 사람, 누구를 만나러 오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다. 현재 글을 쓰러 와있는 작가만 해도 텔레비죤극작가와 소설가 두명이나 된다.

그런데 뻐스에서 내려 목장정문에 이르렀을 때 영혜는 자기가 상대방에 대한 파악을 제때에 못한데로부터 어망처망한 실수를 범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접수하는걸 보니 과학원 식료연구소에서 고기가공공장에 파견되여오는 연구사선생이 아닌가?

영혜는 그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었다. 그가 얼굴이 빨개서 어쩔줄 몰라 서성거리자 연구사선생은 오히려 의아해서 묻는다.

《아니, 왜 그러구 섰소?》

그러자 불쑥 반발심이 솟구쳐올랐다.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라는걸 한마디도 비치지 않고…》

《허, 누가 묻기나 했다구 싱겁게 제 소개를 하겠소?》

영혜는 또다시 통꼴을 먹은셈이 되였다.

(첫 대면에 이렇게 인상을 잡쳐놨으니… 오늘은 정말 망신만 당하는가봐.)

영혜는 《호—》한숨을 쉬고 걸음을 떼였다. 이젠 별수 없었다. 공장지배인실에까지 착실하게 안내를 해주는 수밖에…

박수혁은 책상가득 벌려놓은 종이장들을 마주하고 이것저것 들여다보다가 영혜를 반겨맞았다.

《수고했소. 번역자료는 가져왔겠지?》
《예, 여기…》
수혁은 영혜가 내미는 자료부터 받아 들여다보느라고 뒤에 들어선 손님을 미처 보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귀에 선 남자의 목소리에 수혁은 비로소 놀라 얼굴을 쳐들었다.
《누구요?》
《식료연구사 림정우입니다.》
《식료연구사?!》
수혁은 서둘러 일어나며 반색을 지었다.
《동무가 그럼 국장동지가 보내준다던 고기가공전문가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소. 연구사라고 하기에 나이든분인줄 알았더니…》
수혁은 림정우의 젊고 름름한 모습을 홀린듯이 바라보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자, 여기 좀 앉소.》
지배인이 쏘파를 권했으나 림정우는 책상우에 가득 펼쳐져있는 종이장들에 눈을 주며 물었다.
《지금 무슨 바쁜 일을 보시던중이 아닙니까?》
《오－ 그러찮아두 이걸 놓고 연구사동무 안타까이 기다리던중이요. 전문가의 눈으로 어디 좀 봐주우다.》
《그게 뭔데요?》
《공장에서 새 제품개발을 위해 종업원현상모집한거요. 매사람이 한가지씩 종류와 형태, 구성재료와 혼합방식, 제

조법에 대해서까지 창발적인 도안을 제기하기로 했댔소.》
《그렇습니까? 좀 봅시다.》
림정우는 그 자리에서 대뜸 외투를 벗어 옆에 서있던 영혜에게 넘겨주고 책상앞에 바싹 다가앉았다.
영혜는 얼결에 옷을 받아들고 서있다보니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영민하고 진지한 눈빛으로 제품도안들을 한장한장 들여다보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기도 하는 그의 거동을 보니 노여운 마음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아무렴 공장을 위한 일인데 한몸이 옷걸개가 된들 무슨 대수랴.
림정우는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되는것들을 따로 골라놓고 흥분된 눈길을 쳐들었다.
《착상이 기발한게 많습니다.》
《정말이요?》하고 박수혁은 기쁨을 금치 못했다.
《참, 우선 숙소를 잡구 려장을 풀어야지. 영혜, 거 2층에 빈방 하나 있지? 얼른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구 필요한 비품들을 갖춰놓으라구. 내 연구사선생과 그새 사업토의 좀 하겠소.》
《알았습니다!》
영혜는 기꺼운 마음으로 연구사에게 옷을 넘겨주고 돌아섰다.
(옷걸개면 옷걸개! 청소부면 청소부! 뭐나 다 좋아. 지배인동지를 도울수 있는 일이라면!)
영혜는 연구사가 지배인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방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화분이며 어항, 꽃병, 재털이까지 갖추어놓았다. 봉희와 함께 책걸상도 맞들어다 놓고 자기네 녀성호실에 있던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 열풍기도 옮겨다놓았다. 침대에 침구류도 제일 좋은것으로 골라놓고

는 이젠 됐는가 하고 허리를 폈다. 그러자 맞은켠의 빈 바람벽이 안겨오면서 시계와 달력, 거울생각이 떠오른다. 그뿐인가? 소랭이, 비자루, 걸레, 휴지통… 그리고 보온병, 전화기…

(아이구, 옹근 한살림을 펼쳐야겠구나!)

12

이튿날 아침 박수혁은 림정우연구사와 함께 생산공정을 돌아보기로 했다.

현장에 들어가기 앞서 림정우는 도살장밖의 보정우리에 대기시킨 20여마리의 비육타조들을 관찰했다. 타조의 생물학적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했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키를 훨씬 넘는 타조들을 보고 대뜸 놀랐다.

《이거 키들이 굉장히 크구만요. 목길이, 다리길이만도 각각 한메터쯤 되겠는데요?》

《타조의 키가 보통 1.75～2.75메터, 어떤건 3메터까지 되니까 그렇게 될거요. 가금중에 이렇게 키 큰 짐승은 없소. 그래서 타조를 그냥은 잡기가 힘들고 타조를 도살하는 설비가 따로 있는거지.》

《이 타조들의 무게는 얼마쯤 나갈가요?》

《도살나이가 된 비육타조니까 평균 73키로정도 되오.》

《보기보다 퍽 무겁구만요. 그러니 전번에 장군님께서 현장에서 보아주신 타조는 한 백키로그람쯤 되지 않았습니까?》

박수혁은 림정우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텔레비죤으로 보

았겠는데 신통히 알아맞춘것이다.

《정확히 봤소. 꼭 100키로짜리였소. 다 자란 타조는 수것이 150키로, 암것은 120키로까지 되오.》

《아니, 대가리가 주먹만큼밖에 안되는 새의 무게가 150키로라니, 정말 가금이라고 보기엔 특별한 종류입니다.》

림정우는 몹시 희한해했다.

《그럼, 고기맛자체도 일반 가금종류와는 완전히 다르오. 돼지고기나 소고기맛에 가깝다고 해야 할지.》

《타조의 도살나이는 몇살쯤 됩니까?》

《보통 열넉달이요. 타조가 열넉달나이가 되면 잡는다는 인식은 근 10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소. 그건 깃털생산을 기본목적으로 하던 당시 남아프리카의 타조사양자들이 열넉달이 될 때 아름다운 새 깃털이 나오고 이때의 가죽, 즉 무게가 73키로때의 가죽이 가장 리상적인 털구멍형태를 가진다고 보았기때문이요.

그러나 이 아프리카검은타조는 까나서 열달이면 벌써 이 몸무게로 되오.》

《그럼 아프리카검은타조외에 또 무슨 타조가 있습니까?》

《붉은목타조와 푸른목타조가 있는데 그건 길들이지 못한 타조들이요.

길들인 타조중에는 남아프리카에서 길들인 변종으로서 이스라엘검은타조와 나미비아검은타조가 있소.

우리 나라에선 고기생산성과 가죽생산성이 높은 푸른목타조와 번식력이 빠른 아프리카검은타조를 섞붙임해서 새로운 잡종1세를 만들어냈는데 상품용생산과 후보종자타조의 확대를 다같이 보장할수 있는 아주 리상적인 우량품종이요.》

《그건 정말 육종분야에서 대단한 성공이군요.》
림정우는 기쁨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타조의 외형을 유심히 뜯어보던 그가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타조의 외적구조는 모든것이 모순적으로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대가리는 작은데 비해 눈이 왕밤알같이 큰가 하면 목은 가는데 몸뚱이는 앞산만 하지, 다리는 쇠말뚝같은데 발가락은 두개뿐이니 너무도 기형적이 아닙니까?》
《허허… 정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놈이요. 원래는 다섯개의 발가락을 가지고있었는데 1, 2, 5지는 퇴화되였소. 그런데 타조는 그 남은 발가락에 의지해서 걷고 달리고 모든 활동을 진행한단 말이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오? 시간당 50～70키로메터, 최대로 달릴 때의 한걸음간격은 6.7～8.5메터요.》
림정우는 깜짝 놀라 눈을 흡떴다.
《달리는게 아니라 훨훨 난다고 해야겠군요.》
《그뿐인줄 아오. 저 다리에 한번 맞으면 갈비가 나가는 정도요. 그렇게 다리힘이 강하거던. 뚜룩뚜룩하는 저 눈으로는 20리밖까지 내다볼수 있소. 그외에도 특이한게 많아. 타조의 밸길이가 몸길이의 수십배에 달하는거라든가, 간이 포유동물처럼 복강안에 있는것이 아니라 흉강안의 심장 량켠에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거라든가, 다른 가금과 달리 오줌과 똥을 따로따로 배설하는거라든가.》
《야- 정말 희한하구 기이한 동물이라고밖에 할수 없군요. 수명은 한 몇해쯤 됩니까?》
《몇해가 다 뭐요? 81살까지 살수 있소. 번식기간은 42살까지구.》
《예? 아니, 그건 정말?!…》

림정우는 숨가쁘도록 놀랐다.

《암타조가 14달이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40년동안 알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오. 그것도 1.5～2㎏짜리 알을 매일 말이요.》

림정우는 연방 놀라고 감탄했다.

《야— 정말 경제적가치에 있어서도 특등이군요. 성공만 하면 기가 막힌 기업분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리상적인 가금업이라고 하는게 아니요? 성공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털과 가죽, 고기와 알, 뼈와 알껍질까지 버릴것이 하나도 없는 수익성 높은 가금이거던. 이제 마리수가 좀더 늘어나서 가죽가공공장까지 일떠세운다면 우리 나라의 타조산업은 완전한 부흥을 이룰수 있을거요.》

《정말 해볼만 한 일입니다. 앞으로 타조에 대한 지식을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참고도서들이 있으니 가져다보오.》

《고맙습니다.》

림정우의 야심만만하게 빛나는 두눈을 보며 수혁은 진취성이 강한 새 세대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를 보내준 윤재철국장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스레 느끼였다.

두사람은 공장후문을 통해 현장으로 들어갔다.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공장안은 온통 으리으리하고 눈부시게 번쩍거렸다.

탈의실에서 하얀 위생복을 입고 소독수에 손을 씻은 다음 먼저 도살작업반으로 들어갔다. 하얀 타일벽으로 둘러싸인 휘넓은 작업장에 천정궤도와 활차들, 승강발판들과 쇠사슬 등 여러가지 설비들과 기구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전기투입으로부터 털뽑이와 피받이, 가죽벗기기와 내장

가르기, 각뜨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흐름식으로 되였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공정흐름시간을 측정해본 박수혁은 반장에게 그루를 박았다.

《타조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인차 선도가 변할수 있기때문에 숨죽여서 40분만에는 숙성칸에 들어가야 하오. 그런데 시간이 3분이나 초과됐소.》

《예. 작업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걸리는 문제는 없소?》

기름하면서 너부죽한 얼굴에 사람좋은 웃음이 항상 벙글서해있는 도살반장은 이때라는듯 반죽좋게 들이댔다.

《녀성로력 좀 한명 주십시오. 다른 작업반엔 처녀들이 둘씩 되는데 우리만 홀애비작업반이니 좀 억울합니다. 작업속도를 더 높이재도 녀자가 있어야…》

《이거 장가간지 얼마 안된 반장이 벌써 바람난게 아니요?》

《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도살반 전체 성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대변하는겁니다. 아, 일을 더 잘하자는건데…》

《음, 좋소. 다른 작업반에서 한명 조절해보기요. 누가 오겠다고 할는지는 몰라두…》

박수혁은 그러찮아도 도살반에 밸처리작업인원이 좀 부족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도살반을 나온 두사람은 넓은 복도의 입구에 묵직하게 닫겨있는 두터우면서도 투명한 수지문앞에 이르렀다. 한손을 슬쩍 드니 반대켠으로 스르르 문이 열린다.

복도의 오른쪽이 분육반, 왼쪽은 가공반이다.

각종 설비들이 그쯘한 분육칸에서는 연록색위생복을 입은 7～8명의 반원들이 넓은 탁을 마주하고 둘러서서 분육작

업을 하고있었다.

《분육작업은 이렇게 손로동으로 해야 합니까?》

현대화된 공장에서 손로동을 하는걸 보니 이상스럽게 생각되는 모양이다.

《이게 바로 다른 고기와 차이나는 타조고기의 특성이란거요. 모양이 각이한 수십개부위의 고기살들에 흰 막이 갈피갈피 덮여있어서 기계로는 분육할수 없게 돼먹었거던.

세계적으로도 타조분육작업만은 꼭 손으로 하게 돼있소. 그러니 공장에서 제일 힘든 부문이지.》

림정우는 머리를 끄덕이며 작업장을 둘러보다가 분육공 박영혜의 모습에 눈길을 멈추었다.

고기가공전문가라고 하지만 타조고기에 대해서는 구경조차 처음인 림정우에게는 돼지고기분육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타조고기분육법이 자못 신기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영혜의 칼질솜씨는 얼마나 묘하고 민첩한지 한참 보아도 눈에 미처 담기가 힘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막을 어떻게 척척 갈라내는지, 비계를 베여내면 어떻게 살이 한점도 붙어나가지 않는지, 뼈에는 어떻게 한점의 고기도 남지 않게 되는지? 묘리를 알고싶어도 너무 속도가 빠르니 리해하기가 힘들었다.

분육한 고기가 자동흐름선을 타고 근막기(근막을 벗겨내는 자동대패기)에로 넘어간다.

그사이 근막을 벗겨낸 정육들이 넓은 그릇에 가득차있었다. 고기의 색갈은 정말 딸기물을 들인것처럼 진붉은빛이였다.

그것을 전자저울에 달아 두키로씩 진공포장하여 즉시 령하 40℃의 초극동기에 실어다 넣는다.

시간을 재여본 박수혁은 만족해서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확실히 분육반이 반장을 닮아 속도가 있구만. 그런데 말이요, 반장동무!》 하고 수혁은 심중한 어조로 도살반에 돌릴 녀성로력을 한명 내놓아야겠다고 말했다.

금시 칭찬받고 입이 째졌던 반장은 그 말에 당장 눈이 튀여날듯 놀라 안된다고 펄쩍 뛰였다.

하긴 어떻게 닥달해서 키운 기능공들이라고 순순히 내놓으랴. 수혁은 손을 저으며 물러나고말았다.

분육반작업실문을 나서면 바로 맞은켠이 가공반이다.

림정우는 은백색반사광이 눈부신 가공반의 크고작은 설비들이 평양시안의 다른 고기가공공장들에서 본 가공설비들보다 훨씬 더 요란하고 현대적이라는데 놀라고 흥분했다.

《정말 멋있구만요! 지배인동지, 이만한 설비면 갖가지 고기제품을 마음껏 설계하고 만들어낼수 있겠습니다.》

박수혁은 그 말에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래, 한번 본때있게 해보자구! 이제 구이로에 훈연장치만 도입하면 더 멋있을거요. 그야말로 세계적수준이지.》

《아, 그렇게만 된다면야! 헌데 훈연장치도입은 언제 됩니까?》

《음, 인차 설계가 나올거요. 관리국적인 사업으로 추진시키고있으니 조립제작은 문제가 아닌거구.》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 신심이 생기는데요. 지배인동지, 제 그럼 훈연장치가 완성되는 동안 새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표를 미리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혁은 놀랍고 기뻤으나 머리를 기웃했다.

《훈연공정을 거치지 않고 될수 있을가?》

《훈연이야 제품이 다된 후의 마지막공정인걸요. 구이로 개조가 다된 다음 제품개발을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하긴 그래. 지금이 어느때라구! 하하… 림동무의 일욕심도 보통이 아니구만.》

《뭘요, 그저 보통이지요.》

림정우는 어줍게 웃고나서 수첩을 펼쳐들고 세단기로부터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다.

수혁이 제품주입기앞에 이르러 반장을 소개했다.

《이 공장과 력사를 같이해온 초대가공반장 유춘삼동지요.》

《아, 그런가요? 반장동지, 많이 배워주십시오.》

춘삼은 마스크우로 근엄한 눈빛을 힐끗 던지더니 지배인을 보고 허리를 굽석했다.

《반장동무, 우리 가공반일을 도와줄 식료연구소 연구사선생입니다.》

춘삼은 한순간 놀라는듯 했으나 이내 머리를 숙여보였다. 그리고는 얼핏 손님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는데 어쩐지 꺼리는듯 한 눈빛이였다. 혹시는 어디서 젊은 햇내기연구사가 왔는가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림정우는 유독 가동을 하지 않는 어느 한 설비앞에 멈춰서더니 유심히 자호를 들여다보았다.

《진공교반회전기… 이 설비는 왜 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햄을 만들 때 쓰는 설비요.》

수혁의 말에 정우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제품보관고에서 꼴바싸 한개를 골라 자름면을 살펴보던 그는 제품의 약점을 얼른 찾아냈다.

《이것 보십시오. 지배인동지, 자름면에 기포구멍이 많고

탄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요.》

《옳습니다. 꼴바싸의 질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새 제품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고 봅니다.》

수혁은 연구사가 자기 사업의 출발점을 정확히 포착했다고 생각했다.

13

관리국일군들의 조회가 끝나자 주병호는 서둘러 처에 돌아와 밀린 내부사업을 처리했다. 한시바삐 공장에 나가 훈연공정설계문제를 대책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설계를 누구한테 맡기겠는가 하는것이 골치거리였다. 최경천반장은 이젠 안될 사람이고 대신할만 한 설비전문가를 물색해야 한다. 그까짓 사람이나 교체하기야 무슨 힘든 일이랴. 문제는 누가 하든 구이로에 손을 대서 과연 성공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가 일처리를 끝내고 방을 나서는데 옆방인 국장사무실에서 마침 윤국장이 나오다가 그를 불렀다.

《공장에 나가는 길이요?》

윤재철은 팔걸이의자에 앉으며 옆자리를 권했다.

《예.》

《참, 어제 식료연구사가 공장에 도착했다더군.》

《그렇습니까?》

주병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예상했던것보다 일이 빨리 진

척되는구나 하고 그는 내심 기뻐했다.

《아주 젊구 전도유망한 연구사래. 대학시절에 학위까지 받았다던지?》

《제 동생입니다.》

주병호는 자랑스런 어조로 대꾸했다.

윤국장이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오— 그래? 그런 동생이 있었소?》

《외사촌입니다.》

《음, 좌우간 기쁜 일이요. 장가는 갔나?》

《아직… 못 갔다고 해야 할지, 안 갔다고 해야 할지…》

《음, 대상자문제도 신경을 써야겠구만. 처장동무가 이모저모 잘 도와주어야겠소. 어련할테지만 말이요.》

《걱정마십시오. 그 앤 꼭 성공할겁니다. 고기가공분야에서도 쟁쟁한 실력가로 알려져있으니까요.》

주병호는 설비개조를 안하고도 동생의 연구사업을 통해 제품개발을 능히 할수 있다는것을 덧붙여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좋소. 그건 그렇구… 구이로개조문제 말이요. 동무생각엔 정말 승산이 있을것 같소?》

주병호는 내심 긴장되였다. 국장이 어떤 의미에서 묻는것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았다. 무턱대고 안된다는 말을 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현대화를 반대하고 임무수행을 태공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었다.

《어떻게든 해보아야지요. 박수혁지배인도 뭔가 확신하는게 있어서 마음먹었겠는데… 그에게 설계를 맡기고 저는 조립을 맡아서 해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만약 실패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공간을

타산한 계획이였다.
윤국장이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손으로 직접 가져다놓은 구이로가 최신설비로서의 가치를 잃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땐 몹시도 가슴이 아팠소. 개조니, 수입이니 할 때는 마치도 자기의 팔을 잘라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수술적방법으로 치치해야 하는가를 결심할 때처럼 그렇게 고민이 컸소.
그런데 문제는 두 경우가 다 나에겐 치명적인 타격으로 될수 있다는거요.》
주병호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국장의 아픈 심리가 그대로 자신의것으로 가슴에 마쳐왔다. 성격이 불같은 국장이 이렇게까지 허심하게 자기의 내심을 털어보인적은 아직 없었다.
국장은 매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만약… 만약경우 말이요. 구이로개조가 실패하는 경우…에― 됐소. 말할것도 아니지.》
국장은 별안간 손을 홱 내젓고는 커피잔을 들어 두어모금 마셨다.
그러나 주병호는 국장의 다음말을 듣고있었다. 국장은 분명 실패하는 경우 박수혁과 주병호 자기들의 운명에 대하여 념려하고있는것이다. 자신의 손때묻은 설비가 상하는것보다도 아래사람의 운명문제가 걱정인것이다.
눈굽이 찌릿해왔다. 그는 이 순간 어떻게든 설비를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꿎은 생각이 떠올랐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다 잘될겁니다.》
《고맙소. 만약경우란 있을수 없지. 주병호와 박수혁이 합

심하면 꼭 성공작이 태여날거요.》

국장과 인사를 나누고 공장으로 떠나오는 주병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굳어져가고있었다. 그것은 개조안설계가 완성되고 시험로단계에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이로를 다칠수 없다는것이였다. 시험로의 성공여부를 보아서 개조안을 철회해도 때가 늦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사정이 풀리고 관리국에 자금여유가 조성되는데 따라 현대적인 훈연증자로를 수입해오면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돈하고나니 한결 마음이 개운해졌다. 어쨌든 시험로의 성패가 결정될 때까지는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했다.

어느덧 공장에 도착한 주병호는 지배인방에부터 들어가 수혁이앞에 마주앉았다.

최경천을 입원시켰다는 말을 듣자 그는 빨리 설비반장의 임무를 대신할수 있는 기술자를 데려와야 하지 않는가고 독촉했다.

그러나 박수혁은 머리를 저었다.

《최경천반장이 이제 치료를 받으면 건강이 회복될텐데 어떻게 사람을 교체하겠소?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앉았다는걸 알면 그의 마음이 또다시 상처를 입을수 있소.》

《아니, 그럼? 그가 퇴원할 때까지 한달동안 속수무책으로 있자는건가? 인정에 사로잡혀 자기 본분마저 줴버리자는거요?》

수혁이도 그 말에는 반박할 론거가 없었다.

최경천이 나올 때까지 설비개조문제를 미루어놓고 기다릴수는 물론 없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시켜서도 안될 일이다. 반드시 최경천의 손으로 하게 해야 한다. 전

제는 이렇게 해놓고 방법론을 탐구해보자고 수혁은 생각했다.

박수혁은 왜서인지 최경천의 머리에서 좋은 안이 꼭 나올거라고 믿고싶었으며 그를 위해 실머리를 튕겨주고싶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해서 친구인 주병호의 조언을 받아들일수 없게 된것은 또 하나의 속타는 일이였다. 그러찮아도 설비개조안을 관리국협의회에 제기할 때부터 그의 충고를 무시한것으로 되여 친구지간의 감정이 어성버성해진터였다.

수혁은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터놓아야 할지 알수 없어 한동안 담배만 태우던 끝에 마침내 한마디 했다.

《인정을 위해 본분을 줴버릴것 같으면 차라리 최경천일 버리구 자네의 말을 따르겠네.》

《뭐라구?》

주병호는 수혁의 말을 음미해볼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 억이 막히기도 하여 책상을 탕 치며 일어났다.

《내 자네 풍에 놀아나다가 무슨 꼴이 될지 모르겠구만. 지배인이 담당처장의 말을 이렇게 헌신짝대하듯 해서야 무슨 일을 해먹겠나? 이건 도대체 일을 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엉? 아, 손발이 맞아야지… 운명이 왔다갔다하는 중대한 일을 놓구 이게 뭔가? 합심협력은 고사하구…》

《제발 좀 진정해주구려. 이 수혁이 아무렴 친구의 운명을 망쳐놓기야 하겠소?》

수혁의 말에 주병호는 진정은 고사하고 더욱더 약이 올라 눈섭을 곤두세웠다. 흥분파인 그는 일단 격해지면 냅다 쏟아놓고야 시원해하는지라 중도진정이란 바랄수 없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방안을 오락가락하더니 우뚝 멎어서며 손가락 한개를 곧추 세워 내밀었다.

《한주일내로 내앞에 설계를 갖다놓게. 그렇지 않으면 내 박수혁일 가만두지 않겠어!》

수혁은 어이가 없어 허 웃음이 새였다.

하지만 그 으름장에 자신을 믿고 떠밀어주는 뜨거운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동생을 만나봐야지? 저쪽 끝방에 있네.》

주병호는 복도에 나와 수혁이 가리켜보이는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마침 그 방문이 열리면서 보온병을 든 처녀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음, 연구사가 방에 있나?》

주병호는 인사를 받는겸 이렇게 물으면서 처녀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공장에 나올 때마다 자주 보던 처녀인데도 어쩐지 그렇게 되였다.

《예, 계십니다. 연구사업하느라고 온 정신이… 여념이 없답니다.》

처녀는 방해될세라 속삭임소리로 대답하는것이였다. 연구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념려가 느껴졌다.

주병호는 알겠다고 머리를 끄덕여보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콤퓨터화면을 마주한채 림정우는 돌아볼념도 하지 않았다.

주병호는 짐짓하고 서서 방안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덜퉁하고 과학밖에 모르는 동생에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을만치 정갈하고 화려하게 꾸려져있었다. 창문가의 화분에는 눈부시도록 새빨간 제라니움꽃이 활짝 피여있었고 침

대말의 원탁우에선 생신한 보라빛도라지꽃묶음이 은은한 향기를 풍긴다.

(이 겨울에 도라지꽃이라… 누군가 극진하게두 온실걸음까지 했군.)

주병호의 눈앞엔 방금 지나친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양간하고 작아보이는 얼굴에 비해 눈망울이 별로 커보이는 처녀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금방 중요한 연구과제를 맡고 사업을 시작한 젊은 연구사에게 처녀가 정도이상으로 극성을 보인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병호는 동생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의 옆에 가앉았다.

콤퓨터화면에 눈길을 박고 마우스를 움직이던 림정우가 그제야 놀라 일손을 멈추었다.

《형님이였군요. 언제 왔어요?》

《방금전에 왔다. 헌데 넌 무슨 심사루 혼자 달아왔니? 내게 전화하면 차를 보냈을텐데…》

《하루라두 빨리 오고싶더라니, 그날은 일요일이여서 휴식하는 형님을 방해하고싶진 않구 해서요.》

《혼자서 공장을 용케 찾아왔구나.》

《마침 공장처녀와 만나 함께 오게 됐지요.》

《공장처녀?》

주병호는 대뜸 짐작되는바가 있어 물었다.

《이자 보온병 들구 나간 처녀 말이야?》

《예?… 예.》

《처녀가 환대를 한다고 해서 서뿔리 마음을 주어선 안된다. 이일저일 다 그르칠수 있어.》

림정우는 씩 웃었다.

《원, 별걱정을 다 하는구만요. 언젠 인생의 봄이 어떻다구 걱정이더니 오늘은 웬일이예요?》

《처녀두 대상이 될만 한 처녀라면 마음을 놓겠다만, 어쨌든 네 대상자는 내가 말아두겠으니까 딴 생각말구 오직 제품연구에만 전념해라.》

《그야 물론이지요.》

이때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처녀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다.

주병호는 개의치 않고 동생과 사업토의를 했다.

《그래 현재 목표를 어떻게 정했니?》

《제가 연구소에서 자체로 착안했던 제품들과 여기 공장 현상모집에서 골라낸 각종 고기제품 스물네가지를 선택했는데 당면과제는 매 제품에 대한 재료구성, 혼합비률, 절임과 익힘의 온도 및 시간 등 구체적인 기술적지표들을 찾아 확정하는거예요.

그 다음단계로서는 훈연공정이 도입되는데 따라 시험생산을 해서 제품을 완성하는거지요.》

《뭐? 훈연공정이 도입되는데 따라?》

주병호는 신경이 곤두서서 따져물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왜라니? 훈연공정이란게 아직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공담에 불과한데 그걸 전제로 해서 지표를 잡는다는게 말이 돼?》

《공담이라구요? 지배인동진 꼭 된다고 확신성있게 말하던데요?》

《글쎄 개조하든 수입하든 전망적으로야 되겠지. 하지만 현단계에서는 있는 설비만 가지고도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도를 탐구해야 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연구사가 필

요한거지.》

《하지만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타조밸쏘세지 같은건 훈연공정없이는 질적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데요.》

《아 그런 제품은 저레 제껴놓으려무나. 타조밸로 쏘세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큰일날건 없지 않니?》

《그럼 타조밸의 리용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나요? 지배인동진 모든 제품가운데서도 타조밸을 리용하는 제품을 특별히 중시하더군요.》

《중시해도 할수 없어. 봐가다가 훈연로가 성공하면 타조밸쏘세지를 해보는거요, 실패하면 그만두는거지. 복잡하게 벌써부터 론의할게 있나?》

주병호는 이러면서 속으로는 박수혁을 욕했다.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타조밸쏘세지라는걸 고안해서 새로 온 연구사에게 넌떡 맡겨놓으면 어쩐다는것인가? 그것도 훈연공정없이는 안된다는 제품을 말이다. 타조밸은 질겨서 순대도 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왔는데 쏘세지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것인가? 하필이면 왜 이렇게 파악없는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시끄러운 문제를 산생시키는지 모르겠다. 그게 다 많은 실적을 내여 이름을 내보려는 공명심의 표현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가 이렇게 속을 끓이고있는데 정우는 정우대로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형님은 구이로에 훈연공정 도입하는걸 믿지 못하겠다는거군요?》

《됐다. 너는 네일이나 하구 이 문제에 한해선 일체 참견하지 말어라. 너하군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훈연공정자체가 제품개발을 위

한건데…》

《글쎄 내 말대루 훈연공정없이 할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간 괜한 헛수고를 할수 있어. 사람이란 정력을 바쳐도 구멍수를 똑바로 보구 바칠데다 바쳐야 해.》

주병호는 이렇게 못박듯 강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림정우는 리해할수 없는듯 머리를 기웃했다.

14

승용차가 국가과학원을 가까이하자 박수혁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부탁했던 설계가 어떻게 되였을가? 며칠전 주병호와의 마찰이 있은 그날 수혁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먼저 설계의 실머리를 찾아쥐여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 지체없이 외국참관시에 찍어가지고온 훈연증자로설비사진과 현재 공장의 구이로설비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과학원 연구소를 찾아갔었다.

연구소에서는 박수혁의 절절한 호소에 감심하여 콤퓨터방식연구실의 젊은 박사실장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도록 해주었다.

과학원 연구소에 도착하니 기초설계가 되여있었다.

수혁은 약속을 지켜준 30대의 박사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나서 기쁜김에 그길로 료양소를 찾아떠났다.

《아차, 내가 너무 급한김에 면회준비를 잊었구나. 뭐 들고갈게 있어야 할게 아니야?》

수혁은 도중에 차를 세우고 주머니의 돈을 털어 운전사에게 주었다.

《식료상점, 과일상점 다 훑어서 뭐든 사오라구.》

《제게도 돈이 있습니다.》

《됐어. 그럼 둘이걸 합쳐서 빨리!》

운전사는 키가 자그마한만큼 여간 재빠르지 않았다. 얼마 안있어 량손에 묵직한 구럭을 들고 낑낑거리며 달려왔다.

수혁은 구럭 하나에 삐죽 내밀린 병모가지를 보고 눈을 곤두세웠다.

《뭐야 이건? 위병환자에게 술을 가지고 가?》

《챠, 술일게 뭡니까? 사이다지.》

《사이다는 일없던가?》

《지배인동진 사이다가 왜 사이단지 압니까?》

《그야…》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운전사는 이때라는듯 뻐기며 주어섬겼다.

《중조, 식초, 사탕, 에취둘오우, 이렇게 네가지로 이루어졌다 해서 사이다랍니다. 알콜성분은 0프로인 반면에 모두 소화를 돕는 물질들이란 말입니다.》

《어? 정말 그렇구나. 허허…》

수혁은 사이다의 구성성분을 뻔히 알면서도 생각 못한게 우스워 한참 웃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온천료양소에 이르렀다.

숲이 우거지고 앞에 호수가 있는 경치좋은 골안이였다. 곳곳에서 뽀얗게 풍겨나는 뜨거운 물김들이 온천특유의 풍경을 펼쳐놓고있었다. 훈훈한 대기속에 약물냄새같은것이 진하게 풍긴다.

파란 줄무늬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숲속이나 호수가의 여기저기서 소풍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서야 수혁은 문뜩 저어되는것이 있어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 생각없이 치료에 전심하라고 할 때는 언젠데 이렇게 중한 일감을 맡기러 왔단 말인가? 병문안이나 하고 그냥 돌아가는게 옳지 않을가?

그러나 이내 머리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랬다고 해서 생각이 없을 최경천인가? 누구에게나 육체의 안정은 강요할수 있어도 사색의 정지는 강박할수 없는 법이다. 인간의 다른 권리를 빼앗을수 있어도 사유의 권리만은 빼앗지 못하는것이니…

그렇다. 지금 누구보다 생각이 많고 번민이 클 사람이 바로 최경천일것이다. 육체적으로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속으로는 어떻게든 구이로개조안을 찾느라고 고심할것이다. 실머리가 떠오르지 않아 안타까이 모지름을 쓸것이다. 이런 때 그에게 정신적안정을 줄수 있는 길은 그가 창조적인 사색을 할수 있게, 성공의 환희를 맛볼수 있게 진정으로 돕는 길뿐이다.

박수혁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최경천이 들어있는 호실에 들어서니 그는 책상우에 가득 널어놓은 종이장들을 마주하고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긋고 지우고 하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눈굽이 뜨끈해났다. 아무렴 성실하고 의리깊은 최경천의 본성이야 어디 가랴. 이런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놓았다면 어찌될번 했는가.

《반장동무!》

수혁이 불러서야 최경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니, 지배인동지!》
그 유순한 눈에 대뜸 눈물이 어리더니 허둥지둥 마주왔다.
《바쁘실텐데 어떻게… 닷새만에 이 먼길을 또 오다니요?》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도 지척이라는데 도무지 100리도 못되는 길을 왜 자주 못 오겠습니까? 그래, 몸은 좀 어떤가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더니 많이 나았습니다.
회복이 예상외로 빠르다고 의사선생들이 놀랍니다.》
《그래요? 정말 기쁜 일이군요.》
수혁은 운전사에게 음식들을 펴놓으라고 했다.
《아니, 이런건 뭘 다…》
원탁우에 가득 놓이는 사과, 배, 귤, 오리훈제, 빵 같은것을 내려다보던 최경천이 뭔가 주저하는듯 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지배인동지! 저… 종이 좀 가져온게 없습니까?》
수혁은 또 한번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람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것은 약이나 음식이 아니라 설계를 할수 있는 종이였던것이다. 그러고보면 자기가 면회를 오면서 제일 중요한것을 놓친셈이였다.
《사무용지가 몇장 있을뿐인데…》
《일없습니다. 그거라도…》
최경천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만났을 때처럼 눈이 번쩍 띄여 손을 내밀었다.
수혁은 종이를 꺼내주고나서 책상우에 널려져있는, 여백이 없이 그리고 지우고 한 종이장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애를 많이도 썼군요. 헌데 뭐 좀 생각되는게 있긴 있습니까?》

《예, 역시 생각이라는것도 마음먹기탓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오를것 같지 않게 막연하던것이 여기 와서부터 줄곧 생각하느라니 점차 새벽하늘처럼 훤해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새벽하늘처럼요? 그럼 이제 곧 노을이 피고 해가 솟는게 아닙니까?》

수혁은 정말 아침해를 안은듯 가슴이 환해지는것 같았다. 그에게 어떤 좋은 방안이 떠오른것일가? 혹시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한것이 허사로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것은 다음순간이였다.

그래도 좋았다.

《그래, 어떤 생각입니까?》

수혁은 궁금증이 부쩍 살아올라 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열봉이 들어있는 회전로를 따로 만들어 증기발생로옆에 설치하자는겁니다.

거기서 연통을 뽑아 구이로의 배풍구옆에 송풍구를 내서 련결시키면 구이로본체에도 크게 손상을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반장동무!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수혁은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리며 최경천의 두손을 덥석 그러쥐였다. 너무도 놀라운 일치에 그는 미칠것만 같이 기뻤다.

어리벙벙해있던 최경천은 마침내 수혁이 꺼내준 기초설계안을 보자 눈물이 그렁해졌다.

《지배인동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반장동무,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지배인입니다.

난 반장동무가 병상우에서도 사색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끝내 착상을 해낸것이 더 고맙습니다. 남이 착상한것

을 설계로 옮기기보다 제가 착상한걸 완성하는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지요.

지배인동지, 제 인차 설계를 완성해가지구 공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치료기일은 철저히 지켜야지요. 설계가 되면 전화해주십시오. 제작은 공장에 물리기로 했으니까요.》

《설계가 돼도 콤퓨터모의실험을 걸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반장동무 그저 치료를 직심스레 하면서 설계만 완성해주십시오.》

박수혁은 간절한 어조로 거듭 당부했다.

《예, 꼭 완성할테니 믿어주십시오.》

《물론 믿습니다. 어제도 그랬던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그날에 우리 떳떳이 웃으며 오늘을 추억합시다!》

최경천의 두눈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수혁은 그날로 설계용지를 구해 보내주었다.

15

하루사업총화가 끝났으나 가공반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수혁이 물었다.

《난 더이상 림연구사와 같이 일을 못하겠수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춘삼은 리유에 대한 설명은 략하고 결론만 말했다.
《작업반장을 그만두게 해주던가 다른 작업반으로 옮겨놓아주던가 해주시우.》
《무엇때문에요?》
춘삼은 대답없이 애꿏은 담배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한동안 괴로운 침묵이 흘렀다.
말 못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는듯 지그시 생각에 잠겨있던 수혁이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반장동무의 말뜻을 알만 합니다.
연구사동무의 요구성에 따라서기 힘들다는거겠지요?》
춘삼은 역시 묵묵부답으로 응수했다.
《반장동무, 젊은 사람이 잔소리를 한다고 노엽게만 생각지 말고 그가 무엇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가 깊이 생각 좀 해보십시오.
간혹 생산에 일시적인 혼란을 줄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것을 리해해야 합니다.》
《난 이젠 나이도 많고 머리가 굳어져 따라갈수가 없수다.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주시우.》
옹이가 딴딴히 박힌 유춘삼의 고집스런 어조에 수혁은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건강이 허락치 않아 따라서지 못하겠다고 해임시켜달라던 최경천의 목소리가 되살아왔다. 그때 수혁은 공장을 버티고있던 쌍기둥의 하나가 물러앉는다는 생각에 안타까와 준절히 그를 타일렀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한쪽의 기둥이 물러앉으려 하고있다.

이번엔 지식이 딸려서 못하겠다고 한다. 육체가 딸리든 지식이 딸리든 두 경우가 다 근본적으로는 정신력에 기인된다고 수혁은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쇠소리나는 단호한 어조로 못박아 말했다.

《안됩니다. 반장동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건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눈 찌르기나 같습니다. 이악하게 배우고 이악하게 따라서야 합니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반장동무, 알겠습니까? 물러설 자리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길에서 물러설 권리가 없습니다.》

가슴이 서늘하도록 맵짠 어조에 여기가 질려 춘삼은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다.

그가 어깨가 축 처져 방을 나간 뒤 수혁은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가공반장만 탓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림정우연구사가 확실히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약점이 있는것 같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무작정 높은 요구성만을 제기하는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겠는가? 기술학습에 참가해서 그자신도 느낀바이지만 로동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강의방법을 탐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전문가들에게나 통할수 있는 고급한 학술용어로 대학강의하듯 해주고는 그것을 받아물지 못한다고 하여 깔보고 허무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것이다. 로동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합심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고기제품을 개발할수 없다.

수혁은 이에 대하여 연구사에게 따끔히 말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밖에서 승용차 멎는 소리가 났다. 잠시후 문이 열리더니 주병호처장이 웬 처녀를 데리고 들어왔다.

《지배인동무, 여기 누가 왔나 보오.》

수박색의 긴 외투를 멋지게 차려입고 하르르한 그물수건을 어깨에 걸친 처녀가 하얀 가죽가방의 손잡이를 앞에 모아쥔채 나부시 절을 한다.

수혁은 한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며 처녀의 낯익은 얼굴을 뜯어보았다. 매끈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조약돌모양의 희맑은 얼굴에 흑진주같은 눈이며 앵두빛입술…

《아니, 동무가?》

수혁은 그제야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박수혁과 주병호는 수출용타조가죽상선을 위해 남포항에 나갔다오는 길에 공장제품에 대한 반영을 청취하려고 창광거리의 타조료리전문식당에 들렸었다.

천정이며 벽체가 은근하고도 품위있는 연밤색목각공예장식으로 꾸며진 식당안은 황홀하면서도 정갈한감을 주었다. 출입구의 한쪽벽에서는 타조무리를 형상한 전광판화가 이채로운 정서를 자아내는데 그우에선 서리꽃무리등이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었다.

《식당을 잘 꾸렸구만요. 봉사에서 뭐 제기되는건 없습니까?》주병호가 틀진 어조로 물었다.

성격이 활달하고 봉사일군다운 사교성이 풍부한 책임자가 기다렸던듯이 들이댔다.

《왜 없겠습니까? 인민들의 수요에 비해 고기량이 부족해서 속이 상합니다. 관리국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알만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동무, 타조고기가공공장에 녀성로력이 한명 요구되는데 식당에서 로력지원을 좀 할

수 없겠소?》

《아이, 고기만 많이 보내준다면야… 사실 타조고기가공공장이 있어 우리 식당도 있는게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특별대접을 해드리지요.》

수혁은 부디 사양하였으나 책임자의 성의를 물리치기 힘들었다.

《그럼 공장에서 들여온 꼴바싸료리 한접시만 부탁합시다.》

잠시후 책임자가 료리쟁반을 내다주고 들어갔다.

두사람은 타조고기꼴바싸와 외국산꼴바싸의 맛을 대비해보고나서 소감을 주고받았다.

《확실히 외국산보다 못하거던. 우리 제품에 결함이 있소.》

《왜 그 좋은 타조고기를 가지고 더 훌륭하게 만들지 못하는지 안타깝구만.》

이때 별안간 곁으로 지나가던 접대원이 홱 돌아서며 맵짜게 쏘아붙이는것이였다.

《손님! 그런 말씀 하기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이 동무가…》

깜짝 놀라 올려다보니 조약돌처럼 매끈하게 생긴 얼굴에서 흑진주같은 두눈이 파란 불꽃을 튕기고있었다.

《어쩌면… 타조고기가 외국산보다 어떻다구요? 감히 그런 시비질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생긴 타조고긴데…》

주병호와 박수혁은 그제야 처녀의 격분을 리해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의로운 처녀인가!

처녀에게서 험한 욕을 먹으면서도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왔다.

처녀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면 며칠밤을 분해서 잠 못들

수 있었다.

박수혁은 허 하고 딱한 표정을 짓고있는데 주병호가 대신 설명해주었다.

《접대원동무, 우리가 잘못했소.

사실 이 손님은 이 식당에 타조고기원료와 가공품을 보장해주는 공장 지배인이요. 어떻게 하면 타조고기제품의 질을 세계1등급으로 만들겠는가 하고 밤낮 고심을 하다나니 그런 소리도 하게 된거요.》

《예? 아니…그럼 타조고기가공공장에서 오신분들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수혁이 어줍게 웃으며 대꾸하자 처녀는 당황해서 어쩔줄 몰랐다.

《어마나… 전 그런줄도 모르구… 도덕없이 행동한걸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우린 동무의 마음에 감동됐소. 그리구 동무의 그 소중한 마음까지 합쳐 고기제품을 더 훌륭히 만들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소.》

《지배인동지! 정말…고맙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던 처녀의 눈에 맑은 눈물이 글썽 차올랐다. …

바로 그 처녀였다.

《접대원동무가 어떻게 여길 다 왔소?》

수혁이 신기한 표정을 짓고 묻자 주병호가 대신 말해주었다.

《식당책임자동무가 이 최명금동물 우리 공장에 보내주었소.》

《아니—그러니까…》

수혁은 한순간 반색을 했다. 그러나 미타한 생각이 얼른 뒤따른다.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경망한 처녀가 혹시 아닌지…

《하나 묻기요. 처녀동문 그래 이 공장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소?》

처녀는 대뜸 활기를 띠고 응대했다.

《아이, 미덥지 않은 모양이군요. 위생복에 마스크 끼고 쏘세지 같은거나 만들기야 뭐 못하겠습니까?》

처녀가 제법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수혁은 저으기 실망해서 이마살을 찌프렸다. 당장 돌려보내고싶었다. 하지만 속단할 필요가 없다고 고쳐 생각하고 다시 물었다.

《이름있는 식당에서 숱한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접대를 하던 동무가 불쑥 여기로 오게 된 동기는 뭐요?》

《불쑥이라니요? 지배인동지! 전 큰뜻을 가지고 온겁니다.》

처녀의 고운 눈에는 대뜸 눈물이 글썽 어리였다. 수혁은 못 본척 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큰뜻이라? 그게 어떤건지 말해보라구.》

처녀는 간절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전 아버지장군님을 여러차례 모시고 애국자마을의 고귀한 칭호까지 받아안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댔는지 모릅니다. 신문과 텔레비죤에서 볼 때도 그랬지만 더우기 이번에 아버지장군님은정으로 타조고기가 우리 식당에까지 공급되여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장군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날마다 느끼게 됐습니다. 또 그날 지배인동지와 처장동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타조고기에 바쳐지는 공장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책임자동지가 접대원들을 모아놓구 고기가공공장에서 녀성로력 한명을 요구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 제가 선참으로 나선겁니다. 다른 동무들도 가고싶어했지만 제일 나이어린 제가 아무래도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구…
솔직히 지배인동지! 전 여기서 일을 잘해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옵기 전에는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을 결심입니다!》
수혁은 씻은 조약돌같이 매끈하고 반반한 처녀의 모습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다시 보았다. 척 보기엔 걸멋이나 부리고 둥 뜬것 같지만 마음속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 불타고있는가?
이런 처녀일수록 어루만지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단련시켜야겠다고 수혁은 생각했다.
그의 부름을 받고 온 도살반장은 처녀를 보고 입이 터진 팔자루가 되여 희한해했다.
《아니, 왕재산경음악단무용에서 본 처녀 같은데 어떻게 여길…》
한편 처녀는 《도살반》이라는 말에 기겁을 했다.
《어마나, 전 도살만은… 다른 작업반에 보내주십시오.》
처녀가 울상이 되여 애원하자 반장은 웃으며 달랬다.
《무서워마오, 도살은 기계가 다 하니까.》
그리고는 공주모시듯 처녀를 데리고 으쓱해서 나갔다.
《하하…》
그 모양을 보고 주병호와 박수혁은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주병호는 곧 심중한 기색을 짓고 말했다.
《오늘이 정확히 한주일째되는 날이요. 설계를 내놓소.》

《역시 처장동진 기억력이 좋은 수재요.》

《희떠운 소린 그만하라구. 그래, 어쩔셈인가?》

박수혁이도 정색해서 대답했다.

《이제 최경천동무한테서 소식이 올거네.》

《뭐? 최경천이? 하하…》

주병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수혁은 격분해서 내쏘았다.

《왜 웃어?》

웃음을 그친 병호의 짙은 두눈섭이 거의 맞붙을 정도가 되였다.

《여보, 거 맹랑한 소린 좀 작작 하구려. 성성한 사람도 하기 힘든 설계를 병상에 누운 환자한테 맡기면 어쩐다는거요? 에— 내 당초에 믿진 않았지만…》

수혁은 모욕감을 묵새기며 따지듯 물었다.

《그래, 최동무가 해내면 어쩔셈이요?》

《허허…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소.》

《오래지 않아 그렇게 될거요!》

그러자 주병호의 깜장눈섭이 꿈틀 뜀뛰기를 하였다.

《뭐? 오래지 않아?!》

《처장동무, 내 정식으로 말하는데 설계걱정은 말구 빨리 공장에 물리는 일이나 진척시켜주오.》

《아이는 아직 낳지도 못했는데 아이옷부터 만들라? 기가 막히군.》

주병호는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탄식하듯 머리를 저었다.

16

노을비낀 저녁.

녀성합숙호실에 손풍금소리가 랑랑히 울린다.

하루일을 끝내고 들어온 처녀들이 영혜의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즐거운 이 저녁 다정한 동무들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 행복 몸바쳐 지킬 때 온다면
우리 다시 만날 곳을
…

그러는데 뒤늦게야 목욕주머니를 든 최명금이가 지친 기색으로 들어섰다.

《아이구, 힘들어.》 하며 그는 노래를 따라부를 생각도 못하고 한쪽구석에 쓰러지듯 누워버린다.

영혜는 풍낭을 멈춰세우고 처녀들에게 소리쳤다.

《얘들아, 우리 명금이의 독무를 구경하는게 어때? 몸매가 기막히게 고우니까 춤도 멋들어지게 잘 출거야, 이?》

《야—그게 좋겠어!》

처녀들은 환성을 올리며 누워있는 명금이를 일궈세우느라고 야단법석을 쳤다.

《언제 봐도 명금이 몸매가 정말 기막히던데? 왕재산무용

수가 왔다 울고가겠더라.》

《살결은 또 어떻구? 막 눈이 부시더라니까. 도대체 무슨 복으루 혼자 미모를 독차지했는지?》

《미는 녀자의 첫째가는 재부라는데 정말 시샘나 죽겠어.》

이쯤 띄워놓고는 그 값을 내라고 또 떠들었다.

《자, 어서 일어나! 고운 값 내지 않으면 곰보가 된댔어.》

《우리가 노래를 불러줄테니 한번 춤을 춰봐.》

《왕재산무용같은 현대춤 말이야.》

처녀들이 감질을 일구며 명금의 량팔을 붙잡아 당겼으나 그의 입에서는 아부재기를 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구구— 난 몰라요. 현대춤이구 고대춤이구 팔다리가 말을 들어야 출게 아니나요? 막 물먹은 솜 잦아드는것같은게 잠을 좀 자야겠어요.》

《아니, 이 애가 오늘 고작 하루 작업을 하고 죽는 소릴 하는걸 보니 되질 않겠구나!》

영혜가 짐짓 문제를 세울듯이 손풍금을 내려놓기까지 하자 명금은 억울하다는듯 불쑥 일어나앉더니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솔직히 난 여기 오면서 고기가공공장이라길래 가공품 만드는 일이 기본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살반이라니? 난 도살이란 말만 들어도 막 끔찍해죽겠어요.》

《호호… 도살을 떠나서 고기가공이 어떻게 있을수 있니? 넌 그럼 펄펄 뛰는 생선두 무서워서 끓여먹지 못하겠구나.》

《아니, 그거야… 손바닥만 한 물고기하구 사람보다 더 큰 타조하구 같아요?》

그러자 성격이 활달한 가공반처녀가 퉁명스레 몰아댔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남자들만 득실거리던 홀애비작업반에 들어가 얼싸둥둥 떠받들릴텐데. 나같으면 행복하기만 하겠다 얘.》
《아유! 행복해요?》
명금이 말도 말라는듯 소름끼친 시늉을 하자 분육반의 다른 한 처녀도 이상해서 물었다.
《얘가 정말 괜히 엄살을 떠는게 아니야? 험하고 힘든 일이야 물론 사나이들이 다 도맡아했을거구, 기껏 했대야 털뽑이나 밸세척 같은거나 했겠는데 뭘 그다지나 그래?》
《어마나, 그게 전부면 아무렇지두 않게요?》
《아니, 그럼 녀자가 뭘 또 할게 있어?》
《누군가 슬그머니 알려주는데 우리 도살반에선 끝까지 일할수 있는가 없는가 각오정도를 4차에 걸쳐 시험을 쳐본대요.
타조를 잡아 피를 받고 내장을 들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 등 모든 공정들에서 다 합격이 돼야 정식 입직한다는거예요. 아이, 생각만 해도 머리칼이 곤두서요!》
그러자 처녀들의 웃음폭포가 와르르 쏟아졌다.
《호호호… 그 봉이 김선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니?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호호…》
《예?!》
겁에 질려 눈물까지 글썽했던 명금이는 손으로 눈귀를 훔치며 의아해했다.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니던데. 정직하구 인정두 있어보이구…》
《그러면서도 시침 뻑 따구 사람 놀래우는덴 선수란다.》
《그럼… 정말 도살반에서 그냥 일해두… 일없을가요?》

《일없잖구. 우리들도 모두 체험한 뒤야. 누구나 공장에 들어오면 도살반을 거쳐서 분육반으로, 마감에 가공반으로 가게 되는거란다. 말하자면 고기가공공정을 차례대로 배우는셈이지.》

《어마나… 그랬댔군요.》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던 명금이가 별안간 무슨 냄새를 맡은듯 코를 벌름거리더니 부리나케 제 손과 팔, 옷자락을 들어 연방 코에다 가져다 대보았다. 그러더니 큰일이나 난듯 새된 소리를 쳤다.

《아유— 이건 뭐가? 금방 목욕하구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직두 타조밸냄새가 나네. 손은 다섯번이나 씻었는데두 냄새가 안 빠졌으니 이거야 어디?》

그는 방금전까지 팔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죽는 시늉을 하던 처녀같지 않게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트렁크속에서 넙적한 향수병을 꺼냈다. 마개를 열고 우선 자기 몸에부터 여기저기 뿌리고나서 다른 처녀들에게도 차례로 뿜어주고 방안의 이 구석, 저 구석에도 골고루 뿌렸다. 삽시에 온 방안이 진한 고급향수냄새로 코를 찌를듯 했다.

사람의 인상을 흐리는 불쾌한 요소와는 조금도 타협할수 없다는 명금의 돌발적인 자세는 모든 처녀들을 아연케 했다.

영혜는 속이 불끈해서 맵짜게 쏘아주었다.

《야! 넌 그렇게두 타조피와 배설물냄새가 싫으면 뭘하려 공장에 왔어? 맵시나 부리고 향수냄새나 풍기고싶거든 이제라도 도시의 식당에 가서 접대원노릇이나 계속하려무나!》

그런데 명금은 울기라도 해야 할판에 눈이 동그래서 맞받아 묻는것이였다.

《아니, 대체 뭐가 노엽다는거예요? 처녀가 맵시를 부

리는게 뭐가 이상할게 있어요? 도로 가라, 말라! 내가 뭐 총각들이나 홀리자고 여기 왔는가 하세요?》

영혜는 뜻밖의 반발에 놀라 명금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이윽고 자제하느라 애쓰며 말했다.

《물론 네가 총각 홀리자고 왔다는건 아니야. 하지만 내 말을 똑똑히 명심해 들어. 겉멋에 신경쓰고 톡톡 털고 외국 향수냄새를 풍기고 하는건 우리 공장 사람들의 소박하고 성실한 생활분위기에 맞지 않아. 일을 하려면 몸을 푹 잠그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해. 알겠니?》

이쯤하면 누구나 속은 어떻든 겉으로는 수그러드는체라도 할것이건만…

《잘 접수되지 않아요. 일을 할 땐 하구 맵시를 부릴 땐 부리는거지 무슨 절간의 녀승이라구 향수도 못 치게 하는가요?》

영혜는 기가 막혀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확실히 남다른데가 있는 처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전적인 자세가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솔직하고 투명한 처녀, 겉과 속이 따로 없고 구김살이 없는 깨끗한 처녀. 이런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문제에서는 뒤로 물러서거나 비굴하게 기를 꺾지 않는 의로움이 있는 법이다.

영혜는 아량있게 웃으며 명금을 타일렀다.

《향수를 쳐도 우리 〈봄향기〉 같은걸 치면 더 좋지 않겠니? 솔직히 난 도시에서 여기로 탄원해온 명금이의 기특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티가 없기를 바래서 그러는거야. 얼굴도 마음도 다같이 멋쟁이가 되기를 바래서 말이야, 알겠어?》

그제야 명금은 해맑은 얼굴에 방싯 웃음을 지었다.

《고마워요. 확실히 내가 설었지요?》
《호호… 너도 이제 좀더 있으면 공장냄새가 몸에 푹 배구 그러면 그걸 향수냄새처럼 여기게 될게다.》
이때 출입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리태성비서가 문을 열었다.
《뭘해? 둘러앉아 인물심사들을 하나? 오늘 저녁부터 기술학습 한다는거 잊었어?》
《어마나? 정말!》
처녀들이 깜짝 놀라 일어나며 분주탕을 피웠다. 저마다 사물함들을 열고 학습장과 필기도구들을 꺼내느라 바쁜데 그 속에서도 명금이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머리를 다시 빗느라 눈코뜰새 없다.
《새로 온 연구사가 강의를 한다지?》
《듣자니 그 사람 총각이라더라.》
《총각이면 어떻다는거야? 그쯤 잘난 사람이 시내에 애인이 없을가봐?》
《어쩐지 뻣뻣한게 건방져보인다 했지.》
《중앙연구소의 연구사가 그쯤도 안하겠니?》
처녀들이 한마디씩 입에 올려 연구사를 공기돌 굴리듯 하더니 어느새 와르르 쓸어나갔다.
학습장을 들고 맨 나중에 호실을 나서던 영혜는 문을 열어놓은 분육반탈의실에 남자들의 작업복이 쌓인것을 보자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다. 저녁마다 작업반남자들의 빨래를 맡아해오는것은 그의 굳어진 습관이였다.
(오늘 림연구사가 출연한다는데 차라리 잘됐어. 한번쯤 빠지는것으로 그 건방진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야지.)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그는 휙 돌아서 책을 던져놓고

빨래감을 걸어안았다.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부르며 세면장으로 내려간 그는 연구사가 자기의 얼굴을 찾다가 이마살을 찌프리는 모양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나갔다.

사실 그는 어제 가공반력량이 딸려 거기에 림시 동원되였었는데 세단기에 얼음을 섞어넣고 돌리는 원인과 24시간 고기절임을 하는 의의에 대하여 묻는 림정우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모욕적인 비난을 받았었다.

《공장에 2년동안 있으면서 뭘 하고있었기에 그것도 모르오? 자랑주머니가 크기에 지식주머니도 큰가 했더니 단단히 계몽을 시켜야겠구만.》

영혜는 이때까지 공장을 위하여 기꺼이 연구사의 《옷걸개》도 되여보고 《청소부》도 되여주었지만 이 말에만은 모욕감을 참을수 없었다.

(2년동안 뭘 하고있었는가구?)

그 2년동안 분육기능을 습득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없이 손을 베면서 칼질을 익혀온 나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면서 속이 울끈했다.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데선 다같은 계몽의 대상이예요.

전 분육공이지 가공사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연구사는 한층더 약을 올려주는것이였다.

《그렇게 자기 울타리가 좁으니 발전할수가 없지. 오늘날 인간의 높이는 지식의 높이와 대등하다는걸 알아야 하오.》

《참 리해되지 않는군요. 저의 인격문제가 어떻게 연구사동지의 관심사로 되는가요? 동지의 연구분야가 종업원들의 사생활령역까지 포함하고있는건 아닐텐데요?》

영혜는 분명히 자기가 꿀을 먹였다고 생각하고 그만 돌아섰는데 웬걸…

《난 연구사로서가 아니라 2010년대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충고하는거요.》

영혜는 사정없이 침질당한 자존심을 붙안고 밤새 심장앓이를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자바람에 림정우가 기술학습을 조직했다니 마치도 자기를 겨냥한 의도적인 계몽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충동적인 자존심에 엇서고싶은 심리가 작용하였던것이다.

작업복들을 일일이 다 빨아 건조장에 널고나니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그새 강의가 끝났는지 웃고 떠들며 계단을 구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영혜가 살그머니 빠져 밖으로 나가는데 현관앞에서 공교롭게도 지배인과 마주쳤다.

《날 따라와.》

여느때없이 엄한 목소리에 영혜는 가슴이 졸아들었다. 지배인이 기술학습에 참가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사무실에 올라가 영혜를 앞에 앉힌 박수혁은 첫마디부터 날카롭게 꾸짖었다.

《지배인은 시간이 많아서 기술학습에 참가하는줄 아는가? 실력이 없이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싶어도 잘할수 없기때문이야. 영혜는 그래 손에 익힌 숙련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나? 목장에서 길러주는 타조나 잡아 넘기는게 우리의 사명인가 하는가 말야?》

《…》

《대답을 해보라는데. 장군님께서 이 공장을 세워주신 의도가 뭔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설비를 마련해주신 의도가 뭔가? 세계1등급의 고기제품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란 말야. 그래, 기술을 배우지 않고 이 높은 뜻을 따를수 있어?》

이렇게까지 노하고 가슴아파하는 지배인을 보니 영혜는 더이상 침묵할수가 없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사실 기술배우는 문제를 단순한 실무적문제로만 생각하다보니… 개인감정부터 앞세웠댔습니다.》 하고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수혁은 조용하면서도 뜨끔한 어조로 타일렀다.

《영혜는 군사복무도 하구 남달리 큰 포부를 안고 이 공장에 들어온 처녀인데 누구보다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앞장서야지.

더구나 공장의 처녀들을 옳게 이끌어나가야 할 청년동맹비서로서 말이야.

연구사는 어떻게나 우리 공장 제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아글타글하는데 그걸 리해했으면 됐지 여기에 무슨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인격, 체면을 운운할게 있나? 나같으면 나를 채찍질해주는 연구사에게 도리여 고맙다고 절을 했겠다.》

《지배인동지, 잘못했습니다. 래일부터 잘 참가하겠습니다.》

영혜가 진심으로 다짐하는데 지배인은 머리를 저었다.

《래일부터가 아니야. 이제 당장 보충학습을 해야겠소.》

《예?!》

영혜는 흠칫 놀라 눈길을 들었다.

지배인의 예리한 눈빛이 찌를듯이 날아왔다.

《연구사동무가 지금 회의실에서 기다리고있소.》

영혜는 풀이 죽어 일어났다. 날은 벌써 캄캄해졌는데 벌칙공부를 해야 한다. 학생때도 숙제를 해오지 않아 따로 남아서 공부를 해본적 없는 내가…

허나 이러한 창피감은 연구사에 대한 미안한 감정에 얼른 자리를 내여주고말았다. 자기때문에 방금 한 강의를 고스란히 되풀이해야 하는것이다.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공연한 심술을 부리지 않는건데…

회의실에 들어서던 영혜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림정우가 서있는 연탁옆의 책상우에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 콤퓨터까지 놓여있었던것이다.

좌석이 50개나 되는 회의실에 댕그라니 앉아있는 한명의 수강생을 위하여 림정우는 연탁에 강의안을 펼쳐놓고 서서 콤퓨터와 록화물까지 리용하여 진지하게 계몽사업을 해나갔다.

세계적인 고기가공발전추세를 보여주는 록화편집물시청에 이어 새지식주기가 진행된다.

고기가공에 필요한 설비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매 설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원리에 의해 그런 역할을 하는가?

숙성이란 무엇이며 그 의의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꼴바싸의 생산원리는 무엇인가?

훈연의 효과와 그 조성방법에 대하여…

영혜는 콤퓨터화상처리까지 해가며 설명해주는 연구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긴장하게 새겨들었고 그 요점들을 적어넣느라 부지런히 원주필을 달렸다.

새지식주기가 끝나자 강사는 다시 텔레비죤스위치를 넣었다.

록화테프를 넣은 텔레비죤화면에서는 외국의 어느 한 식료공장에서 사용하고있는 현대적인 고기가공설비들이 비쳐지고 있었다. 그가운데는 최신식훈연증자구이로도 있었다.

《저것이 현재 우리 공장에서 도입하자고 하는 그 훈연설비입니까?》

《그렇소. 그러나 우린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구이로를 개조하려 하고있소.》

록화화면에서는 계속하여 최근에 새로 개발된 훈연액의 리용에 대한 해설과 함께 그 형태와 제조원리가 소개되고있었다.

《보다싶이 지금 세계적인 고기가공기술은 훈연의 보다 효과적인 리용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발전추이를 보이고있소. 때문에 오늘날 타조고기가공의 첨단을 점령하는데서 훈연공정도입은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고리로 되는것이요.》

《현재 연구사선생이 하고있는 제품개발과 설비반장동지가 맡은 훈연공정설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제품개발은 훈연공정완성을 전제로 하는것이고 훈연공정은 제품개발을 위해 필요한것인즉 이 두 요소는 불가분리적인 하나의 개념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지요. 결국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갈 때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리상적인 제품의 완성을 기대할수 있다 이겁니다.》

영혜는 비로소 공장에서 벌리고있는 여러가지 사업의 본질을 알게 되는것 같았고 지배인과 설비반장, 연구사와 가

공반장, 관리국처장과 국장 등 많은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아글타글 뛰고있는가를 깨닫게 되는것 같았다. 배우지 않고서는 일을 잘하고싶어도 할수 없다고 깨우쳐주던 지배인의 목소리가 새삼스레 공명되여왔다.

영혜는 이제부터 제품개발과 훈증로조립을 위한 전투에 주인답게 참가하리라 결심을 다지였다.

강의안을 거두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림정우는 깜짝 놀랐다.

《아니, 벌써 10시가 넘었구만. 밤이 깊었는데 이제 집에 가내겠소?》

《제탓인걸요. 오히려 저때문에 밤늦게까지 두벌강의를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갑시다. 집까지 바래다드리지요.》

영혜는 황황히 만류했다.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뭐 어린앤가요?》

사실 내심 한구석엔 그랬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체면상 거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헌데 영혜가 동의하든말든 연구사는 벌써 밖에 나가 기다리고있었다.

미안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망설이고있는데 림정우는 흔연히 웃으며 말했다.

《사실 동무를 데려다주라는건 지배인동지가 준 과업이요.》

《예? 지배인동지가요?》

영혜는 무어라 말할수 없는 충격에 가슴이 찌르르 울렸다.

《어찌겠소? 나야 현재 이 공장 성원이니 지배인동지가 하라는대로 할수밖에…》

영혜는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마냥 연구사의 뒤를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 거절할만 한 구실이 없었다.

달빛이 차겁게 흐르는 길이였다.

림정우는 걸음을 늦추어 영혜와 나란히 걸으면서 어떻게 공장에 들어오게 되였는가를 물었다.

영혜는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사실 처음 제대돼왔을 땐 가고싶은 곳이 많았어요. 대학도 가고싶었구 선전대에 들어가 손풍금도 마음껏 타고싶었어요. 그러나 어느 곳도 타조목장처럼 마음을 끌어당기지는 못했어요. 무엇때문이였던지… 아버지가 넋을 묻은 곳이여서일가요?

아니, 단지 그래서만이 아니였어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을 위해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일떠세워주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타조목장이 아닌가요?

그 타조가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식료품과 공예품으로 가공되여나오는 고기가공기지, 숱한 외국인들이 찾아와 감탄하는 우리 나라의 자랑!

난 중학시절부터 이 희한한 공장이 일떠서는 모습을 내 고향의 자랑으로 간직하며 자랐어요. 군사복무시절에도 전우들이 저마다 고향자랑을 할 때면 난 우리 타조목장, 타조고기가공공장을 자랑하군 했답니다.》

《그랬댔군요.》

림정우는 나직이 뇌이며 무슨 생각엔가 잠겨 걸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분육공일이 힘들지 않은가고 물었다.

《처음엔 솔직히 힘이 들더군요. 육체적인 힘겨움보다도 기능이 모자라 남들을 따라설수 없는 안타까움이 더 컸

어요. 하지만 일단 손에 익히고나니 세상에 그보다 재미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뼈의 곬을 따라 쭉쭉 칼질을 하느라면 마치 그림을 그린다구 할가, 재단을 한다구 할가, 하여튼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였지요. 그러던 지난 10월 공장을 찾아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글쎄 바로 제가 일하는 분육탁앞에 멈춰서시여 저의 작업모습을 한참이나 보아주시지 않았겠나요?

그때부터 난 힘든줄을 모른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분육을 할 때면 영광의 그 순간처럼 장군님께서 저의 모습을 지켜보시는것만 같아요.》

《동문 정말… 행복한 녀성이요!》

림정우의 격동된 목소리에 영혜는 당황해졌다.

《아이참, 제가 또 멋없이 자랑보따리를 풀어놓은게 아니예요?》

《아니, 아니요! 그런 자랑이라면 밤새도록이라도 듣고싶소.》

《우리 지배인동진 늘 자랑이 자랑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말하군 한답니다. 자랑끝에 쉬쓴다, 자랑하는 사이에 남들은 땀흘리며 달린다, 항상 자기자신에 대해서 자만을 모르고 요구성을 높이라, 이렇게 말이예요!》

그러자 림정우도 문뜩 생각난듯 화제를 돌렸다.

《참, 동무네 지배인동진 이상한 사람이더군요.》

《왜 말이예요?》

《내 보기엔 공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지구 로동자들도 단합이 되여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는데 지배인동진 무엇때문인지 항상 불만을 안구 고심하구 신경쓰는 자세란 말입니다. 며칠 있는 동안 한번도 집에 퇴근하는걸 보지 못하겠더구만요. 밤새도록 사무실에 콤퓨터

를 켜놓구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도 안타까와하구 고달프게 몸을 혹사하는지 모르겠거던요.》

《며칠이 뭡니까? 한달에 한번도 집에 못들어가시는데… 아닌게아니라 지금은 할일 다 하구 편히 지내도 될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림정우는 외4촌형인 주병호가 정력을 바쳐도 구멍수를 똑바로 보고 바칠데다 바쳐야 한다고 못박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것은 지배인이 벌려놓은 설비개조가 과학적인 타산이 없는, 승산없는 일이라는것을 암시해준것이였다. 그렇다면?…

과연 지배인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고 스스로 힘겨운 일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고생을 사서 하는것일가? 림정우는 영혜와 더 오래동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그런데 어느덧 영혜의 집에 다 왔다.

《집이 좀더 멀었으면 좋겠군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저… 오늘 밤 정말 즐거웠습니다.》

영혜는 한참만에야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17

최경천은 점심식사가 끝나자 봄빛이 물드는 숲속의 휴식터를 거닐며 소풍을 하고있었다.

요새는 밥맛도 좋아지고 식사후면 위가 뒤틀리고 쑤시는듯 하던 아픔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얼어붙었던 시내물이 녹아내리고 숲속의 나무들엔 뾰족뾰족 새움이 텄다. 이름모를 아름다운 새들이 아지마다에서 즐거웁게 우짖는다.

자연의 새봄과 함께 자기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것 같은 환희, 인생의 새봄을 맞이하고싶은 갈망이 최경천의 가슴을 그들먹이 채운다. 그것은 곧 공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래서인지 료양소의 휴식터에 펼쳐진 봄의 정경은 련상적으로 공장의 야외휴식터를 그려보게 했다. 느티나무, 단풍나무, 오동나무, 분홍꽃아카시아, 수양버들에 사과나무, 앵두나무까지 우거져 봄이면 아름다운 꽃풍경에 꽃향기를 풍기고 여름이면 무성한 록음이 서늘한 그늘을 지어주는 곳, 가을이면 단풍바다에 열매 주렁지고 겨울이면 서리꽃바다 펼쳐지는 곳, 사시절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움이 넘쳐흐르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애국자촌이다.

최경천이 이런 명상에 잠겨있는데 불현듯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 타조가공공장! 장기나 한판 두지 않을라우?》

한호실에서 생활하는 안주탄광 로동자가 장기판을 안고 지나가고있었다.

경천은 느슨한 미소를 짓고 머리를 저어보였다.

《그럴 시간이 없네.》

호실침대에 엎드려서도 밤낮 종이우에 무엇인가 그리고 지우고 하는것을 보아온 친구는 혀를 찼다.

《원, 쯧쯧… 자넨 료양소에 일하러 왔나, 치료하러 왔나?》

《나한텐 일이 곧 치료라네.》

허나 사실 경천은 오늘 오전중에 도면상의 설계를 마감지

은 상태였다. 그가 시간이 없다고 한것은 설계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을 정돈해보고싶었기때문이다. 설계가 이제 콤퓨터모의시험을 통해 확정되면 그가 할일은 기본적으로 끝나는셈이다. 그때쯤이면 료양기일도 끝나게 된다. 그러나 딱히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판단할수 없었다.

비록 몸은 완쾌되고 설계는 완성된다 해도 그가 범한 과오는 그대로 남아있을것이기때문이다.

타버린 전동기를 앞에 놓고 주병호처장이 절규하던 소리가 귀전에 쟁쟁하다.

《동무같은 사람이 이 신성한 일터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가? 동무는 애국자존의 신성한 이름에 오점을 남겼단 말이요.》

최경천은 주먹으로 아름드리나무줄기를 아프도록 치고는 머리를 떨구었다. 처장의 말이 천백번 옳지 않는가? 오죽하면 공장의 초대지배인이였던 그가 초대설비반장으로 함께 일한 나를 그렇게 모질게 규탄하였으랴. 내가 무슨 렴치로 기신기신 공장에 다시 나간단 말인가? 순간이나마 미련을 품었던 내가 어리석은 놈이지.

지배인도 처음에 나의 사직신청을 듣고 말하지 않았던가? 들어갈 땐 가더라도 그전에 설비개조안을 꼭 실행시켜야 한다고.

그래, 나는 할바를 했으니 물러나야 해. 이 일로써 저지른 잘못을, 공장에 끼친 손실을 다소나마 보상할수만 있다면 그것도 다행일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나니 한결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러면서도 때일찍 인생의 황혼을 맞은것 같은 쓸쓸함과 서글픔을 어찌할수 없었다.

문득 처음 병원들에 찾아다닐 때 박수혁지배인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어떤 결심을 안고온 반장동뭅니까?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든 고향땅을 높은 기술로써 빛내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후반생을 장식하겠다던 그 결심을 반장동문 쉽사리 버릴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엔 료양소에 면회와서 하던 말이 떠오른다.

《믿습니다. 어제도 그랬던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그날에 우리 떳떳이 웃으며 오늘을 추억합시다!》

마음이 격해지고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든다. 박수혁지배인의 인정깊은 얼굴이 떠오른다. 사람들을 끝없이 아끼고 정을 주어 따르게 하는 일군, 큰소리치는 법이 없고 욕을 해도 가슴에 못박히게 하는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는 인간미가 풍부한 일군이다.

공장사람들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 전투력있는 집단으로 만들어온 비결은 바로 지배인의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였다.

이 시각 주병호가 탄 승용차는 료양소를 향해 달려오고있었다.

그가 이번 걸음을 단행하게 된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최경천의 병치료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신을 늦게나마 반성하자는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이때껏 말로만 해오던 결정적대책을 결정적행동에로 옮기자는것이였다.

최경천을 대신할 기술자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당장이라도 데려올수 있다.

문제는 환자인 최경천이 하지 못할 일거리를 잔뜩 붙잡고 있음으로 하여 공장일은 물론 그자신의 병치료에도 지장을 주고있는것이다. 그가 자신을 깨닫고 공장을 위하여 제때에 손을 털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병호는 생각했다.

도대체 지배인이 최경천의 무엇을 보고 미련을 가지는것인지 속시원히 제 눈으로 확인하고싶기도 했다.

료양소에 도착한 그는 최경천을 만나는 순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우선 놀랐다. 꺼멓게 죽어있던 초췌하던 얼굴이 보기 좋게 살폭이 잡혀 길둥근 모양이 되였고 한결 윤택해진 피부에는 혈기가 돌았다.

《료양소물이 좋긴 좋구만. 몸이 퍽 좋아진것 같은데 아픈건 어떻소?》

《념려덕분에 거의다 나았습니다.》

《내야 뭘 념려해준게 있나? 늦어와서 안됐구만.》

주병호는 승용차에 싣고온 보약이며 음식꾸레미들을 량손에 들고 최경천을 따라 그의 호실로 갔다.

《병치료를 착실하게 하는건 아주 좋은 일이요. 애당초 지배인이 환자에게 무슨 일거리를 준것부터가 잘못이였지.》

주병호는 사과를 깎아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경천은 그 말을 어떻게 리해해야 할지 알수 없어 잠시 덤덤해있었다. 그러나 곧 사실대로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장동지, 사실은 지배인동지가 그 과업을 주지 않았더라면 전 영영 병자로 남아있었을겁니다. 육체적고통만이 아니라 영영 과오를 씻지 못한 정신적고통을 안고 말입니다.》

《응? 그건 무슨 소리요?》

최경천은 대답대신 장안에 간수했던 설계도면을 꺼내

놓았다.

의아해서 그것을 받아보던 주병호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다시금 세세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굵은 두눈섭이 맞붙고 눈빛은 날카로와졌다. 꾹 다물렸던 입술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혼자소리가 흘러나왔다.

《으음— 비슷해. … 착상이 기발한걸. …》

다 보고나서도 눈을 꾹 감고 무슨 생각엔가 잠겨있더니 믿어지지 않는듯 또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에야 크게 머리를 끄덕이면서 최경천이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이걸… 최동무가 해냈단 말이요?》

《지배인동지가 도와주어서 했지요.》

순간 둔중한 타격이 병호의 뒤머리를 울렸다.

놀라움과 충격이 그를 한동안 얼어붙게 했다.

《그래, 지배인은 설계가 완성된걸 알고있소?》

《오후에 전화로 알리자던 참입니다.》

《됐소, 전화할것없이 내가 가지구 가겠소.》

주병호는 충격적인 심리를 겨우 누르며 도면을 말아 손에 들었다.

최경천은 뜻밖의 일에 그대로 격해졌다.

《처장동지! 고맙습니다.》

주병호는 눈섭을 찌붓했다.

《고맙긴 누가 고맙다는거요? 내 사실은 동물 믿지 못해 딴 기술자에게 맡기려구 했댔소.

…물론 이제 콤퓨터모의시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좌우간 병상에서 이렇게까지 해내자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소?》

최경천은 자신을 숨김없이 털어보이며 진정으로 기뻐해주

는 처장을 보느라니 눈물이 핑 돌았다.

최경천이와 헤여져 료양소를 떠난 주병호는 차안에서도 줄곧 심각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최경천이 병상에서 이런 일을 해내리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였다. 기적이란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일가? 못 고친다던 병을 고치고 할수 없다던 설계를 완성하고. …

확실히 수혁이한텐 남다른게 있어, 과오를 범한 사람이든 실력이 딸리는 사람이든 무섭게 각성시키고 분발시켜 끝까지 이끌고나가는 그 견인력과 감화력의 바탕은 무엇일가.

어쨌든 이 주병호가 사람을 잘못 본탓에 손바닥에 장을 지지게 됐으나 구이로개조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는데 그까짓게 무슨 대수랴.

병호는 지배인의 권고대로 한시바삐 설비제작을 공장에 물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온 나라 기계공장들을 다 돌아서라도 반드시 구이로본체와 같은 특수합금강으로 훈연설비를 손색없이 만들어야 한다, 바로 거기서 이 주병호의 사업수완과 실력이 발휘되게 될테니까. …

그러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조바심은 문뜩 떠오르는 위구심에 스르시 가라앉고말았다. 내가 왜 이렇게 덤비는가? 아직 초안에 불과한 설계를 가지고 흥분하다니… 콤퓨터모의시험이 어떻게 될지? 거기서 성공한다 해도 실지 시험로를 만들어 동작시켜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아직은 기뻐하기 일러, 심사숙고하자!

주병호는 다시금 랭정하게 자기를 되찾았다.

그런 속내를 알수 없었던 박수혁은 주병호가 설계도면을 내놓자 기뻐하며 라이타를 내밀었다.

《자, 약속대로 손에 장을 지져야지?》

《에끼, 고약한 사람! 내 손이 무슨 지짐판이라구 장을 지진단 말이요? 샤일록 찜쪄먹겠군.》

《하하… 주동무, 내 너무 기뻐서 그러우. 당장 설계를 한통 더 복사해서 제작에 물려야 하지 않겠소?》

《서뿔리 흥분하지 마오. 아직 시험단계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고?》

《종당엔 될게 아니겠소? 내 말은 훈연설비를 어느 공장에서 만들수 있겠는가? 구이로본체와 꼭같은 재료로 만들수 있겠는가, 이런걸 미리미리 정해두는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거요. 그래야 시험에서 성공하는 차례로 지체없이 제작에 들어갈게 아니겠소?》

주병호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생각에 잠겨있다가 한참만에 머리를 끄덕였다. 아직은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박수혁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았던것이다.

18

림정우는 락심한 표정을 짓고 지배인실 의자에 홀로 앉아있었다.

윤재철관리국장이 왔다는 말을 듣고 지배인과 리태성비서가 밖으로 나간 뒤였으나 그는 차마 나설 면목이 없어 움직이지 못했다. 자기를 보내며 얼마나 큰 기대를 표시했던 국장인가.

그런데…

지금 책상우에는 그가 처음으로 시험생산한 고기제품 24가지가 진렬되여있다.

사실 그가 대학박사원에서부터 연구소에 와서까지 창안하고 설계했던 각종 고기제품과 부산물제품을 이제나저제나 현실에 도입할 날을 얼마나 고대해왔던가? 자기의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이 깃든 제품들의 가공조법을 타조고기에 도입하기 위해 여기 와서도 밤낮으로 얼마나 애써왔던가?

밤이면 타조고기가공과 관련한 참고도서들을 탐독하며 그 특성을 파악하려고 애썼고 콤퓨터상에서 자기가 개발한 제품들의 각종 형태와 가공조법을 타조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지표와 규격을 찾아내느라 지배인과 함께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다.

물론 타조고기라는 생소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에서 처음부터 완전한 성과를 기대한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5감측정결과 24가지의 제품들모두가 전반적으로 눈맛이 없고 탄성이 부족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큰 포부를 안고 시작했던 림정우에게 있어서는 여지없는 실패였다.

돼지고기가공에서는 성공한 조법이 어째서 타조고기가공에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것일가? 아직 타조고기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탓일가?

윤재철은 방안에 들어서자 우선 림정우에게 반가움을 표시했다.

《림동무, 내 동무를 보내놓구 일이 바빠 나와보지 못했구만. 그새 큰일을 말아 제끼느라구 힘이 들었지?》

《국장동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무슨 소릴 하오? 일이야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락심해서 되겠소?》
윤재철은 이렇게 힘을 주고나서 진렬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척 보매 타조고기제품의 다양한 종류부터가 탐구의 흔적을 엿보게 했다.
꼴바싸만 해도 일반꼴바싸, 매운맛꼴바싸, 후추향꼴바싸, 마늘향꼴바싸, 남새꼴바싸, 타조간꼴바싸 등 여러가지였고 각 부위별훈제도 8종이나 되였으며 타조뼈단묵, 타조힘살묵 등 묵종류도 있는가 하면 타조밸로 만든 쏘세지와 쌀라미, 햄과 고기쌈, 비게회도 있었다.
《제품들이 아주 특색있고 다종다양해서 좋구만. 지배인동무나 연구사동무가 탐구를 많이 한게 알리오. 제품명을 듣기만 해도 구미가 당기오.》
《그런데 실지 맛은 그렇지 못합니다.》
《맛이야 이제 돋구어야지. 앞으론 훈연공정도 도입되겠다, 현재상태에선 기포를 없애고 탄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오.》
윤국장은 새롭게 개발한 종류들에서 한쪽씩 잘라놓은것들을 여러개 맛보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자기의 견해를 내놓았다.
《내 생각엔 지배인동무나 연구사동무가 빨리 시제품을 만들어보겠다는 조급증이 앞서서 너무 덤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요. 한꺼번에 이 많은걸 다 할라니 아무래도 힘이 들수밖에. 어떻소? 지배인동무 생각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욕망을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허허… 지배인도 그렇게 덤빌 때가 다 있구만. 침착해야 해.

그러나 오늘 실패했다고 락심할건 조금도 없소. 타조고기 가공기술에서는 아직 정확한 지표가 나온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자면 우리 식으로 새로운 기술지표를 잡는것이 중요하오. 그것은 한두번 해서 될 일이 아니니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하오. 중요한것은 매 경우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찾는것이요. 알겠나, 림동무?》

《예.》

《자, 그럼 신심을 가지고 더 잘해보기요.》

윤재철은 박수혁과 림정우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고나서 차에 올랐다.

그가 떠나간 뒤 박수혁과 림정우는 오래동안 마주앉아 실패의 원인을 진지하게 분석해보았다.

총적인 원인을 조급증이라고 인정한 기초우에서 콤퓨터에 기록된 매 공정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았다. 조미료혼합비률계산에서 잘못되였는가? 아니면 각이한 종류에 따르는 구이로의 온도보장이 정확치 않았는가? 그것도 아니면 고기절임단계에서의 시간과 온도에 문제가 있는것일가?

어느 경우나 다 문제로 될수 있는것들이였다.

그런데 콤퓨터화면상의 수자를 가지고는 딱히 판별할수 없었다.

박수혁은 결론적으로 말했다.

《됐소. 좌왕우왕할것없이 이제부터 종류별로 한가지씩 모

의시험을 해보기요. 시간과 온도, 수량과 같은 지표들을 조금씩 변경시켜보면서 여러번씩 반복해보자구. 그러느라면 가장 합리적인 규격지표를 찾을수 있을거요. 그다음에 실지 생산시험을 통해서 확증합시다.》

림정우는 이마를 싸쥔채 한동안 굳어진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부르튼 입술과 꺼진 볼이 박수혁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혁이도 이것이 얼마만한 인내력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사실상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했다.

19

봄절기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날씨는 상당히 맵짰다.

영혜는 몸에 꼭 붙는 미색외투에 하르르한 목수건을 걸치고 아침일찍 공장에 출근했다.

부지런한 명금이가 벌써 복도청소를 시작하고있을뿐 누구도 나온 사람은 없는것 같다.

2층으로 올라가던 영혜는 밥쟁반을 들고 울상이 되여 내려오는 식당근무처녀와 마주쳤다.

《연구사선생이 또 식사를 안한 모양이구나.》

《벌써 몇번째인지 몰라요. 식어서 내려왔다 덥혀올려갔다. …》

《아니, 어째서?》

《콤퓨터에 한번 마주앉으면 굳어진 조각상처럼 움직일줄

모르는군요. 계산이 끝나기 전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그런 땐 입도 귀도 다 눈이 되고마는지…》

《그래?…》

《정말 무서운 정열가예요. 매일 밤 꼬박 불이 켜져있는걸 보면 도무지 잠이라는걸 모르는 사람같애요.》

《아니, 그러다 앓아눕지 않겠니?》

《글쎄 말이예요. 지배인동지가 이런 때일수록 영양보충이 중요하다면서 매끼 고기와 닭알을 빠지지 않게 보장해주긴 하는데… 제때에 식사를 해야 말이지요? 정말 속상해.》

처녀는 호— 한숨을 쉬며 타박타박 계단을 내려갔다.

영혜는 생각깊은 눈길로 연구사의 방문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느닷없이 이름 못할 충동이 가슴에 차올랐다. 숭고한 목적을 위해 침식도 잊고 분투하는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싶은 의협심 아니, 의협심이라기보다 그를 위해 무엇이든 깡그리 바치고싶은 헌신의 갈망이였다.

하지만 어떻게?…

영혜는 이때처럼 대학공부를 못한 자신이 한스러워본적은 없었다. 학력으로 그와 나란히 설수 없고 지식으로 그를 도울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수록 자격지심은 더해갔다. 허나 생활적인 면에서라도 사심없이 그를 돕고싶었다.

이때 연구사의 방문이 열리며 세면수건을 걸친 림정우가 나왔다.

영혜는 당황해서 《저… 아침식사 아니, 밤새 안녕하셨어요?》하고 엎어말이인사를 했다.

림정우는 피곤이 가득 실린 부석부석한 얼굴을 비비며 건

숭 고개를 끄덕여보이고는 세면장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걸음이 휘친거리는것 같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영혜는 련민의 정이 더해지는것을 느끼며 잠시 서있다가 급히 연구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세면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방안청소를 하려는것이였다.

물걸레질을 하느라 책상우를 정돈하던 그는 구석쪽에서 물고뿌와 함께 속이 빈 아스피린봉지를 발견하였다.

(아니, 이게 뭐야? 연구사동무가 앓고있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것 같았다.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일을 하는 연구사가 아닌가, 대책이 있어야 해.

부리나케 방걸레를 치고 침대밑의 빨래감을 걷어안고 일어나는데 림정우가 들어섰다.

《영혜동무가?》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만이 아닌 질책과 나무람이 어려있는듯싶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난 자신이 그 누구의 부담이 되는걸 좋아하지 않소.》

《그래요? 자기 울타리가 좁다고 날 비판할 때 같아선 진짜사나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옹졸하군요.》

《허, 내가 옹졸하다?》

《그럼요. 난 군인출신이예요. 전우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데 버릇됐구 네것내것 따로없이 살아왔어요. 연구사동지는 장군님의 리상을 실현할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와 한전호에서 싸우는 귀중한 전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이방의 청소와 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하는데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거예요.》

영혜의 도도하고 담찬 어조에 림정우는 입만 벙긋하고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두손으로 숱많은 앞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영혜는 때를 놓칠세라 계속했다.

《그리고 동지로서 충고합시다. 왜 자신의 건강에 대해 그리도 무책임하세요?》

《예?》

《연구사동진 자신이 시대앞에 지니고있는 무거운 사명을 다 아는것 같지 못해요. 식사도 제때에 안하고 휴식도 전폐하고 감기에 걸려도 몰래 앓고… 그러다 병이 심해지면…》

《아니, 몰래 앓는다는건 또 무슨 소리요?》

《아니라는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 약봉지가 다 말해주는데두요?》

《아, 그것 말이요?》

림정우는 좀 당황한 표정이 되여 머밋거리더니 할수 없다는듯 실토했다.

《사실 그 약은 감기때문이 아니라 수면억제를 위해 쓴거요.》

《수면…억제?》

영혜는 귀에 선 말이여서 그 뜻을 인차 깨닫지 못했다. 수면제라는 말은 들었어도 수면억제라는 말은 처음 듣는것이다.

《졸음이 오거나 머리가 무거울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맑은 정신을 되찾을수 있소. 그래서…》

《아니, 그렇게 강제적방법으로 잠을 억제하면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어찌겠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제품개발의 열쇠를 찾을

수 없으니…》

《하지만 그건 너무해요. 전 지배인동지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겠어요.》

《필요없는 일이요. 지배인동지는 이미 알고있소.》

영혜는 깜짝 놀랐다.

《예? 그런데도 대책이 없다는거예요?》

림정우는 책상서랍에서 자주빛가루봉지 한개를 꺼내보였다.

《왜 없겠소? 이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뇌부활제요. 지배인동지가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것을 구해온거요.》

영혜는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자, 이젠 서로의 일을 방해하지 맙시다.》

림정우는 콤퓨터가 놓인 책상앞 의자에 삑 돌아앉아 열심히 건반을 눌러대기 시작했다.

영혜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콤퓨터화면에 현시되는 수자와 글자, 영상들의 흐름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연구사가 피곤한듯 몸을 뒤로 젖히더니 두손으로 량쪽눈을 힘껏 문질러댔다. 그리고는 몇번 눈을 감았다떴다해보고 머리를 흔들어보기도 했다.

영혜는 심상치 않은 그 거동을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 가까이로 다가갔다.

《눈이 아파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아니… 눈에 뭔가 들어간것 같기도 하구 앞이 자꾸 흐려지는게 깨끗칠 않구만.》

《콤퓨터화면을 너무 오래 보면 시력이 떨어진다더니… 혹은 수면부족으로 오는 결막염일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눈약을 넣고 오는게 어때요?》

《1분1초가 새로운데 언제 그럴새가 있소? 그런대로 바쁜 고비는 넘기고봐야 할텐데…》

림정우가 안타깝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자 영혜는 부리나케 녀성호실로 가서 구급약함을 뒤지였다. 언젠가 쓰던 눈약이 생각났던것이다.

다행히 액체가 절반쯤 차있는 약병이 눈에 띄였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사에게로 다시 달려갔다.

《자요, 당장은 이 눈약을 넣고 이삼십분만 눈을 감고 있어보세요. 그럼 꼭 나을거예요.》

《그럴가?》

연구사는 하도 안타까왔던지 순순히 약을 받아들었다.

영혜가 군대때 위생지도원을 하던 솜씨대로 연구사의 두 눈을 차례로 뒤집고 약을 한방울씩 떨구어주었다. 그리고는 연구사가 침대에 눕는것을 보고서야 발볌발볌 물러나왔다.

영혜는 그것으로 연구사의 눈문제는 해결된것으로 보았었다. 눈병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에 따라 써야 할 약도 다르다는것을 미처 몰랐던 그는 자신의 경험에 따른 일반적이며 피상적인 진단처방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지 전혀 예상할수 없었다.

한편 림정우는 시간의 촉박감으로 하여 눈상태가 점점 나빠지는것을 방임해둔채 일에만 더욱더 몰두했다. 마늘향꼴바싸의 기술지표계산을 최종단계에서 다그치고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계산을 채 끝맺기 전에 우려했던 일은 닥쳐오고야 말았다. 눈이 몹시 아파나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절망감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고 머리속이 빙글빙글 돌

아갔다.

림정우는 눈을 싸쥐며 침대우에 쓰러졌다.

아, 제발 이것이 한순간의 악몽이였으면…

바로 그때 손기척소리와 함께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벌떡 몸을 일으키며 눈을 떠보았다.

뿌연 형체가 얼른거린다. 안개에 가리운듯 몽롱하다.

《누구요?》

대답이 없다. 이상해서 눈을 비벼보았으나 미지의 형체는 까딱 움직일줄 모른다.

《허상인가?》

정우는 맥없이 자리에 다시 누웠다.

그러자 영혜의 놀란 목소리가 덮치듯 다가들었다.

《연구사동지! 정말 제가 안 보입니까? 네?》

《아, 영혜동무구만.》

영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기의 불찰로 연구사가 이렇게 되였다는 죄의식이 심장을 비틀었다.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제발 조용해주우. 이제 조금만 계산을 더 하면 되겠는데…》

영혜는 핑 고여오르는 눈물을 훔치며 문밖으로 나왔다. 곧장 지배인실로 향했다.

박수혁은 콤퓨터앞에 마주앉아 훈증로설계를 모의실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배인동지!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아니, 왜 그러오?》

《연구사동지가 눈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뭐라구?》

박수혁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부르쥔 주먹이 우르르 떨린다.
급히 연구사의 방으로 달음쳐갔다.
《림동무, 정말 앞이 안 보이오?》
《너무 걱정마십시오. 신신편편하던 눈이 아무렴 실명이야 되겠습니까? 좀 안정하면 나을겁니다.》
《아니, 이러고있을 때가 아니야. 자, 일어나오.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소.》
림정우는 더 버틸래야 지배인의 완력을 당해낼수 없었다. 영혜도 옆에서 부축해주었다.
그들을 태운 승용차는 얼마후 안과병원에 이르렀다.
수혁은 곧장 기술부원장실을 찾아들어갔다.
환자의 눈을 깐깐히 진찰하고난 기술부원장은 간호원을 불러 치료실로 데려가게 했다.
《어떻습니까? 인차 회복될수 있겠지요?》
수혁이 떨리는 소리로 다잡아물었다.
부원장은 투시하는듯 한 눈으로 한동안 상대방을 지켜보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백내장입니다.》
《예?! 백내장?》
수혁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되받아외웠다. 대뜸 난치의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순간 영혜는 자기가 마치도 사형선고를 받은듯 한 절망감에 휩싸여버렸다. 백내장—그것은 곧 소경을 의미하지 않는가, 더는 이 세상을 볼수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아니야, 그럴수 없어! 그래선 안돼!
영혜는 부원장이 오진했을수도 있지 않을가 하는, 제발 그

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했다.

《부원장선생님, 다시한번 진찰해주십시오. 네?》

그러나 이 말은 영혜의 마음속에서만 울렸을뿐이였다.

박수혁지배인이 저력있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부원장선생님, 어떻게 최신기술을 다 동원해서 시력을 회복시켜줄수 없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 동무는 우리 공장을 도와주러 나온 과학자인데 저때문에 이렇게 되였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껏 모든걸 다 하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영혜도 그의 팔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부원장선생님,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데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혹시 각막이식이 필요하다면 저의 각막을 떼여주십시오.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시력이 떨어지면 뭐랍니까? 부탁입니다, 부원장선생님!》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하는 영혜의 두눈엔 어느새 눈물이 함빡 차서 흐르고있었다.

부원장은 그만 젖어드는 눈시울을 슴벅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알겠소. 협의회를 열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영혜는 나오다말고 또다시 들어가 곱씹었다.

《각막이 필요하면 꼭 저를 찾아주십시오. 기다리겠어요.》

《처녀는… 환자와 어떤 사이요?》

뜻밖의 물음에 당황해난 영혜는 그저 연구사를 존경하는 로동자라고 대답하려다가 고쳐 생각했다.

평범한 사이라고 하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것 같지 않아

서였다.

《저… 연구사동진…》자기의 한마디 대답여하에 연구사의 생명이 달려있기라도 한듯 영혜의 심장은 쿵쿵 높뛰였다.

《애인인가?》

영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생각을 뒤로 밀어버렸다.

부원장은 마치도 자기의 친딸을 바라보듯 정에 겨운 눈길로 처녀의 얼굴을 어루쓸어보았다.

《마음놓으라구, 우리 의사들도 자기 할바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는 밖에까지 따라나와 걱정말고 어서 가라고 거듭 안심시켜 등을 떠밀어보냈다.

지배인과 함께 공장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영혜는 자기의 실책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부원장선생이 애인인가 물었을 때 부정하지 못한 사실이 엄청난 의미로 확대되여 압박해오는것이였다. 어마나, 애인이라니? 림정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가? 아연해지겠지, 어처구니없어 웃을지도 몰라. 그러자 부끄러움에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활랑거렸다.

금시라도 되돌아가 부원장에게 사실을 실토하고싶었다. 그러다가 피뜩 정신이 들었다. 내가 이 무슨 새빠진 생각이람? 연구사가 실명되느냐 마느냐 하는 때에 그따위가 무슨 큰 문제라고?…

20

엎친데덮친다고 림정우의 입원으로 제품시험이 중단된 때에 훈증로모의실험도 련속 실패였다.

도면상에서는 완전무결하다고 보았던 훈증로가 콤퓨터의 3차원상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어째선지 훈연발생기안의 회전로는 돌아가는데 구이로의 송풍구로 훈연침투는 되지 않았다.

연기려과기의 밀폐장치구멍들이 너무 작기때문인지? 아니면 구이로안의 흡입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 수십번 다시 조작시행을 해보았으나 진척이 없었다. 불안과 고민에 빠진 박수혁은 입맛을 잃어 식사를 할수 없는데다 불면증으로 쪽잠마저 이루지 못했다. 몸이 쇠약해지고 힘이 나지 않았다.

지배인의 얼굴이 컴컴해있으니 공장의 분위기도 자연히 저조해지는듯 했다.

그런 때 윤국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뭘하고있소?》

《저…》

수혁은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걸 보니 일이 잘 안되는 모양이구만. 그렇다고 지배인이 그렇게 활기를 잃으면 되나? 종업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요.》

《국장동지, 제가 그만…》

수혁은 자책감에 젖어 중얼거렸다.

《래일 점심때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옥류관으로 나오라구. 식사조직은 내가 해놓을테니까.》

뜻밖의 말에 수혁은 깜짝 놀랐다.

《예? 아니, 지금 그럴 경황이… 있습니까?》

《허허… 힘들 때일수록 잘 먹어야지. 옥류관이 현대화되였는데 멋있소. 모두 가보면 정신이 번쩍 들게요. 고기쟁반도 먹어보면 생각되는것들이 있을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동지!》

수혁은 금시에 힘이 뻗쳐오름을 느끼며 결패있게 대답했다.

송수화기를 놓고 뻐스사업소전화번호를 찾는데 손전화기의 신호음악이 울렸다. 오늘따라 그 음악이 별스레 경쾌하게 들린다. 번호를 보니 마침 주병호처장이였다.

수혁은 흥그러운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주동무요? 지금 어디 있소? 대안중기계… 아, 특수합금강으로 훈증로를 만들것을 계약했다? 수고했수다. 큰 문제가 풀렸으니 한시름 놓이오.》

《시름을 놓는다는게 뭐요? 이젠 정확한 설계를 하는것이 중요하단 말이요. 그래, 모의실험은 어떻게 돼가오?》

《진척중에 있소. 처장동무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꼭 성공시키겠소. 그건 그렇구 주동무, 이제 곧 돌아와줄수 없겠나?》

《건 왜?》

《래일 점심에 옥류관집체식사를 조직했네. 담당처장동지가 빠지면 안되지 않나?》

《뭐? 지금같은 때 옥류관구경생각을 다 하구. 한가하

구만. 도대체 무슨 정신들인지 모르겠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댔는데 국장동지가 일부러 조직해주질 않았겠나?》
《국장동지가?!…》
주병호는 놀란듯 더 말을 못했다.
《그럼. 늦어두 래일 오전까진 도착해야 하네.》
수혁이 이렇게 강조하자 주병호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하더니 단호히 대답했다.
《아무래두 난 그럴 시간이 없네. 훈증로제작에 필요한 자재문제가 아직 앞에 있지 않나?》
《그럼 할수 없구만.》
수혁은 어쩐지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11시 30분이 되자 약속대로 대형뻐스 한대가 공장마당에 와멎었다. 종업원들은 오래간만에 집체적으로 시내구경을 나가보는지라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어느새 목욕을 하고나온 남자들이 외출복까지 척 갈아입고 나서니 이게 웬 난데없는 신사들이냐싶다. 여느때없이 머리기름을 찰찰 바르고 색안경까지 낀 유춘삼은 20년은 젊어보인다.
녀성호실에서는 최명금이가 처녀들의 머리단장, 옷단장을 지휘하느라 신바람이 났다.
요 며칠전 그는 휴식날 집에 갔다온 기념이라면서 호실처녀들에게 고급화장품 한개씩을 척척 나누어주어 모두의 눈을 휘둥그래지게 만들었다. 얼굴빛이 약간 철색인 처녀에게는 표백분크림을, 살결이 좀 까칠해보이는 처녀에게는 인삼살결물을, 눈섭이 연한 영혜에게는 눈섭그리개를, 빨깃한 여드름이 눈에 알리지 않게 돋기 시작한 처녀에게는 얼굴세척

제를 안겨주는걸 보니 사전에 매 처녀들에게 필요한 화장품을 연구하기라도 한 모양이다.

모두가 입을 딱 벌리는걸 보고 명금은 생긋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다들 날 보고 미인이라고 성화들인데 난 우리모두가 다 같이 미인이 되자는거예요. 우리 타조공장처녀들이 문화수준에서도 앞장에 서야 할게 아니나요? 얼굴살결도 머리모양도 옷차림과 몸매도 다 1등이 돼서 세상사람들을 홀딱 반하게 하자! 난 이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자기가 미용사업의 책임자라도 된듯이 짬만 있으면 처녀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얼굴미안도 해주군 한다. 조발이면 조발, 파마면 파마 못하는 일이 없었다.

영혜는 허영에 뜬 처녀인줄 알고 비난했던 최명금에게서 아름다움에 대한 높은 리상을 느끼게 되자 그에게 더없는 사랑과 친근감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얼굴보다 앞서 우리의 일터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고 관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깨우쳐주면서 기대관리와 나무심기, 꽃나무가꾸기에도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둘이 쌍둥이처럼 가까와졌으며 작업휴식시간에는 영혜의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명금이가 부르는 노래소리와 춤가락이 로동자들의 흥취를 돋구어주군 한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드디여 타조공장처녀들이 시내 한복판에 나가게 되였으니 진짜 온 시내사람들이 황홀해서 바라볼수 있게 아름다움을 떨쳐야 할 이 기회에 어찌 명금의 책임이 가벼울수 있으랴.

그는 오늘 레스달린 하얀 샤쯔우에 빨간 치마를 날씬하게 차려입었고 탐스러운 머리태에 반짝이는 코스모스빈침을 찔

러 여느때보다도 더 고와보였다.

영혜는 연록색양복에 하얀 바탕의 목수건을 받쳐맸는데 명금은 그 수건색갈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자기에게 있던 엷은 비취색목수건으로 바꾸어주느라고 한참 싱갱이질을 했다.

다른 처녀들은 그런 싱갱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어떤 형태의 옷을 입어야 어울리겠는지를 막냉이처녀에게서 비준받고서야 옷들을 골라입었다.

《야! 처녀들아, 차가 떠나겠다는데 아직도 류행복전시회냐?》

다부진 몸에 얼굴이 보름달같이 환한 회계원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이젠 됐다고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처녀들에게 향수까지 착착 뿜어주고서야 명금이도 날씬한 몸매를 률동적으로 흔들며 따라나갔다.

이쯤 되니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들이 감탄을 터치지 않을수 없었다.

《히야— 취한다!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왔나?》

《이거 오늘 시내 나갔다가 거기 총각들한테 홀딱 떼울게 아니야?》

《누구누구 해야 그저 우리 도살반처녀들이 제일이구만. 내가 장가를 빨리 가지만 않았어두 한번 어째보는건데…》

도살반장이 언제나처럼 능글거리는 말에 좌상령감 김상도가 《어험.》 하고 끼여들었다.

《이 앤 내 며느리감으로 이미 확정이 됐은즉 누구도 우리 명금이한테 눈독들일 생각 말게. 우리 아들이 가만 안 있어!》

《여여, 반장이구 좌상이구 다 비켜서라. 여기 당당한 도살반총각이 있는데 무슨 딴소리들이여?》

엄엄한 훈시와 함께 《봉이 김선달》이 가리키는 도살반총각이란 20살난 막냉이총각이다. 녀자처럼 날씬한 몸에 얼굴도 해말쑥하고 목소리마저 녀자처럼 쨍쨍한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뒤머리를 긁는다.

《챠— 나한텐 누이벌 되는데…》

《누이면 어드래? 한두살 우인 녀자와 살면 더 재미나고 사랑두 더 받는다더라. 나처럼 색시한테 매두 안 맞구 먹을것도 많이 주구.》

《와하하.》폭소가 터져오르는데 《김선달》은 입을 꾹 다문채 덤덤해있다. 정말 색시의 박대를 받는 《수난자》의 표정이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던 박수혁이도 일시에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황홀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옷차림에 밝고 기쁨에 넘친 얼굴들이다.

그런데… 박수혁의 눈빛은 불시에 어두워졌다. 화려하게 단장한 처녀들속에서 유독 그늘이 비낀듯 한 영혜의 쓸쓸한 인상을 발견하였던것이다. 그도 남들과 같이 차리고 웃기도 하였으나 분명 이 마당에서 보아야 할 사람을 보지 못하는 허전함이 어글어글한 눈에 그대로 비껴있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그 생각에 수혁이도 흉뜬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듯싶었다.

연구사의 수술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지…

수혁은 애써 불안을 지워버리며 다들 뻐스에 오르자고 소리쳤다.

옥류관에 도착한 공장종업원일행은 웅장화려하게 변모된 건물의 내부를 둘러보며 야! 야! 감탄사를 련발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된 이후로는 처음 들어와보

는것이다.

특히 중앙홀에 들어서면서 량쪽의 긴 어항속에 희귀하게 생긴 철갑상어들이 욱실거리는것을 보고는 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것이 관상용이 아니라 료리용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더더욱 깜짝 놀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천만가지 복을 다 안겨주시려고 세상에 좋다는 희귀한 고기, 물고기까지 안겨주신다는 안내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 감동을 금치 못했다.

거쿨진 손으로 유리결면을 쓸어보는 유춘삼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이윽고 2층의 본관에 들어선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황홀경에 그만 눈들이 둥그래졌다. 연회장을 방불케 하는 대형풍경벽화들과 현란한 무리등, 네 면이 거울로 된 기둥벽들, 보석빛이 반짝이는 바닥, 눈부시게 하얀 보를 씌운 커다란 원형식탁들마다에 활짝 웃는 꽃송이들과 이채로운 번호판들, 눈뿌리 아득한 드넓은 방안의 식탁들마다에는 벌써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고기쟁반들과 국수그릇들이 정성스레 차려져있었다. 그 넓은 쟁반에 닭고기와 돼지고기, 닭알까지 빼곡 채워져있는것도 놀라왔지만 수정같이 맑은 유리고뿌에 향기로운 술까지 찰랑찰랑 채워져있는것을 보니 더더욱 목이 메고 눈굽이 쩌릿해왔다. 우리가 치른 국수값에 비하면 너무도 비싼 원가가 들었을 고기쟁반을 앞에 놓고보니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높이가 다시금 뜨겁게 헤아려졌다.

박수혁은 비싼 원가를 들인 타조고기를 인민봉사에 넘길데 대한 지시를 받던 첫 순간 그 엄청난 가격공간에 대해 일시나마 우려했던 자신이 돌이켜져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흔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대포를 쏘아 참새를 잡는다는 말도 생겼지만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시며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어하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 위대한 사랑에 고무되여 우리 인민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으니 그렇게 높아지는 생산능률이 바로 자본주의경제학설로써는 설명할수 없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장군님의 사랑을 전하는 안내원의 해설이 끝나자 요란한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수혁에겐 그것이 백배천배 보답을 맹세하는 충정의 웨침소리로 들려왔다.

이어 축배잔들을 들었다. 진짜국가연회에 참가한 기분이여서 자못 숭엄해지기까지 했다.

《무엇을 위해서 들가?》

분육반장이 곁에 앉은 영혜에게 묻자 무슨 생각엔가 옴해있던 처녀가 당황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동문서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수혁의 가슴은 또다시 저려들었다.

《자, 우리 영혜동무의 행복을 위해서!》

쨍그랑 잔 부딪치는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겨끔내기로 좌우에 앉은 사람들끼리 축배사를 주고받으며 잔을 맞쪼았다.

박수혁이도 웃음을 머금고 곁에 앉은 가공반장을 돌아보았다.

《반장동무, 우리도 이 축배잔에 뜻깊은 축사를 담아야지요.》

《전 그저…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가 하는…그 생각뿐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답할 길은 하루빨리 타조고기 가공품의 질을 장군님 바라시는 높이에 올려세우는것입니다.
자, 그날을 위해서!》
두사람은 더 다른 말은 찾지 못한채 술잔을 마주쳤다.
옆식탁에 둘러앉은 종업원들속에서도 흥겨운 축배사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눈부신 섬광이 번쩍 빛났다.
리태성비서가 때를 놓치지 않고 사진기의 샤타를 누른것이였다. 뜻깊고 즐거운 이 시각을 영원할 력사적순간으로 정지시켜준 고마움으로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다.
식탁을 맡은 어여쁜 접대원들이 주전자를 들고다니며 일일이 국수물을 부어주었다.
모두 입들에 웃음을 담고 국수를 저어 저가락에 떠올리기 시작했다.
박수혁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영혜쪽으로 향했다.
처녀는 마치도 국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국수그릇을 앞에 놓고 난감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가락을 쥔채 내려다보기만 하고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영혜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를수 없는 수혁이였다. 연구사생각이 나서 목이 메일것이다. 자기가 못 먹고라도 가져다주고싶은 아니, 자기가 먹는것보다도 연구사가 먹는것을 보는것이 더 기쁠 그런 심정이리라.
수혁은 슬그머니 일어나 영혜곁으로 다가갔다.
《왜? 영혜는 국수를 눈으로 먹나? 그러다 남에게 떼워!》
영혜는 깜짝 놀라 황급히 변명했다.
《아이, 저야 뭐. 더 하겠단 사람 있으면… 양보하겠습니다.》

《무슨 소릴? 이 옥류관에 들어오면 국수를 좋아하구 나빠하구 관계없어. 누구나 제 몫을 건사해야 한다구. 아무리 배집이 커두 제 몫이면 충분하니까 양보도 필요없어.》

영혜는 저가락을 국수그릇에 박았다.

수혁은 허리를 굽혀 나직이 속삭였다.

《내 접대원에게 말해놓겠으니 나갈 때 두그릇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라구.》

영혜의 놀란 얼굴이 흠칫 들리였다. 크고 검은 눈망울이 고마움에 젖어 파르르 떨었다.

사람들은 고기속의 국수를 먹느라 여념이 없었다. …

국수를 다 먹고 밖에 나왔을 때 박수혁은 모두거리로 물었다.

《국수맛이 어떻소?》

그러자 저마다 흐뭇해서 싱글대며 대답한다.

《히야—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정말 이루 다 말 못하겠습니다.》

《그거야 저 〈봉이 김선달〉의 홀쭉하던 배가 불쑥 나온것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하…》

《아, 그래서 세상사람들이 조선사람으로 태여나 옥류관고기쟁반국수 한번 먹어보는것이 소원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정말 옥류관국수 먹으러 비행기타고 오는 외국인들도 있답니다.》

박수혁은 떠들던 소리가 잦아들자 정색해서 말했다.

《동무들!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제품들이 바로 옥류관국수처럼 세상에 다시 없을 천하제일의 수준으로 만들어질것을 바라고계십니다.

우린 장군님께서 그처럼 훌륭한 타조목장을 세워주시고 타조고기가공공장에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돌려주신 그 의도를 다시금 자각하고 인민에게 안겨질 타조고기가공품을 더 훌륭하게 완성해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신심과 결의에 넘친 종업원들속에는 남달리 자책이 큰 가공반장 유춘삼이도 있었다.

21

밤이 깊었으나 리수연의 집 창문의 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엄마! 오늘은 아빠가 꼭 들어오나?》

은경이는 벌써 몇번째 다짐받듯 곱씹어 묻는다.

《그럼, 들어오지 않구?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기다리지 않니?》

수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만두를 빚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그는 남편이 오늘 밤늦게라도 꼭 집에 들어오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다. 래일은 사랑하는 딸 은경이의 생일날인것이다.

해마다 달력을 사오면 먼저 집식구들의 생일부터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넣군 하던 남편이였다. 물론 자신과 안해의 생일은 종종 잊을 때가 많아도 어머니와 은경이의 생일만은 꼭 잊지 않고 무슨 기념품이든 마련해가지고 들어오군 했다.

《엄마, 나 아빠 들어오면 콤퓨터로 영어공부하는거 보여드릴래.》

《야! 그럼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러나 딸애의 머루알같은 눈망울이 엷은 까풀속에 아주 잠겨 꼬꾸라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만두를 다 빚고 손까지 씻고난 시어머니는 혼자소리처럼 《아애비가 오늘 어디 출장을 갔는 모양이다.》 하더니 손녀를 안고 자기 방으로 건너가버렸다. 며느리의 옹색함을 덜어주자고 자리를 피했건만 어머니라고 어찌 편한 잠을 들수 있으랴.
수연은 정말 어머니의 짐작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전화기로 남편의 손전화기번호를 찾았다.
한참만에야 신호가 걸렸다.
《은경이 아버지예요?》
《오, 당신이구만. 이 밤중에… 아, 래일이 은경이 생일이지. 뭐 좀 준비는 해두었댔는지, 잘해주어야겠는데…》
딸의 생일을 잊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수연에게서는 서운한감이 가셔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소?》
남편의 물음은 수연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렸다.
얼른 대답이 없으니 걱정이 되는지 또 물었다.
수연은 말이 나가지 않았으나 무슨 말이든 해야만 했다.
그의 입에선 왕청같은 소리가 흘러나갔다.
《당신이 부탁했던 기술원서를 다 번역해놨기에…》
《알겠소. 내 인차 사람을 보내지, 다른게 없다면…》
《가만,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왜? 공장사무실이요.》
《뭐라구요? 그럼 어디 출장을 나가신게 아니구요?》
《출장이 다 뭐요? 당장 목에 걸린 훈연증자로 모의설

계를 하고있는중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가져온 외국기술도서를 번역하는 과정에 훈연증자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리해할수 있었던 그였다.
《모의시험이 언제쯤이면 끝날것 같은가요?》
《아무래도 혼자 하자니 힘들구만. 직접 설계한 사람과 함께 해봐야 하는건데…
참, 당신 아직 모르고있겠구만. 최경천반장이 지금 병치료하러 평남온천료양소에 가있소.》
《아니, 최경천동지가요?》
수연은 깜짝 놀라 숨가삐 물었다.
《그가 무슨 병으로 앓는가요?》
《위탈이 좀 심해져서…》
《당신두 참,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세요? 누구보다 제가 먼저 알았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미처 생각을 못했소. 지금 훈연장치를 설계하느라 죽을짬도 없이 바쁘오. 최경천반장이 료양소에서 설계를 완성했는데 그걸 콤퓨터상에서 모의동작을 시켜봐야 시급히 결함을 찾고 대책할수 있거던.
료양소엔 콤퓨터가 없는거구, 그래 내가 여기서 시험해보느라구 하는데 생각대로 돼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수연은 제가 더 안타까이 물었다.
《글쎄 말이요. 최경천반장이 곁에 있어서 함께 시험을 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가 료양소에서 나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수도 없는거구.
그렇잖아도 그 사람이 지금 이 시험결과를 눈빠지게 기다

리고있겠는데 말이요.》

수연은 남편의 말이 점점 자기의 목을 조여드는것 같이 느껴졌다.

《생각같아선 이 콤퓨터라도 져다주고싶지만 공장경영활동에 쓰는것이니… 이번에 생산체계를 정보화하면서 콤퓨터 몇대 있던걸 다 망련결을 시켜놓다보니 여유가 없구만.》

남편은 말을 끊었으나 이 순간 수연은 남편이 무슨 말인가 더 할듯 하다가 그만두었음을 감촉했다. 분명 자기에게 그 어떤 간절하고 요긴한 부탁을 하려던것이라고 생각되였다.

그때문에 수연은 남편에게 자기가 인차 면회를 가보겠노라는 어정쩡한 말로 전화를 끊었다.

침대에 홀로 누운 그는 착잡한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남편이 하던 이야기가 새록새록 자꾸만 떠오르는가 하면 앓아누워있다는 최경천에게로 생각이 달리기도 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면회를 가야겠어.

헌데 그한테 지금 제일 필요되는게 콤퓨터라지? 공장엔 여유분이 한대도 없다니까. …

가지고다니기 편리하자면 휴대용콤퓨터가 제일 좋은데…

은경이 아버진 지금 그걸 사서라도 가져다주고싶을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그 얘길 했을가?)

수연은 더 이어지려는 생각을 애써 뒤집어버리며 끙 돌아누웠다.

그러나 생각의 넝쿨은 지꿎게도 휘감기며 달라붙었다.

(나한테 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다는거야?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부부일심동

체란 말은 왜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불현듯 흘러간 처녀시절의 추억이 밀물쳐온다.

침묵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힘겨움도 괴로움도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이겨내던 잊을수 없는 나날… 그러한 나날이 있었기에 마침내 애인의 품에 안겼을 때 그리도 크나큰 기쁨을 맛볼수 있었던게 아닌가.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사진첩을 찾았다. 《행복》이라는 표제를 단 뚜껑을 펼치니 맨 앞장에 약혼사진이 붙어있고 그밑에 《행복의 기슭에서 사랑의 닻을 올리며》라는 시적인 문구가 새겨져있다. 그것은 사진첩을 보면서 언제인가 주병호가 적어넣은것이다. 그들의 인연을 맺어준 자기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암시도 포함된 글이였다.

그렇다, 행복의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기쁨과 슬픔의 곡절을 어찌 세월이 간다고 잊을수 있으랴.

수연이가 박수혁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대학졸업반때였다.

한아빠트에 살면서 한학급에 다니던 리수연과 주병호는 그날 저녁 인민대학습당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우연히 같은 열람실에서 나오는 주병호의 중학동창생을 만나게 되였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한지 2년째라는 동창생의 말에 주병호는 몹시 반가와하며 그를 가까운 식당으로 이끌었다. 10년만에 만난 중학친우인데 어떻게 그냥 헤여지겠느냐는것이였다.

하여 자리를 같이하게 되였다. 주로 주병호가 이야기하고

박수혁은 들으며 이따금 머리를 끄덕이기만 할뿐 한번도 수연이쪽으로는 시선을 주는 법이 없었다. 지금껏 뭇사나이들의 황홀해하는 시선들에 습관되여온 수연에게는 일부러 사람을 무시하는듯 한 그 행동이 별스럽게 느껴졌다.

이튿날은 마침 5.1절이여서 함께 모란봉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하고 헤여졌다.

주병호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수연은 동창생이 중학교때도 저렇게 말이 없었는가고 물었다.

《아마 중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녀동무들과 별로 상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 박수혁이 하나일거요.》

《그렇게 철저한 반녀투사인가요?》

《아니, 무슨 반감때문은 아니고 꼭 필요한 일외에는 곁눈질을 모르는 사람이였으니까. 생활반경이 넓지 못한 대신 탐구의 심도가 깊었소. 그래서 교원들은 그를 과학자감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비슷이 맞는것 같애. 지금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한다니까 앞으로 크게 성공할거야.》

수연은 주병호의 말을 들으니 얄미울 정도로 차겁다고 느꼈던 박수혁에 대해 은근히 호기심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튿날 그는 품들여 준비한 음식을 꾸려들고 주병호와 함께 모란봉으로 떠났다.

약속대로 청년공원입구에 박수혁이 나타났는데 그가 들고온것은 가스곤로와 생고기 몇키로였다.

수연은 무척 놀랐다. 공부밖에 모르는 샌님인가 했더니 사내도 보통사내가 아닌듯싶었다.

불고기판을 펼쳐놓은 좌석에서 주병호가 능란하게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다가 슬그머니 리수연을 소개하는데로 넘

어갔다.

《수혁이, 이 처녀가 누군지 아나? 똑똑히 보라구!》

수혁은 웬일이냐는듯 처녀에게로 얼핏 눈길을 돌렸다.

《알고보니 친척이라구 자네네가 우리 아빠트에 살다 이사간 다음 바로 그 자리로 이사온 집 딸이란 말이요. 세상엔 별난 인연도 다 있지? 허허…》

수혁의 놀란 눈빛이 수연에게로 날아왔다.

수연이로서도 몰랐던 사실인지라 몹시 당황했다.

주병호는 재미있다는듯 호탕하게 웃었다. 때를 맞춰 말하려고 어제부터 말하고싶은걸 참아왔던 모양이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수연동무로 말하면 녀성으로서의 매력이야 뭐 더 말해볼게 없는거고, 기본은 대학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재급이라는거요. 영어, 로어는 물론 프랑스어, 도이칠란드어, 중어, 일어까지 6개 나라말을 정통한 쉽지 않은 수재요.

아마 자네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과학을 탐구하자면 외국어를 전공한 방조자가 절실히 필요할건 뻔한데… 터놓고말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세련된 지성인처녀를 일생의 방조자로 만난다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뭐?》

《자넨 무슨 소릴 하나? 난 아직 일생문제를 론할 처지가 못되는 사람이네. 발등에 떨어진 공부도 하기 힘들다는데…》

《아, 그래서 방조자가 필요한게 아닌가? 일생문제는 먼 후날로 밀어놓더라도 지금은 우선 배우라는거야.》

《하긴 뭐, 배우는데서야 체면 가릴게 없지요.

수연동무, 제 지금 외국어실력이 딸려서 애를 좀 먹는 중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물쭈물함이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대는 말에 수연은

미소를 머금고 머리를 약간 끄덕여보였다.

일단 필요한 교제라고 생각해서였던지 박수혁은 초면과 달리 놀랄만 한 친절성을 발휘하였다. 익은 불고기를 열심히 수연이쪽으로 밀어놓는가 하면 그가 시원스레 먹지 못하는걸 보고는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라면서 가까이에 있는 매대에로 달려가 빵과 과자를 사오기도 했다.

주병호는 진정으로 놀라와했다.

《허, 이건 정녕 뽕밭이 바다로 되였다는 말처럼 기이한 일인걸? 그렇게 랭철하던 반녀투사가 금시 열렬한 녀성애호가로 둔갑하다니. 이래서 연분이 있다고 하는가? 하하…》

《누구나 표현방식이 다를뿐이지 녀성에 대한 존중의식은 다 같을거라고 보네. 어느 책에선가 보니 녀성이란 말을 신성한 이름이라고 했더구만. 어쨌든 녀성을 무시하고 하대하는건 무지의 표현일뿐아니라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행위나 같지.》

그 말은 수연의 호감을 한층 더해주었다.

점심식사를 마치자 주병호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아야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오후 한나절이라는 시간을 두사람의것으로 제공하고싶은 의협심의 충동이였는지도 모른다.

그 덕분으로 두사람은 봄의 절정을 이룬 모란봉에서 불타는 저녁노을을 맞이하도록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색창연한 을밀대로부터 부벽루를 거쳐 진달래와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룬 을송정에 이르기까지 굽이굽이 온갖 꽃 만발하고 향기그윽한 숲속길을 걷고 또 걸으며 그 절경, 그 향기에 심취되여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평양에서 태여나 스무

해나마 살아오면서도 모란봉의 경치가 그렇게 아름다운줄을 처음 알게 된것 같았다.

그날의 향기로운 꽃풍경, 불타는 저녁노을은 그대로 수연의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리상이였고 칠색무지개꿈이였다.

그후 그들은 과외시간이나 일요일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우정과 리해를 두터이 했다. 외국어록음강의실이나 외국문열람실에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 정열적으로 자기 공부에 빠져있다가 사서의 재촉을 받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란히 걸을 때나 식당에 마주앉아서도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회화공부를 계속했다. 그 과정에 수연은 명석한 두뇌와 진지한 탐구정신을 지니고 일단 목표를 정한 다음엔 곁눈질 모르고 완강히 돌진하는 박수혁의 기질을 더 깊이 공경하게 되였다.

그런데 수연이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배치된 이후 박수혁의 운명에 뜻하지 않았던 곡절이 닥쳐왔던것이다.

…

화력발전소의 합숙정문에서 하루밤을 새우고 그를 보았을 때 수연은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수 있는가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푹 꺼진 볼, 후렁한 작업복차림, 눌러쓴 모자에 가리워 그늘진 눈빛…

그러나 결코 달라진 처지와 외형때문에 놀란것이 아니였다.

녀성을 무시하고 하대하는건 곧 자기자신에게 침을 밷는 행위라고 곧잘 외웠던 그가 자기때문에 한밤을 꼬박 새운 한 처녀를 너무도 랭혹하게 무시해버린것이다.

《난 동무가 찾는 박수혁이 아니요!》

얼음쪽같은 이 한마디 말로써 인간의 우정과 의리를 지키려는 순결한 마음을 너무도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버렸다.

그 랭혹함에 수연은 치를 떨었다.

단념하자고 돌아서니 급기야 가슴이 무너지는 절통함을 이길수 없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이 박수혁을 너무도 깊이 사랑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잊을래야 잊을수 없음을 알았다.

허나 어이하랴! 박수혁은 이미 정도 없고 열도 없는 랭혈인으로 되여버렸다. 그자신이 선언했듯이 박수혁이란 이름만을 가진 전혀 딴 사람이였다. 수연을 그렇게도 매혹시켰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리지적이고 사나이다운 인간 박수혁은 이제 더는 없었다. 아름다운 추억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아, 그때의 슬픔, 가슴저미던 아픔, 심장이 쪼각쪼각 찢겨나가던 그 모진 고통…

미칠것만 같던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이 과연 누구였던가?

어머니는 불은 불로 끄랬다고 사랑병은 사랑으로 고쳐야 한다면서 서둘러 혼처를 골라 짝을 무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수연의 가슴속엔 다른 남자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

전망이 없는 로동자, 불미스러운 경력…

그래도 좋았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한번 정을 맺은 사람을 배반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본인이 받아주지 않으니 정을 주고싶어도 줄수가 없었다. 주어야 할 정을 주지 못하고 안고있으면 그 정으로 가슴이 썩는 법이다.

수연은 구원의 손길을 찾아 무역국에 배치된 주병호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주병호는 갓 결혼한 안해와 함께 3년간 재외출장중이였다.

수연은 생각다못해 자기의 심정을 장문의 편지에 담아 발전소정문에 부탁했다.

그런데 얼마후 얼굴이 기름하고 순박해보이는 청년이 봉인도 떼지 않은 편지를 그대로 들고나왔다.

《박동무가 자기한테 온게 아니라면서 도로 내다주라는구만.》

수연은 그만 얼굴을 싸쥐며 흑 울음을 터치였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돌아서 강뚝길로 달려갔다. 호젓한 잔디밭에 엎드려 실컷 울고났는데 언제 따라왔는지 그때까지 뒤에 지켜서있던 청년이 동정어린 소리로 물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도울 일이 없겠소?》

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였던가?!

그가 바로 최경천이였다.

그가 있었기에 기약없는 기다림과 동요와 고뇌의 몇해가 결혼이라는 행복한 결실에로 이어질수 있었다.

박수혁의 아버지가 회복되여 다시 자기 사업에로 돌아왔을 때도 수혁은 여전히 용접공이였다.

그는 마치도 로동자생활을 떠나선 살수 없는것처럼 억센 팔에 쥐여진 용접봉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업소청년동맹비서로 사업하면서도 낮에 밤을 이어 현대화를 위한 전투장에 용접의 불꽃을 날렸다. 그무렵 최경천을 통해 수연이 나이 서른이 다되도록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수혁은 깜짝 놀라 그날로 약혼준비를 해가지고 최경천과 함께 찾아왔던것이다.

결혼후에도 수혁은 자기와 아버지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을 위해 있는 힘과 땀을 깡그리 쏟아바치고싶은 열망으로 더 힘껏 일하다가 당조직의 추천으로 인민경제대학으로 갔던것이다.

수연은 기쁨과 아픔이 응결된 추억의 눈물을 훔치며 사진첩의 다음장을 번지였다.

결혼식사진이다.

수연의 눈길은 신랑의 둘러리를 선 최경천의 얼굴에 오래도록 못박혀있었다.

생각하면 자기의 한생에 잊을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날의 은인이 지금 병을 만나 고통을 겪고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설비개조를 위해 애쓰고있다. 무엇때문에? 자기 한몸보다 더 귀중한 공장을 위해서, 그것이 곧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에…

그런데 나는 그를 도와야 할 이 시각에 무엇을 생각하고있단 말인가? 그 귀중한 사람을 위해 아낄것이 무엇이고 주저할 일은 또 무엇이란 말이냐?

순간이나마 인간의 도의를 잊을번 했던 자신을 타매하며 수연은 결연히 일어났다.

남편에게 보내려고 준비했던 보약과 은경이가 애용하던 휴대용콤퓨터를 려행가방안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은경아, 섭섭해하지 마. 이건 아빠한테 보내구 이다음 더 멋진 콤퓨터를 사줄게.)

자리에 누워 날밝기를 기다리는 그는 다음날이 딸애의 생일이라는 생각을 감감 잊고있었다.

22

지금 영혜는 두눈을 붕대로 싸매고 누워있는 림정우에게 신문에 실린 정론을 읽어주고있었다.

《사회주의문명의 첨단에 올라선 향산호텔!… 향산호텔의 새 모습은 고난과 시련속에서 남달리 고생을 많이 겪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리상이 어떤 높이에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되고있는가를 증명하는 생동한 화폭이다.

문명—승리의 마지막봉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절정우에 이 두글자가 빛난다.》

맑고 기백있는 처녀의 목소리를 듣는 림정우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과 흥분으로 높뛰였다.

적들이 아무리 날치여도 조국은 장군님 가리키시는 리상의 언덕을 향해 줄기차게 내닫고있구나!

림정우는 시력을 잃고 쓰러진 자기에게 힘을 주고 시대의 숨결을 안겨주는 처녀의 진정이 정말 고마왔다.

수술을 앞두었을 때 기술부원장이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젊은인 정말 남아로서 행복한 사람이요. 자기를 위해 심장을 바칠 애인이 있다는건 정말 쉽지 않은 행복이지.》

애인이라니?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놀라는 그에게 부원장은 또 뭐라고 말했던가.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애인을 위해 제 눈의 각

막까지 떼내달라고 애원하는 처녀가 어디 쉽겠나?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안과분야첨단기술인 인공각막이식수술을 결심하게 된것도 처녀의 희생성에 감심한 결과라고 할수 있네.》

온밤 잠들지 못하고 처녀를 생각했었다. 정말 영혜라는 처녀가 나를 사랑하는걸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슴없이 자기 몸의 한 부분을 바치려 했겠는가?

하다면 영혜는 나의 무엇을 보고 사랑하게 되였을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림정우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그럴수 없다, 우리들사이엔 아직 그 어떤 감정의 표시도 언약도 없지 않았던가? 더구나 영혜가 나를 사랑할수 없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는 사람이다. 대학시절 스승이 자기 조카인 처녀를 소개했을 때 정우는 이미 사진을 통해 영혜의 얼굴을 보았었다.

스승의 권고여서 물리치지 못하고 한번 만나볼 용단까지 내렸댔지만 처녀는 약속된 시간 삼촌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처녀의 거절을 당하고나니 손상당한 자존심은 상처로 남아 그의 마음을 때없이 괴롭혔다. 거절한 리유인즉 자기는 뭐 타조목장을 떠나선 살수 없다는것이다.

헌데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타조고기가공공장에, 바로 그 처녀가 일하는 곳에 연구사업차로 나가게 되였으니 인연이란 참 얼마나 공교로운것인가!

자기를 거절한 처녀가 과연 어떤 처녀일가 하는 야릇한 호기심을 가지고 떠났는데 정말 묘하게도 첫걸음부터 그와 부딪치게 될줄이야.… 평범하면서도 평범치 않은 처녀의 모습이 그의 리성을 거역하고 자꾸만 비껴들었다. 녀성으로서의 부드러움과 제대군인다운 담찬 기질을 다같이 지닌 처녀

였다. 타고난듯 한 지성미가 느껴졌고 새 세대로서의 진취성이 약동하고있었다.

더우기 림정우를 깊이 감동시킨것은 언제인가 밤길을 함께 걸을 때 어찌하여 자기가 타조목장을 떠날수 없는가를 토설하던 그 이야기였다.

그렇다, 그때 림정우는 확고히 깨달았었다. 처녀가 설사 삼촌이 소개했던 대상자가 이 림정우라는것을 알게 된다해도 자기들사이에 사랑의 불꽃은 일지 않으리라는것을…

헌데 감정이란 참 이상하지 않는가. 지내볼수록 처녀의 됨됨이 마음을 끄니 말이다. 무엇때문이였던가? 다심한 인정미? 사심없는 헌신?

림정우는 수술을 받고나서도 곰곰히 돌이켜보았다. 어째서 영혜는 나에게 눈까지 바치자고 하였을가? 기술부원장에게 자기를 애인이라고 한것은 분명 각막을 바칠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였을것이다.

림정우는 바로 이 일이 자기를 감동시키고있음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치는것은 희생이 아니다. 무한히 바치고싶고 바치는것이 기쁨인 그것이 사랑이라지 않는가?

그런데 영혜는? 처음부터 사랑할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진정을 바쳐왔다.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공장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 하루빨리 당이 바라는 첨단의 높이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서…

그것을 생각할수록 정우의 가슴은 후더워졌다. 붕대에 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막속에 영혜는 가장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비껴왔다.

영혜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력회복에 좋다는 결명자

차를 끓여가지고 일 끝난 밤에 지배인의 차를 타고왔다.

그러나 림정우는 매번 심중에 끓는 뜨거운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꺼내기만 하면 저자신이 랭정한 리성을 잃을것만 같아 두려웠던것이다. 그리하여 림정우는 여전히 영혜에게 있어서 교만하고 건방지고 뻣뻣하고 퉁명스러운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완강한 투지와 높은 목표와 지칠줄 모르는 정열, 연구사로서의 그 모든 품성과 자질을 존경할뿐이였다.

붕대를 푸는 날엔 박수혁지배인이 직접 찾아왔다. 수술경과가 좋았다. 검사결과 실명되기 전보다도 오히려 시력이 더 좋아진것이 확증되였다.

수혁은 환자치료에 정성을 기울인 의사, 간호원, 기술부원장에게 인사를 표시하고나서 병원을 떠났다. 림정우를 태운 승용차는 안경상점앞에 멎어섰다. 박수혁은 림정우의 눈에 맞는 시력보호안경을 사서 직접 끼워주었다.

림정우는 여태 끼지 않던 안경을 끼자니 어색하고 불편스러워 자꾸만 손이 갔다.

《안경을 끼니 더 멋있구 매력있어보이는데 왜 그러오? 이제부턴 절대 안경을 벗으면 안되겠소.》

시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가봐 마음쓰는 지배인의 지청구였다.

그들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회의실에서 노래소리가 장중하게 울려나왔다. 새로 나온 노래 《그이의 리상》이였다. 능란하고 세련된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녀성독창과 혼성합창이 네소절씩 엇바뀌여 울리고있었다.

두사람은 이끌리듯 회의실로 다가가 뒤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안경을 벗고 빈자리에 앉았다.

순간 림정우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것을 느끼였다. 연단에서 손풍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 영혜의 모습이 황홀하게 안겨왔다. 맑고 깨끗한 눈동자, 동그랗게 벌린 입술사이로 반짝이는 흰 이, 은은하면서도 청청한 목소리, 손풍금의 량쪽건반과 단추들을 자유자재로 눌러짚는 날씬한 손가락들…아, 정녕 아름답고 풍만한 손풍금소리…

림정우는 어느덧 격동되여 영혜의 선창을 따라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
장군님 꽃피우신 그 리상
아 내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진다

가사의 사상에 맞게 곡은 또 얼마나 장쾌하고 특색있는것인가. 부르면 부를수록 흥취가 나면서도 열정이 북받치고 심장이 끓었다.

음악이 이렇게도 큰 힘과 신비의 매력을 가진 세계인줄을 림정우는 처음 느끼는듯싶었다. 음악에 대한 감동은 곧 그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에 대한 매혹으로 표현된다. 마치도 이렇듯 훌륭한 노래를 작사작곡한 사람이 그 연주가자신인듯… 기실 영혜가 오늘따라 별로 더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안겨오는것은 그가 연주하며 부르는 음악의 그 숭고함과 아름다움의 빛갈에 한껏 채색된때문인지도 몰랐다. 림정우는 일생 영혜의 노래를 들으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다가 그만 얼굴을 붉히였다.

노래보급이 끝나자 모두가 연구사를 둘러싸고 퇴원을 축

하했다. 영혜도 티없는 웃음을 짓고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연구사동지, 나오셨군요. 이젠 정말 무리하지 마십시오.》

《고맙소.》

마침 이날 출장지에서 돌아온 주병호처장도 동생의 그간 일을 듣고 놀라며 며칠 푹 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림정우는 쉬고있을새가 없었다. 낮에 밤을 이어 콤퓨터를 마주하고 중단되였던 기술지표산출작업을 계속해나갔다.

이틀후 마늘향타조꼴바싸의 기술지표를 확정하기 위한 두번째 시험생산이 진행되였다.

운두높은 하얀 위생모에 위생복을 입은 림정우의 기름한 얼굴에서 은테안경이 유난스레 빛난다.

지배인과 연구사가 가공반에 들어가니 유춘삼반장과 반원들이 이미 각종 원료들을 출고해다 작업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유춘삼은 그동안 밤마다 머리를 싸매고 기술학습을 열성스레 해서 연구사의 지시에 피동적으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자기의 창발적인 지혜까지 합쳐가며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하게 되였다. 확고하고 안전한 토법에만 절대적으로 의거하던 그가 자기의 경험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게 된것은 격변의 해－2010년에 일어난 공장의 변화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었다. 지배인의 비판과 충고를 들으면서 자기의 타성과 싸우느라 모대기던 그가 결정적인 충격을 받은것은 자신이 그토록 질시했던 림정우연구사가 공장의 발전을 위해 시력을 잃을 정도로 투신해온 사실을 알게 되였을 때였다. 그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준절히 호소하던 지

배인의 말이 다시금 생각키웠다. 그래서 연구사가 안과병원에 입원한 사이에도 그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배인이 외국기술번역자료까지 보여주며 학습방조를 해주었었다.

그러는 가운데 옥류관식사조직은 또 한번의 큰 충격으로 그의 타성을 흔들어놓았다.

그후 유춘삼은 꼴바싸의 기포가 생기는 원인이 세단공정에서 공기가 빠지지 않기때문이라는것을 찾아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사가 애초에 요구했던대로 진공교반회전기를 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진공교반회전기는 원래 햄을 만드는데 쓰는것으로만 알고있었는데 꼴바싸생산에 이것을 리용하면 진공효과를 볼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는 지배인과 합의를 보고 연구사가 퇴원하기 전날 시험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였다. 연구사는 이 성과에 기초하여 꼴바싸생산의 새로운 기술적지표들을 산출해낼수 있었다.

지금 생산준비를 갖추는 이 시각도 기술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수 없다는 자각이 유춘삼의 행동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더해주고있었다.

그런데 생산을 막 시작하려는 때에 덜컥 정전이 되였다. 알아보니 변대사고가 났는데 인차 퇴치되기 어렵다는것이였다.

모두가 당황해하고 락심했다.

박수혁은 단호히 결심을 내렸다.

《발동기를 돌려서라도 시험생산을 하기요.》

림정우는 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말그대로 시험생산인데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 수백키로의 연유손실을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눈앞의 손실만 생각지 말고 먼 앞날을 생각해야지 겁을 먹고 우물쭈물하다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오. 백번 실패해도 백번 다시 한다는 배짱을 가지고 해보자구!》

지배인의 말을 들으니 림정우도 우쩍 힘이 솟았다. 그렇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대담하게 해보고 설사 실패해도 거기서 성공의 열쇠를 찾아쥐고 그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야 한다.

박수혁은 설비반원들로 발동기를 설치하고 돌리는 작업을 조직하고 운전사에게 차의 휘발유를 먼저 뽑아주게 했다. 그리고나서 목장운수대에 급히 올라가 필요한 량의 기름을 당겨오도록 했다.

림정우는 신심있게 생산지휘를 했다.

조미료혼합, 타조정육과 마늘세단 및 비계반죽, 진공교반작업에 이어 제품주입…

모든 공정이 사소한 편차도 없이 잘 맞물려진것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두고보아야 한다.

림정우는 제품이 익는 동안 다음지표인 고추꼴바싸생산을 준비했다.

그사이 수혁은 공예반작업실을 돌아보면서 알공예와 털공예, 뼈공예를 목각공예와 배합할데 대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뼈에서 빼낸 기름을 가지고 비누생산을 할수 없을가 생각하며 가공반에 돌아오니 그새 꺼내 식힌 꼴바싸시제품을 기계로 절단하고있는중이였다.

림정우가 칼로 얇게 썰어놓은 꼴바싸 한쪽을 지배인에게 먼저 맛보라고 권했다. 연분홍빛고기색바탕에 하얀 마늘색갈이 다문다문 박힌 꼴바싸는 척 보기에도 눈맛이 당겼다.

수혁은 그것을 손에 집어 구부려보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탄성도가 훨씬 좋아졌다는것을 말해준다. 자름면에 기포구멍도 보이지 않았다.

기쁜김에 얼른 입에 넣어 씹어보았다. 쫄깃쫄깃하면서 향기로운 마늘냄새와 섞인 고기맛이 독특하고 감미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야— 이거 맛이 기딱 막힌데, 탄성두 좋구. 자름면과 색갈도 멋있잖아?》

림정우의 땀배인 얼굴에 비로소 엷은 웃음이 비꼈다.

《림동무, 어서 5감측정을 해보라구.》

5감측정이란 음식의 눈맛, 입맛, 코맛, 손맛, 씹는맛 등을 가늠해본다는 말이다.

림정우는 전문가다운 눈으로 꼴바싸의 색갈과 자름면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코에 대보고 손으로 구부려보고서야 입에 넣어 천천히 씹어보았다.

《지배인동지… 성공입니다!》

나직이 부르짖는 림정우의 눈에 핑 하고 눈물이 어렸다.

《반장동무, 어떻소?》

수혁이 이번엔 유춘삼을 돌아보았다.

그도 한쪽을 집어 여러번 구부려보고 씹어보고 하더니 활짝 웃음을 머금었다.

《역시 기술이 좋긴 좋구만요. 여기에 비하면 그전에 내가 만들던건 꼴바싸가 아니라 고기떡이였습니다, 허허…》

《림동무, 이젠 마늘향꼴바싸의 기술지표는 확고히 잡은셈이요. 이건 곧 다른 제품들의 성공을 기술적으로 담보해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오. 이에 기초해서 곧 타조밸쏘세지에 진입하기요.》

《지배인동지! 이젠 훈연로만 성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에 훈연효과까지 들어가면 그야말로 1등품, 만점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소. 훈연로문제는 꼭 해결될거요.》

확신성있게 말하는 수혁의 뇌리에는 며칠전 안해가 전화로 최경천에게 갔다온 소식을 전하던 일이 생각났다.

지금쯤 최경천은 콤퓨터로 마음껏 모의동작을 시켜보면서 훈연로설계를 수정완성해가고있을것이다. 이제는 시험로를 조립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엊그제 출장지에서 돌아온 주병호처장도 로제작에 필요한 귀한 자재를 확보해놓은 소식을 가지고왔었다.

《그런데 지배인동지, 한가지 난문제가 있는데요?》

유춘삼이 신중한 낯색을 짓고 하는 말이였다.

《뭘 말입니까?》

《연구사동무가 내놓은 방법을 계렬생산에 도입하는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조미료는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조미료…》

박수혁은 얼른 대답을 못했다. 사실 림정우가 잡은 기술지표대로 하자면 17가지의 조미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값이 약차한것이다. 미처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수혁이였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그것때문에 제품개발이 중단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어떻게든 조미료를 해결보장해야만 한다는 결론이다.

《관리국에 제기해서 해결합시다. 연구사동문 그런 걱정때문에 좀자르지 말고 모든 제품을 가능한껏 맛있게만 만들어내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관리국의 자금사정을 모르지 않는 수혁이로서는 또 하나의 근심거리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수 없었다.

23

토요일 저녁이였다.

관리국회의에 참가했던 주병호는 집에 들릴 사이도 없이 공장으로 총총히 돌아왔다. 긴급하게 떨어진 비상전투과제가 그를 초조하게 다몰아댄것이다.

차에서 내려 한달음에 2층에 올라가니 지배인방은 비여있었다. 림정우연구사의 방에도 주인이 없었다.

안달이 나서 1층으로 되내려와 식당근무처녀에게 물으니 《지배인동지 말입니까?》하고 머리를 갸웃하며 대꾸했다.

《아까 분명 저기 계셨는데…》

그가 가리키는 공장뒤마당에 훈연장치를 만드느라고 공중에 푸른색차일을 드리운 야외작업장이 있었다. 거기서 쾅쾅 철판 두드리는 소리, 용접하는 소리가 귀따갑게 울리고 눈부신 용접광이 불꽃보라마냥 확확 퍼져오르고있었다.

주병호는 부리나케 그리로 향하면서 살펴보았으나 지배인은 보이지 않았다. 철판을 자르는 사람과 용접하는 사람, 도면을 보고 치수를 재는 림정우 셋뿐이였다.

철판작업하는 로동자의 귀전에 다가가 지배인 못 봤는가고 물으니 손짓으로 용접공쪽을 가리켰다. 그가 알수 있을거라는 신호같아서 그앞에 가 물어보려는데 용접면을 내리우는걸 보니 뜻밖에도 그가 바로 지배인이였다.

《아니, 지배인동무가? 이거 어떻게 된거요?》
수혁은 목에 걸친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씻으며 도면을 가리켜보였다.
《최경천반장이 설계를 완성해보내서 시험로를 조립하는중이요.》
설계가 완성됐다니 무등 반가왔다.
《그럼 반장이 나온 다음 조립하면 될텐데 지배인이 용접봉을 들고 그러나?》
《내 이래뵈도 용접공으로 현장생활한 고급기능공이란걸 잊었나?》
《그랬던가?》
주병호는 박수혁의 굵은 팔뚝을 새삼스런 눈으로 보았다.
《잠간만 기다려주게나. 내 이제 용접하던걸 마저 끝내야겠으니…》
《빨리 하라구. 비상전투과제가 떨어졌소.》
박수혁은 두말없이 돌아서 용접을 다그쳤다.
그동안 주병호는 림정우한테서 설계도면을 넘겨받아보았다. 최경천반장이 많이 고심하고 탐구한것이 알렸다. 그러나 지금 분초를 다투는 긴급정황이 조성된 조건에서 구이로개조설계안을 붙들고 시험로에 신경쓸 형편이 못되였다.
손목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박수혁의 용접작업을 초조히 지켜보던 주병호는 드디여 작업이 끝나자 수혁을 재촉하여 사무실로 올라갔다.
《훈연로조립은 당분간 뒤로 미루어야겠네.》
《미루다니? 무엇때문에?》
수혁의 눈에 대뜸 짙은 의혹이 비꼈다.
《태양절까지 20일동안 타조고기 천마리분을 보장할데 대

한 과업이 떨어졌네.》
《뭐, 20일동안 천마리?》
수혁은 아름찬 수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엇인가 대단히 비상하고 긍지로운 일이 눈앞에 닥쳐왔다는 흥분이 그의 가슴을 높뛰게 했다.
그것을 강조하듯 주병호가 설명을 달았다.
《이번전투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시내 식당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타조고기를 맛보이시려는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네. 그런것만큼 모든 사업을 여기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하네. 공장의 모든 력량을 도살분육에 총집중해도 시간이 긴장하다는걸 명심하게.》
태양절, 천마리— 여기에 흥분된 박수혁은 주병호의 마지막말뜻을 미처 리해하지 못한채 쾌히 대답했다.
《알겠네, 전투를 벌려야지! 일찌기 우리에게 이렇듯 보람있는 전투과제가 언제 있어보았나?》
《그렇잖구!》
《참, 전번에 제기했던 조미료문제는 어떻게 될것 같은가?》
수혁의 물음에 주병호는 아연한 표정이 되였다.
《자넨 이런 판에 어떻게 조미료같은 소릴 다하나? 가을뻐꾸기 아냐?》
《왜? 응당 신경써야 할걸 쓰는데… 안됐으면 안됐다고 할게지 자네 물음이 이상하구만.》
수혁이 의아해하자 주병호의 짙은 눈섭이 벌떡 곤두섰다.
《아 조미료같은걸 신경쓸 경황이 되는가? 자네도 이자 금방 말했지? 천마리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가를…
태양절전까지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전투과제야!

하지만 터놓구말해서 설비개조나 제품개발 같은거야 법적 과제도 아니지 않나?》

《뭐라구?》

박수혁은 비로소 놀라며 심각한 기색을 지었다.

《그건 무슨 소린가? 천마리전투가 설비개조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다구?》

그러자 주병호는 제편에서 오히려 펄쩍 뛰였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 천마리전투를 책임지구 지휘해야 할 일군들이 설비개조를 붙안구 돌아갈 여유가 어디 있다는거요? 그것두 언제나 될지말지 한결 가지구 말이요.》

《그러니까 자넨 최경천반장이 완성한 설계를 믿지 못하겠다는건가?》

《솔직히 말해서 초기설계두 다된것 같았지만 모의실험에서 몇번이나 고배를 겪었나? 그런데 지금같이 긴장한 때 시험로를 몇번씩 뜯었다맞췄다 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말이요? 시간이!》

박수혁은 안타까이 부르짖는 주병호의 말을 들으며 심각한 생각에 잠기였다. 시간? 시간도 문제다. 하지만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시간문제를 전면에 걸고 설비개조를 못하게 하자는것이다.

외국출장에서 돌아와 처음 설비개조문제를 내놓았을 때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던가? 그 다음엔 설비에 손상을 줄수 없다고 수입안을 제기하여 개조안을 부결시키려 했었지. 국장동지로부터 합심협력의 임무를 받았을 때는 최경천의 능력과 책임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천마리전투가 제기된 오늘은 또 시간이 없기때문에 할수 없다고 한다.

결국은 무엇인가? 어떻게든 설비개조를 하지 말자는 목적이 아닌가? 갖추어진 조건에서 현상유지나 하며 안전한 길만 걷겠다는것이 아닌가?

수혁은 더이상 주병호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묵새겨둘수 없다고 생각했다. 친구이기때문에, 상급이기때문에 옳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것을 그대로 보고있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접수하고 추종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주병호의 말처럼 천마리전투가 중요한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훈연로를 완성하여 훌륭한 고기가공품을 만드는것도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드팀없는 목표이다.

박수혁은 주병호를 마주보며 결연히 말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립장에 서면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네.》

정통을 찔리운 주병호는 한순간 주춤했다. 수혁의 말이 옳았다. 립장이 문제인것이다. 주병호자신은 아직도 설비개조를 무조건 해야 하는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박수혁이 너는? 무엇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긴급전투과제가 떨어진 이 마당에 와서까지도 부득부득 고집하며 복잡성을 조성하는것이냐? 후생건물공사때처럼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자고? 명성을 떨쳐보자고?

그래, 문제가 이렇게 선 이상 각자가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

주병호는 잠시 생각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수혁이, 자넨 중학시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늘만큼 매사에 조심스러웠구 고지식했어. 그만큼 실수가 없었구

탈선을 몰랐지.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변했거던. 물불을 가리지 못할만큼 무모해졌어. 대체 무엇때문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병호는 사실 공명심때문이란 말을 차마 내칠수 없어 이렇게 의문을 던졌던것이다.

그런데 수혁은 대답대신 역습을 들이댔다.

《그건 바로 내가 하자던 말이요. 주동문 중학교때 그렇게 환상과 모험을 즐기더니 지금은 아예… 심중한 타산쟁이가 됐소그려.》

그도 아마 겁쟁이란 말을 차마 할수 없어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른다.

아무랬든 주병호는 할 소리가 당당했다.

《그야 물론! 우린 장난을 즐기던 철부지중학생이 아니라 기업경영을 책임진 경제일군이네, 매사에 타산하고 또 타산하고 한걸음한걸음을 심중히 택해야 하는! 중학교때 망가뜨린 콤퓨터는 욕을 먹는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의 실수는 무엇으로도 보상 못하네. 당적, 법적, 행정적처벌이 따른단 말이야. 그래 자네가 이걸 모를 사람인가?》

《력설은 그만하게! 처벌이 두려워 위험한 길은 피하고 안전한 길만 골라걸으면서 적당히 살면 된다는건가? 현상유지나 하고 자리지킴만 하면 된다는건가!》

박수혁은 끓어오르는 의분을 더는 주체할 길이 없어 피를 토하듯 부르짖었다.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이 모두가 자네처럼 생각한다면 장군님의 높으신 리상을 어떻게 실현할수 있겠소? 장군님께선 지금도 인민을 위한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끝없이 걷고계시는데 그이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우리가, 그이의 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덜어드려야 할 우리 일군들이 처장동무처럼 제 한몸의 안일만을 추구한다면… 그런 일군이 백이면 뭘하고 천이면 뭘한단 말이요?》

《뭐라구? 이… 이 사람이?…》

주병호의 이마에서 그 꺼먼 눈섭이 기러기날개마냥 푸드득거렸다. 격분한김에 자리를 차고 일어났으나 웬일인지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방안에는 다치면 터질듯 한 긴장이 팽팽하게 차올랐다. 진정을 못하고 방안을 왔다갔다하던 주병호는 창가에 뚝 멈춰서며 신음하듯 부르짖었다.

《그러니 이 담당처장이… 이 공장에 필요없는 존재였단 말이지. … 어쩌면 자네가…》

수혁은 가슴아프지만 할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공장뿐아니라 모든 단위에서 다 같다고 보네. 장군님의 리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여있지 않는 일군은 우리 시대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네. 왜 그런가? 오늘날 장군님의 리상실현은 바로 일군들에게 달려있기때문이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하지 못하는게 누구때문인가? 로동자들때문인가? 일군들이 뛰지 않기때문이지. 당이 마련해준 꽃방석에 앉아서 저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군들, 당이 제시하는 목표는 목표대로 놓아두고 자리지킴이나 할 정도로 적당히 일해나가는 요령주의, 보신주의자들, 도대체 이런 일군들이 무엇에 필요하단 말인가? 낮전등과 같이 소비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주는 일군들이…》

점점 신랄해지는 수혁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주병호의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고들었다.

《언젠가 자넨 국장동지와 함께 설비납입과정에 겪었던 일을 나한테 이야기해준적 있지. 그때 내가 생각한게 뭔지 아나?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자금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설비를 사면 편안할수도 있었겠는데 국장동진 무엇때문에 그렇게 한달을 꼬박 밤을 새우면서 고심분투하였겠는가? 고열이 나고 코피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안정을 모르고 머리를 짜내며 뛰고 또 뛰였겠는가?

난 그것이 바로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드는 일군의 자세이고 도리라고 생각했네. 장군님의 뜻을 받들자면 그렇게 자기 한몸을 아낌없이 투신하고 초불처럼 태울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네.》

수혁의 절절한 말에 주병호는 그만 끓어오르던 반발심마저 가라앉는듯싶었다. 자리에 주저앉은 그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붙여물었다.

돌이켜보기조차 무서운 생각이 뇌리에 엄습했다.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수혁이처럼 생각해본적이 있었던가? 장군님의 리상과 내 인생의 목표를 결부시켜본적이 있었던가?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실천에서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것이였다.

지금껏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였던가. 나는 현재의 직위와 물질생활에 만족하였고 그것을 보존유지하는데만 급급했었다. 그래서 중학시절엔 환상과 모험심도 풍부했던 내가 일군이 된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느는 소심하고 비겁한 인간이 되였다. 반대로 수혁인 천성적으로 조심스러운 소년이였지만 지금은 일군이 되였기에, 선군시대 일군의 역

할을 다하기 위해 대담하고 통이 큰 배짱가가 된것이다. 최첨단을 향해 돌진하는 공격형의 일군이 돼야 하기에…)

이 순간 주병호의 눈앞에는 언젠가 텔레비죤에서 보았던 세계기니스기록갱신자들의 기록돌파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찔하게 높은 철탑을 향해 땅에서부터 사선으로 백수십메터나 뻗어간 쇠바줄을 밟고 올라가던 장면이다.

한걸음한걸음이 그야말로 관중의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모험이였다. 한찰나만 균형을 잃어도 까마득한 허공에 돌덩이처럼 몸을 던져야 하는 위기일발의 순간의 련속…

안전바도 없이 수평궤도도 아닌 가파로운 쇠바줄을 따라 경사각도가 급해지는 그 한가닥 바줄우로 기니스기록도전자는 한치한치 굴함없이 전진한다. 드디여 철탑의 맨끝에 이르렀다. 숨막힐듯 한 긴장속에 제발 무사하기를 바라며 눈물을 머금던 관중들속에서 환호성이 터져오른다. 가슴을 조이며 땀을 쥐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 형언할수 없는 감동과 격정의 미소가 어리였다.

그때 주병호는 생각했었다. 생명을 내걸고 기니스기록에 도전한, 보는 사람의 심장마저 멎게 할 정도로 숨가쁜 위험의 고비들을 넘어 끝끝내 목표를 점령한 승리자의 기쁨은 과연 어떤것일가?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목숨마저 불사해야 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스스로 단행한것일가? 모험심 많은 사람들의 렵기적인 취미에 만족을 준 대가로 차례질 황금의 소나기일가? 세상사람들의 경의와 찬탄속에 대를 이어 전해질 빛나는 명성일가? 아니면 위험을 이겨낸 순간의 짜릿한 쾌감과 이르기 힘든 목표에 대한 정복의 기쁨, 그로부터 얻게 되는 스스로의 정신적만족을 위한것

이였을가?

어느 경우이든 결국 그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모험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고 주병호는 생각했다. 소년시절 그도 모험을 즐기였지만 모험 그자체는 언제나 자기자신을 위한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수혁이가 구이로를 개조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자신의 공명을 위해 실패의 위험마저 무릅쓰는 한갖 모험이라고밖에 보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두사람의 상반되는 견해가 더는 타협할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충돌한 지금 주병호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수혁은 결코 그 기니스기록갱신자와 같이 자기 명예나 치부를 위한 모험을 하는것이 아니다.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시대의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가는것이다.

그러나 남에 대해 부정하기는 쉬워도 자기자신을 부정하기는 참으로 힘든 법이다. 내가 정말 그렇게도 용렬한 인간이였단 말인가?

괴로움을 묵새기며 담배를 피우고있는데 마침 저녁총화시간이라 세포비서와 작업반장들이 모여들었다.

수혁은 간단히 하루생산총화를 끝내고나서 공장앞에 조성된 정황과 제기된 과업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런즉 문제는 바로 도살, 분육반에 달려있습니다. 하루 50마리과제를 자체로 해낼수 있겠는가?》

그러자 여느때처럼 분육반장이 먼저 일어났다.

《그렇다면 방도야 명백하지 않습니까? 주야간전투를 벌려야지요.》

《투지는 좋은데… 쉽게 찾은 방도도 실천하긴 힘든 법이지. 도살반장! 어떻소? 꽤 해냄직 하오?》

도살반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안됩니다. 하루이틀이라면 몰라두 20일동안 잠 못자구 일한다는건…》

《여, 도살동무! 그걸 말이라구 하오? 지금이 어느때게 잠타령이요?》

분육반장이 동갑이를 시까슬러대는 말이다.

그러나 박수혁은 도살반장의 말에 동감을 표시했다.

《20일동안 교대없는 철야전투를 한다는건 말도 되지 않소. 그렇게는 견디지 못하오. 하루종일 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며칠 못가 다 쓰러지고말거요.

어떻게든 단위당 시간내에 능률을 낼수 있는 방도를 찾아봅시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넓은 이마를 어루만지며 무엇인가 생각하던 분육반장이 마침내 결심한듯 벌떡 일어났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무들이 종전의 작업속도를 2배로 올리기 위한 전투를 벌리겠습니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우선 저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반원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겠습니다.》

《음, 그건 귀맛이 당기누만.》

주병호처장이 크게 머리를 끄덕였다.

도살반장도 지지 않겠다는듯 자리를 일더니 배포가 유하게 말을 시작했다.

《우리 작업반에서 걸린 문제는 밸처리속도입니다. 아시다

십이 타조뱰은 수십메터, 지어 백메터까지 되는데… 아, 여느 가금의 밸길이는 기껏해서 제몸길이의 7배인데 이건 수십배가 뭡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나 해서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허허 웃었다.

《여, 타조밸만 긴게 아니라 동무말도 타조밸처럼 길구만. 그래 뭘 말하자는거요? 지원로력을 달라는거요?》

듣다못해 박수혁이 미간을 찌프리며 따져물었다.

도살반장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천연스레 대꾸했다.

《물론 지원로력없인 안됩니다. 그러나 뭐 지배인동지한테 지원로력을 달라는건 아니구요.

제 의견은 뭔가 하니 우리 도살반원들의 가족들로 밸처리지원대를 조직하자는겁니다.

물론 제 안해부터 앞장세워야지요. 신체검사를 철저히 하고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철저히 준비시키겠습니다.》

반장은 서론을 뗄 때처럼 배수진까지 든든히 쳐가며 말했다.

물론 앞뒤로 물샐틈 없는 그 의견에 누구도 반대할 건덕지는 없었다.

막혔던 숨이 훌— 나가는듯싶은데 리태성비서가 일어났다.

《이번전투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반장동무들이 훌륭한 안들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강한 요구성이나 완력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야 합니다!

로력예비도, 승리의 비결도 바로 정신력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은 종업원들의 기세를 앙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래일 일요일을 리용하여 종업원모두가 참가하는 혼성축구경기를 조직하자는겁니다.》
《혼성축구?》
이구동성으로 놀라 되묻는다.
수혁은 축구라는 말에 벌써 몸이 달아올랐다.
《난 절대찬성이요. 누구 반대할 사람 있소?》
《없습니다!》
이중엔 축구애호가가 아닌 사람이 한명도 없다.
애호가정도가 아니라 축구광들이다.
《저, 그런데 시상품이 없이야 열이 납니까?》
도살반장의 반죽좋은 제기에 리태성은 제꺽 선언했다.
《시상품이 없을수가 있나? 마침 우리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잡을 때가 됐으니 그걸 내놓겠소. 이긴 편엔 고기, 진 편엔 국물만 준다! 어떻소?》
《좋습니다!》
《하, 결국은 비겨야 된다는 소린데?》
《건 무슨 소리요?》
《그래야 고기도 국물도 다같이 차례지지!》
《하하… 정말 그렇구만!》
모두 벌써부터 경기장에 나선 기분들이다.
결국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자고 모였던 협의회가 축구경기를 조직하는 흥겨운 모임으로 끝나게 되였다.

24

새로 나온 장편소설을 읽느라고 새벽녘에야 잠들었던 박영혜는 어머니가 밥을 다 지어놓고 흔들어깨워서야 눈을 떴다.

《오늘 출근해야 된다지? 원, 무슨 체네가 시집갈 때가 지나도록 책에 미쳐 그러는지? 그러다 누가 데려가기나 하겠니?》

《엄마! 걱정말아요. 나같은 녀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으니까요.》

영혜는 기분좋게 기지개를 켜며 응석기어린 소리로 종알거렸다.

《있기야 있겠지. 어떤 남자인가 하는거지.

좋은 대상은 다 뿌리쳐버리고… 정말 야단이다.》

어머니가 푸념하듯 말하며 부엌으로 나간다. 삼촌이 소개해준 그 총각을 놓친것을 지금도 못내 아쉬워하는 어머니다.

영혜는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다말고 방금 자기가 한 말에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가만, 나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다구? 그게 누군데?)

그러자 얼른 떠오르는것이 림정우의 얼굴이다. 얼핏 보면 뻣뻣한 인상에 메마르고 거만해보이기까지 하지만 얼마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사나이인가.

하지만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렇게 판단할만 한 근거는 잡히지 않는다. 결국 내가 그를 마음에 두고있단 소리가 아닌가. 그럼 내가?…

영혜는 깜짝 놀라 가슴을 움켜잡았다. 누가 제 생각을 훔쳐보지 않았나 해서 황황히 사방을 둘러보았다. 화장하려고 삼면경대앞에 앉은 그는 자기의 얼굴을 마주보며 꾸짖었다.

(영혜! 정신차려! 짝사랑, 그건… 그건 함정이나 같애. 한번 빠지면 헤여나올수 없는 무서운 함정…)

영혜는 제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자기의 리성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정작 공장에 출근하니 저도 모르게 림정우연구사의 모습부터 찾아보게 되는것은 어인 일인가? 도대체 전제가 없는 감정이 있을수 있는가? 하지만 왜서인지, 언제부터인지 알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자기는 연구사를 위하는것이 일개 남성을 위한것이 아니라 공장을 위한것이라고 열심히 변호해오지 않았던가? 더우기는 그가 자기와 대비할수 없는 인격적높이에 있기에 언제한번 일생의 반려로 나란히 세워본적도 없었다.

다만 그의 열정과 헌신이 숭고하고 소중하기에 존경했을뿐이고 사심없이 동조했을뿐이다. 과연 그 순결하던 감정에 흑심이 섞여들었단 말인가? 그렇다. 은연중 자기는 림정우라는 남성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의 사랑을 받고싶은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때없이 그리워지고 보고싶고 말하고싶은 이 감정…

아, 이것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감정이란 말인가? 그의 개별강의를 받고 나란히 밤길을 걷던 그때부터였을가? 아니면 실명된 그를 찾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나날들에 봄싹처럼 움터자란것일가?

영혜는 소스라치게 머리를 흔들며 또 한번 자기의 마음을 꾸짖었다.

(안돼! 그래선 안돼! 너는 아버지의 넋이 깃들고 너의 긍지가 깃든 이 애국자촌을 일생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 연구사는 시내 연구소로 돌아갈 사람이야. 네가 마음에 두어선 안될 사람이란 말이야!)

그는 여느때와 달리 연구사의 방청소를 단념하고 야외청소에 나갔다.

분육반담당구역인 휴식터에로 가니 공교롭게도 림정우가 거기서 아침운동을 하고있었다.

《아, 일찍 나왔구만. 그렇게 차려입으니 더 매력있어 보이는데요?》

《연구사동진 오늘 축구경기에 안 나가는가요?》

《나야 이 공장 사람이 아니니 참가할 명분이 있어야지요.》

《참, 그렇군요.》

영혜는 더 관심이 없다는듯 비자루를 들고 구석쪽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서있는 복숭아나무에 문득 눈길이 가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어마나! 복숭아꽃이 폈네! 아이 고와!》

진분홍꽃망울을 코에 대고 향기를 들이키면서 그는 감동겹게 중얼거렸다.

《봄은 처녀들의 계절이라는데 네가 먼저 봄을 알려주는구나.》

《정말 복숭아꽃이야말로 희망의 꽃이라고 할수 있지요. 봄날에 피였던 뭇꽃들이 한때의 아름다움을 추억으로 남기고 속절없이 시들적에 복숭아꽃은 향기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시를 읊조리듯 하는 림정우의 말에 영혜는 왜서인지 가슴이 함뿍 젖어들었다. 한편 놀라왔다.

연구사에게 이렇듯 다감한 정서도 있었던가?

영혜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우려하고 피하려 애썼던 그 무서운 함정에 한치한치 빠져드는것만 같았다.

아침청소를 끝낸 로동자들은 공장앞 식수구역으로 나갔다.

영혜는 지난 10월 이곳을 찾아주신 아버지장군님께 그토록 크나큰 기쁨을 드린 목장의 수림화, 원림화를 생각할 때 거기에 지성과 심혈을 다 바쳐온 이곳 목장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뜨겁게 하군 한다.

《뜻은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우리는 지난날 애국자의 이름을 지니기까지도 어려웠지만 그 이름을 앞으로 계속 빛내이기는 더욱 힘들것이라는걸 각오해야 한다.》하고 지배인은 식수때마다 늘 말하군 한다.

공장으로 들어오는 입구 량옆에 위병대마냥 줄지어선 가문비나무들을 키와 간격에 맞게 다 옮겨심고났을 때 식당쪽에선 벌써 구수한 고기국냄새가 풍기기 시작한다. 로동한 뒤끝이라 식욕이 바싹 당긴다.

수혁이도 배가 출출해났으나 축구에 대한 열망보다는 급하지 않았다. 중학시절부터 축구애호가였던 그는 경기마당에 나서기만 하면 짜릿한 흥분과 함께 온몸의 근육이 살아일어난다.

그는 식당쪽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에게 호기있게 소리쳤다.

《군침들을 흘리지 마오. 누구에게 고기가 차례지고 누구에게 국물이 차례지겠는지는 경기결과만이 말해줄테니까. 자, 운동장으로!》

모두 힘든줄 모르고 운동장으로 밀려갔다.

팀별로 경기전술을 짜고 좌우측으로 흩어져 마주섰다.

수혁은 팔짱을 끼고 구경군자세로 서있는 림정우에게 다

가가 은근히 부추겼다.

《젊은 사람이 이런 때 한몫 하지 않으면 체면이 서겠소? 한번 본때를 보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데 저야 팀소속이 없으니…》

《소속이 없다니? 림동무는 마치 이 공장 사람이 아닌것처럼 말하누만.》

《예?》

정우는 롱비슷한 속에 섭섭함이 비낀 지배인의 말을 어떻게 리해해야 할지 몰라 얼떠름했다.

한눈에 경기장을 쭉 일별하고난 수혁은 제꺽 결론을 주었다.

《림동무야 가공반성원이나 같으니 응당 우리 근위대팀에 소속돼야지. 자, 저기 오른쪽 측면공격을 맡아주오.》

《예, 알았습니다.》

림정우는 비로소 승기가 살아오르는듯 웃옷을 벗어 철봉대에 걸쳐놓고 자기 위치를 찾아들어갔다. 그런데 상대편인 결사대팀 꼴문대앞의 방어선에는 곱실한 머리발을 시원히 묶어올리고 그우에 노란색체육모를 쓴 박영혜가 자신만만한 자세로 두주먹을 흔들며 준비운동을 하고있는것이였다.

두사람은 동시에 눈이 마주치자 놀라며 서로 피했다. 공교롭게 맞서게 되였다고 그들은 저마끔 생각할것이다. 여기에 두사람의 화합을 바라는 박수혁지배인의 의도가 깃들어있는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삑—

주심을 맡은 주병호가 호각을 불었다.

지배인과 리태성비서가 중앙공격선에서 서로 대결했다. 체

소하나 날파람있는 리태성의 공빼몰기와 몸집이 우람한 박수혁의 강한 차기동작은 저마끔의 위력으로 만만치 않았다.
꽃분홍색녀자체육복을 얻어걸친 싱겁둥이운전사와 하늘색봄가을내의바람인 림정우연구사도 량팀의 측면공격을 맡아 맹활약을 하고있다.
방어선을 차지한 처녀들은 자기 문전을 향해 뽈이 날아올 때마다 악악 소리를 치며 필사적으로 달려드는데 귀청을 째는 그 소리에 더 위압이 될 정도이다. 소리로 방어를 하는것이다.
뽈이 아니라 사람을 밀쳐내는 처녀도 있다. 그때마다 주병호가 호각을 불어 경고신호를 주었으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배인은 신발 한쪽이 날아난줄도 모르고 무섭게 뽈을 따라 달리는데 평소엔 잔잔하던 두눈에서 진짜불줄기가 뿜어나오는것만 같다.
역시 성칼지고 이악한 분육반장의 맹공격, 꼭 날아드는 표범의 기상이다.
《영혜, 뭘해? 연구사 막으라!》
림정우가 지배인에게서 금방 뽈을 련락받아 측면으로 돌입해온 위기일발의 순간이다.
영혜는 《야!》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 발로 냅다 공을 차던졌다. 그것을 분육반장이 날쌔게 잡아 반대켠으로 몰고나간다.
한순간이였으나 영혜의 쾌감은 말할수 없었다. 하마트면 림정우한테서 진짜꼴을 먹을번 했던걸 아주 멋지게 뺏어낸것이다. 이젠 공격이다! 영혜는 다시 긴장해졌다.
분육반장이 넘겨준 뽈을 꽃분홍체육복이 재치있게 받아 도

살반꼴문으로 쏘아넣는다. 슛— 하는 순간 《악.》소리와 함께 방어수처녀가 두팔을 벌리고 막아서는 바람에 뽈은 그대로 처녀의 몸에 맞아 보기 좋게 튀여났다. 영혜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잘해, 연화! 가슴 일없니?》

도살반장이 뽈을 받는 그 창황에도 느물거리며 처녀의 가슴을 걱정한다. 그러나 대답을 들을새없이 중앙선에 있는 박수혁을 향해 뽈을 힘껏 차주었다.

박수혁이 재치있는 빼몰기를 하며 억척의 방어선을 뚫고들어가 잽싸게 림정우에게 넘겼다. 영혜가 그쪽을 향해 방어자세를 취하는데 림정우는 뽈을 꼴문으로가 아니라 반대로 차서 그새 가까이 온 박수혁에게 다시 넘겼다. 순간 박수혁이 화살같이 공을 날렸다.

이젠 먹었구나 하고 아찔해서 돌아서는 순간 영혜의 비명은 곧 환성으로 바뀌였다. 가공반장이 다 들어갔던 뽈을 영웅적으로 막아낸것이다. 모아쥔 두주먹으로 높이 날아드는 뽈을 맞받아쳐갈기는 솜씨 멋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치렬하게 일진일퇴하는 량팀의 공방전은 좀처럼 승부를 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선수들은 더욱 이를 악물고 뛰였다. 과연 어느 팀이 먼저 득점의 문을 열것인가?

신었던 신발까지 벗어던진 김상도가 맨발로 열성스레 뽈을 추격했으나 반바지바람의 당비서한테는 견디지 못한다. 몸은 체소해도 날파람있게 공을 빼모는 그의 기질이야 어디가랴. 놀랄만 한 속도로 맹호같이 빼몰고 나가다 불의에 강타한 뽈이 긴 포물선을 그으며 면바로 꼴문안에 들어갔다.

문지기 《김선달》이 뽈을 잡으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그

서슬에 벌어진 무릎사이로 그만 새여들어가고말았다.

《와—》환성과 함께 폭소가 터졌다.

큰 꼴문대에도 들어가기 힘들어하던 뽈이 그 작은 꼴문대를 뚫고들어갈줄이야…

무릎을 굽힌채 아연하여 굳어진 《김선달》은 《아휴, 어방이 직방이라더니…》하고 큰 눈만 뜨부럭거리는데 도살반장은 성을 낸다는것이 《아 선달님, 오늘 분육반고기 얻어잡술가 해서 그래? 어서 오세요 하구 다리를 잔뜩 벌려주고있으니 뭐이 들어오는지도 모르잖아?》하고 웃음절반, 핀잔절반이다. 도대체 꼴을 먹은 사람인지 넣은 사람인지 알수 없는 반장의 말하는 양도 우스웠지만 《김선달》의 대답또한 가관이다.

《고기구경 못했더니 다리살이 다 빠져서 어디 모아져야지?》

《와하하…》

《으흐흐…》

선수들은 경기중이라는것도 잊고 배를 그러안고 돌아가며 웃었다. 처녀들도 서로 잔등을 쥐여박으며 죽어라고 깔깔거렸다.

이것으로 경기결말은 벌써 지어진듯싶었다. 시간이 거의 되여갔던것이다.

그러나 근위대팀 선수들은 맥을 잃지 않고 말그대로 결사적으로 뛰였다.

이번에도 최종공격을 맡은 림정우와 최종방어를 맡은 박영혜가 맞서게 되였다. 림정우가 바로 차넣는 뽈을 영혜는 또다시 가슴으로 막아냈다. 그런데 튀여나는 뽈을 림정우가 재차 타격하는 바람에 어쩔새없이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영혜는 얼굴을 싸쥐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런데 도살반과 공예반사람들은 너무 좋아 껄껄 웃으며 림정우를 영웅처럼 떠받들어올린다.
《잘했수다! 연구사동무! 하하…》
《뭘요, 처녀방어수 하나 넘긴게 무슨 큰거라구…》
겸손을 표시하는것 같은 이 말이 영혜에겐 꿀을 먹은것보다 더 분하게 들렸다.
《영혜, 너 연구사한테 우정 문열어준거 아냐?》
분육반장까지 눈을 부라리며 몰아주는통에 영혜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였다.
이때 시간이 되였음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길게 울렸다.
《연장전을 해서라도 승부를 냅시다!》하고 분육반장이 얼굴이 수수떡같이 달아서 들이댔으나 주병호주심이 그의 편역을 들 근거는 없었다.
《월드컵쟁탈전은 아니니 그만하기요!》
그러자 도살반장도 섭섭하다는듯이 소리쳤다.
《아, 거 분육반한테 고기 좀 양보하자 했더니 마음대로 안되누만. 지는것도 헐치 않은데!》
그 바람에 또 《하하.》 《호호.》 웃음이 터졌다.
박수혁은 땀으로 미역을 감은 상태이지만 흐뭇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우리 선수들이 괜찮구만. 처녀들도 다들 이악해.》
림정우도 웃으며 감탄했다.
《정말 보통들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처녀들의 방어선을 가까스로 뚫어냈습니다.》
《허허… 방어는 처녀의것이구 공격은 총각의것이라구 어

느 책에 씌여있더라?》

모두 그 말이 신통하다고 즐겁게 웃어댔다.

잠시후 한증칸에서 목욕들을 하고 식당으로 가니 어느새 식탁에 주런이 놓인 그릇마다 진한 토장빛이 나는 고기가 보기 좋게 담기고 그우에 빨갛고 파란 양념이 얹혀 매움짭짤한 향기를 풍긴다. 영혜는 식당근무를 도와 펄펄 끓는 국통을 내다 그릇마다 부어주었다.

《아니, 봉희동무. 오늘 어느편이 이길지두 모르면서 고기를 꼭같이 배식했소?》

《아이, 이긴편이 진편한테 고기를 나눠줄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국물도 그렇구…》

《야! 이래노니 비길수밖에…》

영혜가 림정우의 그릇에 국을 부어주자 그는 은근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오늘 고마웠소, 꼴을 넣게 해줘서…》

영혜는 무엇인가 자기도 그의 약을 올려줄수 있는 뾰족한 말을 던지고싶었으나 끝내 고르지 못했다. 그저 무슨 말이든 대꾸를 해야겠기에 《비겼지만 제몫까지 많이 드세요.》하는 말로 굼때고말았다.

그때 리태성이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축구는 서막에 불과하고 진짜경기는 이제부터요.

래일부터 20일간 벌리게 되는 생산전투에서 작업반별실적순위가 곧 득점순위로 될거요.

그러니 오늘 푸짐히 먹고 힘을 내서 진짜경기에 출전합시다!》

림정우는 의미있는 눈길로 영혜를 보았다.

《동무가 분육전투에서 기록을 세우게 되면 내가 꼴을 먹

은것으로 생각하겠소.》
《정말이예요?》
순간 두사람의 시선이 부딪쳐 미묘한 불꽃을 튕기였다.

25

새벽 4시쯤 되였을가.
사무실침대에서 얼핏 눈을 뜨는 순간 박수혁은 현란하게 펼쳐진 연회상을 보았다. 신묘함을 다투는 갖가지 장식속에 쪽배만 한 크기의 몸뚱이를 그대로 살려 먹음직스럽게 조리한 철갑상어료리들, 온갖 재간과 기교를 다 부려 만든 메기, 연어, 뱀장어료리들… 연회장의 중심탁에 《타조료리》라고 쓴 표찰이 보인다.
타조날개졸임, 타조고기군편육, 타조순대, 타조간위회, 타조심장백숙, 타조고기버섯찜, 타조발통찜, 타조목살찜, 타조고기강냉이찜…
박수혁은 전신에 짜릿한 흥분을 느끼며 벌떡 일어나앉았다. 비몽사몽간에 떠오른 그것이 꿈이 아니라 바로 어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던 료리축전의 한 장면이였음을 비로소 의식했던것이다.
창광식당이 축전에 타조료리를 들고나간다는 귀중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주병호였다.
료리와 가공품은 그 제조법이 엄연히 다르지만 현재 애를 먹고있는 타조밸쏘세지생산에 참고가 될만 한 경험과 기술을 얻을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것이였다.

그의 조언이 백번 옳았다.

수혁은 림정우연구사, 유춘삼가공반장과 함께 축전장에 갔었다. 사람들의 이목이 제일 집중되는것이 바로 올해에 새로 출현한 타조료리전시탁이였다. 거기서 수혁은 창광식당의 낯익은 책임자와 주방장, 료리사를 만나 각종 료리의 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눈이 번쩍 뜨인것은 타조순대만드는 법이였다. 국가료리협회 연구생이 직접 연구하고 배워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만나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료리법을 배워주라고 료리협회일군들을 식당에 파견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연구생은 타조순대를 만들 때 밸이 두텁고 질겨 애를 먹었으나 온도를 낮게 주고 대신 익힘시간을 오래 주어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이것은 타조밸쏘세지만들기에서 걸린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열쇠였다.

돌아오는 즉시로 림정우와 콤퓨터에 달라붙은 수혁은 밤늦도록 기술지표를 뽑아냈던것이다.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생산을 하게 된다.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그는 여느때처럼 공장구내를 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밤새 한차례 비를 맞은 타조거리는 금방 세면을 하고난듯 모든것이 청신하고 생기로왔다.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꽉 들어찬 숲속은 그 각이한 모양과 색조로 제나름의 선명한 자태를 한껏 드러내였다. 갈라진 먹구름장사이로 불붙는듯 한 노을빛이 빨갛게 쏟아져나왔다.

산뜻하게 세멘트포장을 한 공장구내앞의 드넓은 바닥에서

는 뽀얀 젖빛안개가 늠실늠실 피여오르고있었다.

상쾌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걸음을 옮기던 수혁은 영예게시판에 사진을 붙이고있는 리태성비서의 모습을 띄여보고 그리로 향했다.

《2010년을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펴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자!》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자!》

힘있는 구호밑에 작업반별전투성과들이 대서특필되였다. 금방 써놓은듯 진한 색감이 채 마르지 않은 붓글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마냥 기백과 활력을 내뿜는다.

《도살반전투장에 혁신의 열풍 몰아친다.》, 《분육칼끝에 불꽃이 인다.》 이런 글발밑에 도살반원들의 작업모습과 분육공 박영혜의 독사진이 나붙었다. 푸른 작업복에 마스크를 끼고 분육칼로 고기를 분육하느라 여념이 없는 영혜의 모습을 어느새 포착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생동하면서도 자연스럽기 그지없다. 혼성축구경기를 하고났을 때 림정우가 영혜에게 분육전투에서 기록을 세우면 자기가 꿀을 먹은셈치겠다던 말이 생각난다. 정우가 이 자리에 서서 영혜의 저 사진을 본다면 심정이 어떠할가 생각하니 절로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러고보니 리태성비서가 역시 정치사업을 할줄 안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었다.

사진을 다 붙이고 선전화구통을 거두어들던 태성이 수혁을 띄여보고 반가운 웃음을 지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배인동지!》

《비서동무가 새벽부터 수골 하누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덕에 온 공장이 힘이 나서 달릴수 있는거지.》

《저야 뭘 하는게 있습니까? 그저 천마리전투는 제가 밀고나갈테니 지배인동진 설비개조와 제품개발을 다그쳐주십시오.》

《고맙소.》

수혁은 가슴이 뭉클해서 대답했다. 정말 고마운 당일군이였다.

문득 어제 아침 있은 일이 떠오른다.

그전날 저녁 화물차를 타고 후방물자를 실으러 농장에 갔다온 수혁은 덞어진 양복바지를 빠느라고 세면장에 갔다가 그만 최명금이한테 빼앗기고말았다. 그런데 아침에 옷을 찾아입으려고 녀성호실에 가니 명금이가 바지를 팔에 감아든채 쿨쩍쿨쩍 울고있는게 아닌가? 그앞엔 영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서서 같이 걱정을 하는지, 동정을 하는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소?》

《지배인동지, 바지를 다림질하다가 그만…》

영혜가 도톰한 입술을 걱정스레 삐죽 내밀고 하는 말이다.

그제야 방안에 천 타진 냄새가 나는걸 느꼈으나 조금 타다 말았겠지 하고 어서 달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바지를 펼쳐보던 수혁은 그만 아연실색했다. 다리미바닥크기만큼 뭉청 타없어진것이다.

《아니, 이건?!》

억이 막혀 욕도 나가지 않았다.

당장 회의 떠나야겠는데 갈아입을 옷도 가져다놓은게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지배인이 난처해하니 처녀들은 더욱더 속상해 어쩔줄을 몰라했다. 때마침 무슨 일인가 해서 다가왔던 리태성이 제꺽 웃으며 처녀들을 타이르는것이였다.

《뭘 고민하면서 그래? 지배인동지도 그 덕에 새옷 한벌 해입게 됐으니 차라리 잘됐지.

나도 구실없어 새옷을 못 해입는데 내 옷이나 좀 타뜨려줄게지.》

수혁은 그만에야 허허 웃고말았다. 비서의 말이 어처구니없는것 같으면서도 반박할수 없는 사실이였던것이다.

봄철에 들어와서 안해가 환한 색갈의 양복을 한벌 해놓았는데 수혁은 굳이 만류했었다. 그는 벌써 여러해째 봄가을외출복으로 입고다니는 연한 보위색빛갈의 옷 한벌을 꿰진데도 없는데 왜 버리겠는가고 하면서 그냥 입고다녔던것이다.

헌데 새로 해입는건 해입는거고 당장 관리국으로 회의를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것을 빌려입자 해도 풍채가 비슷한 사람이 없으니 난처한 일이다.

하는수없이 새까만 모직겨울양복을 갈아입고 회의에 참가했다. 그 덕에 집에 들어가 오래간만에 가족과 점심을 나누고 새 양복까지 입고나오게 되였던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제일 기뻐한 사람은 두말할것없이 리태성비서였다.

《참 멋있습니다. 이런걸 보고 화가 복이 됐다 하던가요? 하하…》

《고맙소. 비서동무가 아니였으면 그때 애꿎은 처녀에게 필요없이 욕설을 퍼부을번 하잖았소?

그런다구 뭉청 녹아떨어진 바지구멍이 다시 와붙는것도 아닌데 공연히 처녀를 상심하게 하구 제 점수나 떼울번 했단 말이요. 하하…》

《옛날부터 참자 세번이면 현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인

간의 수양은 참기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과정에 쌓아지는가봅니다.》

수혁은 리태성비서의 인간미에 재삼 탄복했었다.

도살반에서는 오늘도 뺄처리지원대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기세로 일손들을 다그치고있다.

분육반에 들어서니 정말 칼끝에서 불꽃들이 이는듯 하다. 여전히 제일 힘든 각뜨기공정을 도맡아안은 반장의 칼질속도부터가 번개같이 빨랐다. 시간을 재여보니 두짝(한마리분)을 해제끼는데 5분이 걸린다. 원래 기준은 5분에 한짝씩 하게 되여있으니 꼭 2배를 돌파하는셈이다.

반장의 번개같은 일속도는 마치도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돌격명령과 같았고 《순간도 딴눈 팔거나 잡생각하지 말라.》, 《칼질을 깐깐하게 해서 고기실수률을 최대한 높이라.》, 《칼질속도를 무조건 2배로 높이라.》는 강한 요구의 말없는 표현이였다.

모든 반원들이 그것을 따라하느라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이런 초긴장의 불꽃튀는 전투속에 온 공장이 매일 계획을 100프로 수행하고야마는것이다.

그러나 생활은 역시 생활이였다.

갓 결혼한 젊은 로동자는 잠이 모자라 충혈진 눈으로 뼈처리를 하다가 끄떡끄떡 졸기 시작한것이 끝내는 정육이 담긴 큰 통안에 주저앉고야말았다.

폭소가 터지면서 걸죽한 육담들이 몰방으로 날아간다.

《여! 새신랑! 야간작업을 했나?》

《안되겠습니다. 저 동문 이제라도 합숙생활을 시켜야지.》

《그러다 새색시가 앙탈부리면 어떡하지?》

《그렇다구 이 바쁜 때 야간작업을 계속하게 놔두면 안되

잖아?》
그때 잠을 완전히 깬 새신랑이 벌떡 일어났다.
《예? 오늘 밤 야간작업을 한다구요?》
또다시 웃음통이 터졌다.
《하하하…》
《으흐흐…》
수혁이도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가공반에서는 지금 타조밸쏘세지를 시험생산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쏘세지는 꼴바싸와 달리 고기량을 적게 하고 대신 닭알, 우유 같은 액체단백원료와 향료를 넣어 만드는데 그 특성이 있다.
림정우가 콤퓨터로 뽑아낸 지표대로 유춘삼은 모든 반원들이 정확한 조작공정을 지키도록 세밀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종이에 후추가루를 담아 전자저울에 따랐는데 피를 계산 안했다고 종이장의 무게를 다시 따르게 했다.
익힘온도와 시간을 콤퓨터조작함에 새로 기억시켜놓고 구이로를 가동시켰다.
오후 첫시간에 결과를 보니 타조밸의 질김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수혁은 림정우에게 타조밸을 따로 익힌 다음 원료를 넣고 재벌 띄우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었다.
림정우는 그게 좋겠다고 동의해나섰다.
제품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여갈수록 수혁의 머리속엔 조미료에 대한 근심이 더욱 무거워갔다. 윤국장이 어떻게든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쉬이 해결될 일은 아닌것이다.
수혁은 공예실을 거쳐 설비반으로 향했다.

26

야외등을 환히 켠 설비반 앞마당에서는 훈연발생로조립이 마감단계에서 결속되여가고있었다.

박수혁은 작업복차림에 용접면을 들고 마지막부분품의 용접을 결속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며칠밤을 꼬박 새운 그는 눈이 쑥 들어가고 충혈이 졌으나 긴장감에 피곤한줄도 몰랐다. 그는 오직 한시바삐 훈증로를 완성하여 제품시험을 해보고싶은 열망에 불타고있었다.

이밤으로 조립이 끝나면 훈연발생시험을 해보고 구이로에 송풍구를 뚫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작업이다. 과연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여줄것인지?

설비전문가가 아닌 수혁으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최경천이대신 림정우가 도면을 보면서 조립의 정확도를 보장하느라 애쓰고있다.

별안간 녀자의 챙챙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동지들! 좀 쉬여서 하십시오!》

배낭가방을 무겁게 메고 나타난 영혜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소리쳤다.

《야— 영혜동무, 또 후방사업 나왔구만.》

《이거야 일을 할수가 있나? 좀 해볼가 하니까 딱 나타나가지구 가슴설레이게 만들어?》

설비반원들이 싱글거리며 노죽을 부린다.

박수혁이도 영혜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짐짓 걱정스레 물었다.
《그러다 시집갈 밑천 다 거덜내는게 아니요?》
《걱정마십시오. 밑천없어도 데려가겠다는 남자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도래자로 부분품의 치수를 재여보는데 열중해있던 림정우가 불쑥 일어나 어디론가 급한 걸음을 놓는것이였다.
《아니, 연구사동지! 어디 갑니까?》
림정우는 손에 든 부분품을 가리키며 대꾸했다.
《이게 치수가 맞지 않아 그러오. 얼른 가서 다시 깎아오겠소.》
《야, 이걸 좀 들고가세요.》
영혜가 애원하듯 소리치며 따라나갔으나 림정우는 무뚝뚝하게 잘라 말했다.
《그럴새가 없소. 공무반에서 퇴근하기 전에 빨리 가야 하오. 어서 동무들끼리 하라구.》
《공무반엔 제가 갔다올게요.》
영혜가 맵짜게 들이대며 앞을 막아서자 림정우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동무가 뭘 알아서?! 우리가 깎아온것도 잘 맞지 않아 애먹는 정도요.》
그리고는 총총히 어둠속으로 사라져갔다.
영혜는 모욕감을 느꼈는지 그 자리에 굳어진채 어깨를 떨었다. 며칠전 휴식터에서 복숭아꽃을 보고는 시같은 소리도 곧잘 하더니…
정말 괴벽한 사람이야.

박수혁이 호탕하게 웃으며 처녀를 달래였다.

《하하, 거 사람두 참… 영혜가 리해하라구. 연구사동무 성미가 원래 저렇게 뻣뻣하다는걸 알지 않나? 그래두 속은 불덩어리같은 사람이야.》

《불덩이든 얼음덩이든 상관있습니까? 싫다면 그만두라지요.》

영혜의 앵돌아진 말에 모두가 유쾌하게 웃어댔다.

설비반원들은 연구사가 온 다음 함께 먹겠다고 음식꾸레미를 도로 꾸려주고는 작업에 달라붙었다.

영혜는 할수없이 배낭가방을 둘러메고 식당으로 갔다.

마침 식당근무처녀와 합숙생 최명금이 땀을 빨빨 흘리며 기름튀기를 만들고있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너희들도 후방사업준비를 하는거구나. 그런데 존경하는 연구사선생이 잡숴주겠다고 해야 말이지?》

《아닌게아니라 걱정이예요. 너무 힘드니까 입맛이 떨어졌는지 저녁식사도 얼마 못하더군요. 그래서 기름튀기라도 해드릴가 하구…》

《그랬댔구나.》

영혜는 어쩐지 가슴이 찌르르 울려옴을 느끼며 림정우의 수척해진 모습을 그려보았다. 실은 그도 주야 교대없이 훈증로조립장에 붙어살다싶이 하는 림정우가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달려나왔던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긴장했으면 끼니마저 번지고 처녀의 성의에 고마움을 표시할 여유마저 없이 뛰여다니겠는가. 그걸 리해 못하는 내가 옹졸했어. 더우기 오늘이야 조립을 끝내고 시험까지 해보아야 하는 날이 아닌가.

영혜는 배낭속의 음식들을 꺼내놓으며 처녀들에게 말했다.
《좋아. 오늘 전투가 끝나는걸 축하해서 우리 푸짐하게 연회상을 차리자. 연구사동지도 로시험이 성공하면 입맛이 부쩍 살아날거야.
어때? 명금이! 창광식당 료리솜씨 보여주어야지?》
《암, 그렇구말구요.》
최명금은 제 솜씨를 발휘하게 된것이 무등 기쁜듯 방글방글 웃으며 끓는 기름가마에 반죽을 맵시있게 뜯어넣는다. 크기와 모양이 한형타에 찍어낸듯 꼭같은 튀기들이 발가스름하니 익어 동동 떠올랐다.
《명금이가 정말 솜씨있는데?》
영혜는 진정으로 감탄했다.
《난 정말 기뻐요. 어떤 목적을 위해 밤을 새우고 땀을 흘릴수 있다는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예요? 이런걸 두고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맞아. 사람은 기꺼이 정력과 땀을 바칠수 있는 숭고한 리념과 목표가 있어야 해. 아무런 뜻도 없이 그날그날 먹고사는데 만족한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겠니? 말하는 동물에 불과하지.》
세 처녀가 이렇게 인생철학까지 료리해가며 음식준비를 요란히 하고있을 때 조립장에서는 뜻밖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병원에 입원해있던 최경천이 마감조립전투를 한다는걸 알고 며칠 앞당겨 퇴원해왔던것이다. 반원들이 자기네 반장을 얼싸안고 반가와 돌아가는 바람에 조립장은 한동안 들끓었다.
박수혁은 때마침 나와준 최경천이 눈물나도록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없지 않아 물었다.

《이렇게 나와도 일없겠습니까?》

《일없다뿐이겠습니까? 지배인동지, 정말…》

최경천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싶었으나 왜서인지 목이 메여 더 이을수 없었다.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락오자가 될번 했던 자신을 참전자의 대렬에 다시 이끌어준 지배인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수혁은 혈기와 신심에 넘친 최경천의 얼굴을 미덥게 바라보며 그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다.

《그럼 함께 해봅시다. 연구사동무와 함께 구이로에 설치할 송풍구의 위치를 확정해주시오.》

《알았습니다.》

두사람이 가공반현장으로 들어가고 수혁은 설비반원들과 함께 연통용접을 계속하였다.

박수혁이 용접을 끝내는것으로 훈연발생로의 조립은 마침내 완결되였다. 때는 어느덧 새벽녘이였다.

림정우가 훈연발생로에 연료를 장입하고 스위치를 넣었다.

발생장치안의 회전로가 돌아가면서 가열봉이 빨갛게 달아 연료를 태운다. 연통으로 려과된 연기가 하얗게 뿜어져나오며 나무잎타는 냄새를 풍긴다.

연기성분을 분석해본 림정우는 얼굴이 환해서 부르짖었다.

《이상없습니다! 지배인동지!》

《수고했소! 림동무!》

박수혁은 림정우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다시 긴장해졌다. 안도감에 사로잡혀있을새가 없었다.

설비반원들이 모두 달라붙어 훈연발생로를 밀차에 올려싣고 가공반현장으로 향했다.

구이로가 있는 방에 이르자 최경천의 주관하에 위치를 잡고 증기발생로와 나란히 설치해놓았다.

식당에서 일하던 처녀들도 어느새 알고 달려나와 어깨성을 쌓았다.

금속사다리를 놓고 구이로우에 오른 최경천이 송풍구 뚫을 자리를 표시하고났을 때 수혁은 그의 일손을 멈춰세웠다.

모두가 의아해서 긴장한 시선들을 모두고있는 속에서 수혁은 손전화기로 주병호를 찾았다.

《처장동지! 수혁입니다. 오늘 새벽 현재 훈연발생로 조립과 시험을 끝내고 구이로에 송풍구를 내려는 참입니다.… 예, 그래주면 고맙겠습니다.》

수혁은 전화기를 내리우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처장동지가 급히 떠나오겠다니 좀 기다리기요. 밤새 수고들 했는데 그새 쉬면서 요기를 합시다. 봉희, 뭐 좀 있겠지? 영혜도 이렇게 나왔을 땐 내용이 있을게구.》

《어련하겠습니까? 자, 식당으로 가십시다!》

잠시후 식당칸에는 처녀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상이 차려졌다. 토끼고기찜과 찰떡에 기름튀기는 물론 메기탕에 닭알지짐, 두부구이, 미나리나물, 염가두배추무침 등 《륙해공군》이 다 있었다. 나중에 영혜가 룡성맥주 세병을 내놓자 사람들은 환성을 터쳐올렸다.

《참 청년동맹비서동무, 이런 때 손풍금독주나 좀 들려주지.》

박수혁이 문뜩 생각난듯 청하자 모두가 박수로써 합세했다. 순간 림정우의 눈빛이 번쩍하며 영혜에게로 날아가는것을 수혁은 분명히 보았다. 안과병원에서 퇴원해오던 날 노래보급을 하는 영혜의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던 바로 그 눈

빛이였다.
영혜는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공장을 위해 힘써온 동지들을 위해서라면야 무슨 청인들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호실에 올라가 제꺽 손풍금을 메고 나온 영혜는 언제나처럼 지정곡 1번부터 시작했다.
풍낭이 쫙 펼쳐지며 전주가 울렸다. 청중의 심금을 대번에 틀어잡는 장중하고 풍만한 전주곡에 이어 노래가 시작된다.

…
병사들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쁘다시며
험한 산발 넘고넘어
찾아주시네

랑랑한 손풍금소리에 은은하고도 청청한 노래소리가 함께 어울려 참으로 이름할수 없는 감동을 자아낸다. 림정우는 그린듯이 앉아 명상에 잠겨있었다. 온넋이 신비로운 음악의 세계를 받아안고있었다. 노래와 함께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시원스럽고 기백있는 처녀의 매력이 그의 마음속에 그대로 흘러들고있었다. 아, 이런 처녀와 함께라면…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야말로 가장 리상적인 조화가 아니랴.
림정우는 자기가 왜 숱한 예술인들을 보아오면서도 이런 생각을 못했댔는지 이상스러웠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만일 영혜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현란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배우였다면 이렇게 마음끌리지 않았을거라고… 바로 군

인출신의 로동자처녀이며 헌신의 정으로 이미 마음속에 깃든 처녀이기에 그가 부르는 노래가 이토록 매혹적인것이 아니랴.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이 미처 감탄을 표시할새도 없이 노래는 련속 이어졌다. 때로는 밝고 경쾌한 독주곡으로, 때로는 힘있고 박력있는 반주곡으로 모두가 저도 모르게 따라부르게 했다. 어찌나 심취들이 되였는지 주병호처장이 탄 차가 와멎는것도 몰랐다.

주병호도 역시 처녀의 놀라운 연주솜씨에 한동안 넋을 잃고 서있었다. 체소하고 볼품없다고 여겼던 로동자처녀에게 저런 매력이 있을줄이야…

이제 와선 처녀가 정우를 마음들어하기만 한다면 자기도 기꺼이 동의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드디여 노래가 끝났다.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함뿍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는 처녀의 얼굴에서 지친 기색이란 찾아볼수 없었다. 오히려 자기의 연주를 주의깊이 감상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것이였다. 그러다가 주병호를 알아보고 《어마나! 처장동지 오셨습니다!》하고 반갑게 소리쳤다.

《수고들 했소!》 모두거리로 인사를 하고난 주병호는 최경천을 보자 그의 몸상태부터 물었다.

다 나았다고 했으나 주병호는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이번 일을 치르고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각근히 권고했다.

그런 다음에야 설계도면에 대한 최종검토를 하고 조립완성된 시험용훈연발생로의 작용상태를 확인하였다.

곧 송풍구를 내는 작업이 시작되였다.

주병호를 립회인으로 하고 박수혁과 림정우, 설비반원 두

명을 조수로 한 말그대로의 수술전투였다. 메스를 든 최경천의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줄기져흘렀다. 거대한 용량을 가진 현대적설비가 새형의 보다 현대적인 설비로 갱신되느냐 아니면 반신불수의 기형아로 전락되느냐 하는 운명적인 순간이였다.

산소기구를 리용하여 불고 붙이고 하는 작업이 무려 한시간이나 계속되였다.

마침내 수술을 끝냈을 때 집도자의 온몸은 땀에 젖어 물주머니가 되여버렸다. 허약한 몸이 견디여내겠는가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던 박수혁은 사다리를 타고올라 연통을 송풍구에 끼워맞추는 작업을 거들어주며 최경천을 힘껏 부축해주었다.

최경천은 괜찮다는 표시로 머리를 저어보였다.

훈연발생로에 다시 연료를 장입하고 가열봉을 달구어 연기를 산생시켰을 때 구이로의 기능에서 변화가 없음을 콤퓨터수자조종장치를 통해 확인하고나서야 최경천은 긴장을 풀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주병호가 달려와 그를 힘껏 안아일으켰다.

《최동무, 정신차리오!》

최경천은 스르시 눈을 뜨고는 입가에 웃음을 담으려고 애썼다.

《괜찮습니다. 너무 긴장했던탓에…》

박수혁이 어느새 예견성있게 대기시켜놓았던 목장진료소장을 데리고 나타났다. 포도당을 점적하여 최경천은 이내 원기를 회복했다.

주병호는 비로소 얼굴이 환해서 최경천을 와락 끌어안았다.

《축하하오, 최동무! 끝내 성공했구만!》
뿌듯한 격정이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올랐지만 더이상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27

《뭐? 훈증로가 완성됐다구? 오늘 첫 시험생산을 한다? 알겠소. 내 곧 나가겠소.》
흥분한 윤재철은 송수화기를 놓자 다급한 걸음으로 층계를 달려내려갔다. 이런 때 보면 그는 경제일군이 아니라 세계패권을 다투는 체육선수같아보인다.
앞마당에 새하얀 소형뻐스가 대기하고있었다.
그렇잖아도 기쁜 일이 있어 공장에 나가려던 참이였는데 때마침 희소식이 날아온것이였다.
윤재철은 자기 몸의 한부분과도 같은 구이로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겠는지 몹시도 궁금했다.
처음 주병호와 박수혁의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이 문제를 위임해놓고도 항시 마음은 불안했었다.
과연 이 정형수술이 가능할것인가? 실패할수 있는 확률은 없는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한다.
윤재철은 믿어지지 않을만큼 놀라왔고 기쁨 또한 말할수 없었다.
어느덧 공장에 이르렀다.

박수혁지배인과 주병호처장이 급히 마주나왔다.

점심시간이여서 현장안은 조용했다. 세사람은 위생복에 위생덧신을 신고 원격조종화된 출입문들을 두세번 걸쳐 가공반작업장에 들어서자 곧추 구이로가 있는 칸으로 향했다.

드디여 그들의 눈앞에 희한하게 변모된 새로운 구이로설비가 안겨왔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장치가 덧붙은 구이로였다.

윤재철은 흥분을 눅잦히고 우선 멀리서 뒤짐을 진채 외형부터 부감해보았다.

대형랭동기 넉대쯤 합친것만 한 구이로의 오른쪽옆에 본체의 삼분의 일 높이의 증기발생로와 나란히 그와 꼭같은 크기의 훈연발생장치가 붙어있는데 훈연발생로에서 곧추 뽑아올린 연통이 구이로웃면의 배풍구와 수평으로 련결되여있었다.

조형적으로 보아도 아주 멋있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는데 보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덧붙인감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었다는 점이였다.

윤재철은 혹시 자기 눈에 허상이 오지 않았는가 해서 이번엔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 구이로본체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내열성불수강으로 되여있었으며 련결부위가 어디인지 가려보지 못할 정도였다.

박수혁은 국장에게 훈연발생장치의 구조와 작용원리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훈연, 증자, 건조, 랭각, 연기려과장치… 모든것이 훌륭하게 갖추어졌다.

《지배인동무! 수고했소. 아주 멋쟁이로 만들었구만.》

윤재철이 더없는 만족을 표시했다.

《저보다도 이 처장동무 역할이 컸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

계공장들을 다 찾아다니며 이렇게 손색없이 만들어왔습니다.》
박수혁이 자기를 내세워주려 애쓸수록 주병호는 지난날에 대한 자책감이 더욱 컸다.
《아니, 저야 겉모양이나 관심했지 실지 시험로를 만들어 설계를 완성한건 지배인동뭅니다. 사실 지배인동무가 아니였다면 전 아직…》
《허허… 어쨌든 좋소! 결국은 두사람이 내용과 형식을 각각 맡아 해결한셈이구만. 동무들의 고심어린 노력으로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통일을 이룬 성공작이 태여났소. 우리의 구이로가 이제는 세상에 내놓고 당당히 소리칠수 있는 최신설비가 되였단 말이요.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제품의 질이 문제요.
오늘 첫 훈연제품시험생산을 한다지?》
《예, 이제부터 태양절까지 전투를 벌려 24가지의 가공제품개발을 완성하자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천마리전투를 벌리면서 가공제품까지 동시에 밀고나간다는게 쉽진 않을거요.
하지만 그 두가지 전투임무가 다 인민생활향상과 잇닿아있다는걸 명심하고 꼭 성공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신심에 넘쳐있는 박수혁과 주병호를 미덥게 바라보던 윤재철이 문득 의미깊은 어조로 말했다.
《동무들! 오늘은 경사에 경사가 겹친 날이요. 어서 밖으로 나갑시다.》
두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서 따라나갔다.
마침 오후작업시간이 되여 현장으로 나오던 로동자들도 웅기중기 모여왔다.

윤재철은 방금 타고온 소형뻐스를 가리켰다.

《저기 내가 무엇을 싣고왔는가 보시오.》

사람들은 뻐스차창너머에 쌓인 지함들을 의아해서 바라볼뿐 그 자리에서 움직일념을 하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별스레 숙연한 표정을 지은 국장에게로 다시 쏠렸다.

사람들을 둘러보던 윤재철이 마침내 격정에 젖은 목소리를 터치였다.

《동무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고기가공에 필요한 귀중한 조미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

너무도 놀라운 사실에 모두가 멍청해 서있었다.

윤재철은 계속했다.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외화를 들여 사온 고급조미료와 첨가제들을 우리 타조고기가공공장에 돌려주셨단 말입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제야 마비되였던 감각이 풀린듯 수혁의 떨리는 입술에서 흐느낌소리같은것이 새여나왔다.

《장군님께서!… 조미료를!…》

두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어리며 목이 울컥 메여왔다. 격정을 삼키느라 애쓰던 그가 마침내 소형뻐스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갔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모두가 우르르 밀려갔다.

뻐스안에는 각이한 포장의 지함들이 수십개나 줄지어 쌓여있었다.

수혁은 지함들을 두팔가득 안아보고 쓸어보며 감격에 겨워 울먹이였다.

《장군님! 장군님의 이 사랑에 우리 어떻게 하면 다 보답할수 있겠습니까? 인민의 행복을 위하시는 그 사랑과 로고의 뜻을 우리 언제면 따를수 있단 말입니까? 장군님! 으흑…》

둘러섰던 사람들도 흑흑 소리내며 어깨를 세차게 들먹이였다.

삽시에 온 마당이 감격의 바다가 되였다.

주병호가 젖어드는 눈을 훔치고나서 사람들앞에 나서더니 갈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동무들!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의 조미료를 받아안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과연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높이를 얼마나 알고 받들어왔는가? 우리 인민에게 맛좋은 타조고기가공품을 먹이시려는 장군님의 념원은 이렇게 열렬하고 극진하고 뜨겁다는것을 우리 다 알았는가 말입니다!》

또다시 뜨거운것을 꿀꺽 삼키고나서 그는 저으기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책하듯 말했다.

《공장을 담당한 저자신부터가 몰랐습니다.

몰랐기때문에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도로 이 심장을 끓이지 못했습니다. 장군님의 그 념원을 꽃피워야 할 전사로서 장군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깡그리 태우며 아글타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감동에 넘친 목소리와 함께 자책어린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을 욕해주십시오.》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감정파인 분육반장이 뜻밖의 제의를 했다.

《국장동지! 우리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잘하겠다는 맹세의 편지를 써서 장군님께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가공반장이 얼른 호응해나섰다.

《감사의 이 마음을 편지로 올립시다!》

너도나도 그러자고 호응해나섰다. 윤재철의 의미있는 눈빛이 박수혁에게로 날아갔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수혁은 마침내 쇠소리나는 목소리로 웨치였다.

《동무들! 감사의 편지, 맹세의 편지를 올리자는 동무들의 제의에 나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조고기생산자들로서 편지를 올릴뿐아니라 바로 타조고기제품생산성과로 보답하자는것입니다!》

《예!》

의미심장한 그 말에 모두가 숨소리마저 죽이였다.

《우리는 이번에 장군님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받들고 설비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특색있는 우리 식 타조고기가공조법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조미료를 가지고 최상의 질이 보장된 타조고기제품을 정히 만들어 태양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리자는것입니다!》

《좋습니다!》

폭풍같은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모두가 공장이 떠나갈듯 박수를 치며 기뻐 어쩔줄 몰랐다.

서로 마주보는 박수혁과 주병호의 두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번쩍였다.

28

해가 지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진한 송진내가 풍겼다. 모든것이 황혼빛에 물들었다. 우중충한 나무숲의 검푸른 색조우에 발가우리한 하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아득히 펼쳐졌다. 그 노을의 바다우에 암회색의 띠구름이 층층이 비껴가고 저 멀리로 뭉글뭉글한 재빛구름덩이들이 타래져 떠간다.

휴식터의 대리석의자에 점도록 앉아 저녁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영혜의 눈가에 스러져가는 황혼빛과도 같은 쓸쓸한 우수가 비껴있었다.

(저녁노을은 저렇게 사라져가도 아침이면 다시 붉게 피여나 밝은 아침을 펼쳐주겠지. …)

영혜의 입에서는 한숨이 호― 새여나왔다.

오늘 공장에서는 24가지 타조제품의 마지막시험까지 성공하여 축하연을 베풀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에 휩싸여있었으나 오직 영혜만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홀로 속을 썩이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의 축하연이란 결국 림정우와의 송별연이기도 한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모퉁이에 와서 그는 또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에 부닥쳐 헤여날수 없는 심연속에 빠져버렸다. 오래간만에 집에 온 경공대삼촌이 별나게 싱글벙글 웃으며 식료연구사가 어떤가고 물었다. 괜찮다고 했더니 저녁에 집에 데려오라고 한다. 그가 바로 삼촌이 이미 소개했던 경공대졸업생이라지 않는가!…

문득 합숙건물쪽에서 또각또각 구두소리가 가까와온다. 보지 않고도 명금이라는것을 알았다.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왜 집에 안 가구 이러구있어요?》

《어쩐지… 오늘은 집에 가고싶지 않구나.》

《영혜동지!》

명금이 불현듯 동정어린 소리로 부르며 옆에 꼭 붙어앉는다.

《난 무엇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요.》

《얘두 참,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아이, 그럼 내가 맞춰보라요? 연구사동지와 헤여지기 서운해서 그러지요?》

영혜는 웃으며 귀여운 처녀를 꼭 껴안았다.

《넌 알아야 필요없는 일이야.》

《왜 필요없나요? 영화에서랑 보니까 향단이역할이 중요하던데…》

《그건 둘이 서로 련정을 품고있을 때 다리가 필요한거지.》

《그럼 짝사랑한다는거예요?》

《어마나, 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가 누굴 짝사랑한다구?》

《다 알아요, 연구사동지를 마음속깊이 사랑한다는걸.》

《얘, 큰일날 소리 말아. 누가 듣겠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쟁취하라!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는데 자존심쯤이야 왜 꺾지 못하겠나요?》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사랑을 쟁취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아니구.》

《그럼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 품은 감정을 어떻게 하면 지워버리겠는가 하는 문제지.》

《아니, 지워버린다는건 또 뭐예요? 사랑의 감정이야말로 인간을 아름답게 해주는 가장 고상한 감정인데… 사랑없는 인간은 목석! 즉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감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왜 지워버려요?》

영혜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지워버려야 해. 그런데… 너무도 괴롭고 힘겹구나.》

《내가 이자 지배인동지방을 지나오다가 얼핏 들은 소린데 지배인동지가 연구사동지더러 〈그래서 내 생각은 림동무가 여기 공장기사로 아주 떨어질수 없겠는가 하는거요.〉 이러지 뭐.》

《뭐? 그래서?》

영혜가 반사적으로 놀라 묻자 명금은 침을 꿀꺽 소리나게 삼키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연구사동진 한참만에야 뜨직뜨직 대답하더군요.

〈그 문제는… 제 독단으로 결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소에 들어가서 토론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알만해, 다 알만해!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 …》

영혜는 괴롭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떨구었다.

얼마전 지배인에게 자기의 속타는 마음을 하소연한것이 후회되였다. 왜 우울해지고 못쓰게 되는가고 걱정스럽게 묻는 바람에 왈칵 설음이 북받쳐 어쩔수없이 눈물을 쏟으며 고백했었다.

《지배인동지, 이런 땐 어쩌면 좋습니까? 본인한텐 말할수 없고… 말 못하고있자니 속이 재가루되는것 같지.》

《그래, 정말 연구사가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들면 뭘합니까? 어차피 떠나가야 할 사람인데… 글쎄 그런 사람을 왜 단념할수 없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심정을 설명해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박수혁은 목수건을 비틀어쥐며 울음을 씹어삼키는 영혜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도 처녀의 심정을 몰라주어 증오와 원망을 사던 시절이 있었소. 명백하게 말할수 있는건 처녀가 진정으로 끝까지 따른다면 사랑은 꼭 이루어진다는거요.》

하지만… 지배인의 권고에 림정우는 어떻게 대답하고있는가?

영혜의 기분에 감염된듯 시무룩해 앉아있던 최명금이 별안간 활기를 띠고 대책안을 내놓았다.

《음— 내 생각에는 말이예요. 이제라도 대담하게 만나서 〈사랑한다. 동지없인 못살겠다. 여기서 살자.〉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면서 뜨겁게 감정조직만 한다면 아이, 목석이 아니구야 왜 심장이 꿈틀하지 않겠어요?》

《호호… 얘두 참, 네가 생각하는것처럼 세상일이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니?》

《야—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이때 2층에서 《명금이!》하고 찾는 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예—》

명금은 챙챙한 소리로 대답하더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하고 다짐까지 받고서야 콩콩 달려갔다.

영혜는 그 모양을 정겹게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또 한숨을 쉬였다.

자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간이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아, 생활이란 참말 야속하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다니… 이렇게 훌쩍 떠나가버릴 사람을…)

자기의 뜻을 거역하고 어느새 가슴속에 깃들어버린 림정우의 존재가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만 했다. 차라리 한시바삐 그가 떠나가버리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마음의 안정을 찾을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혜는 이런 생각을 하니 다소 기운이 생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을의 잔광마저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공간을 뒤덮었다. 우중충한 숲의 설레임소리가 울적한 심사를 더해주었다.

공장정문을 나서 대도로에 들어서려는데 앞에서 누군가 손전지를 비쳤다. 눈이 부셔왔다.

영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예요?》

《놀라지 마오, 림정우요.》

《예에?》

영혜는 심장이 뚝 멎는듯 했다.

그다음엔 가슴이 높뛰기 시작했다.

이 사나이가 무엇때문에 아닌밤중에 처녀의 앞길을 막아선것일가? 이밤 자기 신상에 어떤 비상히 큰 일이 닥칠것만 같은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나기 시작했다.

그는 림정우가 이미전부터 해오던 생각을 박수혁지배인과

의 진지한 담화끝에 마침내 확정지었다는것을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인차 떠나야겠기에 얘기나 좀 나누자고 기다렸소.》

떠난다는 소리에 영혜의 흥분은 차겁게 가라앉았다. 본의 아닌 쌀쌀한 말이 튀여나갔다.

《저를 함정에 더 깊숙이 빠뜨리고싶은게지요?》

《허허… 내가 그렇게 고약한 놈으로 보였는가?》

아니라고 대답하고싶었다. 작별을 해도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뜨겁게 작별하고싶었다. 허나 그래선 안되였다. 영혜는 랭정하게 리성을 가다듬으며 빠른 속도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보폭이 넓은 림정우의 걸음을 앞서낼 재간은 없었다.

그들은 잠간새 대도로를 건너 사택마을로 들어가는 강뚝길에 들어섰다.

영혜는 이러다 정말 집에까지 이 사람을 달고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걸음을 멈추었다.

앞에 달빛을 안은 강물이 소리없이 흐를뿐 주변은 고요했다. 우거진 나무그림자가 그들의 형체를 감싸주고있었다.

《저는 실용성이 없는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나 역시 시간을 무척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직선적으로 말합시다. 나는 림정우라는 인간에 대한 영혜동무의 견해와 립장을 알고싶소.》

《서로 좋은 감정을 품고 헤여지자 그 소린데 저는 연구사동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란 품어본적도 없고 표현한적도 없어요.

제가 연구사동지의 사업을 크게 돕지는 못했어도 성심껏 받드느라 애썼다는건 아마 거기서도 인정하실텐데요?》
《그렇다면 영혜동문 나와 일생을 같이할수 있소?》
《?!》
마른 벼락이 떨어졌다면 이렇게 놀라우랴.
영혜는 한순간 흠칫했다가 픽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롱담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수가 없었다.
《전 집에 가야겠어요.》
그런데 림정우가 별안간 영혜의 손목을 세괃게 틀어쥐며 앞에 마주섰다.
《동문 내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소.
그래, 나를 사랑하는가?》
영혜는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듯 했다. 당장 흉벽을 박차고 심장이 튀여나올것만 같았다.
이때까지의 림정우와는 전혀 다른, 불을 뿜는듯 한 두눈을 두렵게 일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아니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난 절대로 동무에게 시집갈수 없어요!》
《거짓말! 동문 지금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있소. 난 전번에 안과병원 기술부원장선생님한테서 동무가 한 말을 전해듣고… 날 사랑한다는걸 알았소. 영혜! 그때부터 난…》
영혜는 깜짝 놀라며 림정우의 손을 뿌리쳤다. 알수 없는 힘이 자신의 감정을 거역하며 단호히 머리를 흔들게 했다.
《아니예요. 그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였어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줘요!》
《그렇다면… 나에게 자기 각막을 떼주겠다던 그 말도 거

짓이였소?》

《…》

《솔직히 말해주오. 이제와서 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는지? 왜? 내가 타조목장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림정우의 물음은 이상하게도 영혜의 억눌렸던 가슴을 긍지감으로 부풀게 해주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전 타조목장을 떠날수 없어요. 여기엔 저의 긍지가 있고 꿈이 있고 인생전부가 있으니까요.》

《만일 내가 여기로 아주 돌아온다면?》

《동무가요?!… 무엇때문에요?》

《타조산업화에 나의 지식과 기술, 나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고싶어서.》

이지러진 마음으로 빈정대던 영혜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듯 눈을 올리뜨고 림정우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게… 그게… 진심인가요?》

림정우는 불타는 눈으로 내려다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영혜는 겨우 기여드는듯 한 목소리를 짜내였다.

《그럼… 전…》

영혜는 신음하듯 뇌이며 몸을 옹송그렸다. 그다음엔 쓰러질듯이 비칠거렸다.

림정우는 영혜를 다잡아주며 말했다.

《영혜! 동문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간직되였소!》

영혜의 몸은 불덩이같이 달아올랐다.

달디단 바람이 불어왔다.

29

태양절.

진달래꽃, 살구꽃이 만발한 수도의 거리거리는 명절일색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였다.

새로 개건된 창광음식점거리에도 명절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흐름이 꽃물결을 이루었다.

산뜻한 회색봄가을양복에 붉은 바탕의 줄무늬넥타이를 맨 림정우는 반회장저고리치마를 우아하게 차려입은 박영혜와 나란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들은 오늘 약혼식을 하고 사진을 찍으러 나왔던 길이다.

얼마쯤 떨어진 뒤에서는 사진기를 멘 주병호와 사돈이 된 영혜 삼촌이 이야기를 나누며 따라오고있었다.

《사실 제 동생으로 말하면 나이가 차도록 처녀 하나 사귀지 못해 부모들의 속을 은근히 태웠더랬지요. 저도 동생의 결혼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짝을 골라주는 일이 큰 걱정거리였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생님덕분에 이렇게…》

《허허… 정우연구사야 내가 잘 알지요. 대학 전기간 강의실과 도서관밖에 몰랐으니까… 목표가 남달리 높았으니 언제 처녀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겠소?

과학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한텐 다심하고 사려깊고 리해심많은 처녀가 필요할거라고 생각했지요.

우리 영혜가 대학공부는 못했어두 군인출신에 인정미 있구 속이 깊은 처녀라 과학자의 한생을 능히 뒤받침해줄수 있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요.

헌데 글쎄 영혜쪽에서 먼저 퇴를 놓을줄이야. … 정우연구사가 마침 공장에 나갔으니 정이 통했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로처녀로 이 삼촌의 근심거리로 남아있을게 아니겠소? 허허…》

《그러구보면 지향과 리상이 높은 청년들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공동의 길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가 봅니다.》

《옳소. 그게 바로 생활의 법칙이고 진리요.》

한편 림정우와 박영혜도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고있었다.

《전 정말이지 뜻밖이였어요. 글쎄 중앙연구소의 연구사인 림동지가 공장에 떨어질줄이야. …》

《실은 나도 그 갈림길에서 고민이 컸더랬소. 남자의 인생목표는 사랑 그자체가 아니거던.

사랑의 갈망은 이겨내기 힘든것이였지만 나는 내가 도달해야 할 과학탐구의 높은 목표가 연구소에 있다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실은 그래서 영혜앞에 나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 애썼던거요.

보다 큰 일을 위해 요동치는 청춘의 피를 굳이 식혀야 한다고 생각했댔소.

그런데… 지배인동지가 아니였더라면 아마 난 이런 운명적인 결심을 내리지 못했을거요.》

《지배인동지가요?!》

영혜는 새삼스레 놀라서 되뇌였다.

《그렇소. 지배인동진 내가 마음속으로 영혜를 사랑한다는걸 이미 알고계셨소. 그리고 영혜도 날 사랑한다는걸…

지배인동진 우리 두사람의 행복을 위해 영혜를 내게로 떠밀어보낼수도 있다고 하시더구만. 그러면서 인간의 참다

운 리상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진심으로 깨우쳐주시는것이였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시려 여기에 대규모의 목장과 현대적인 고기가공기지를 일떠세워주신 이야기로부터 한해에도 수십차례씩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고계시는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다 이야기해주었소. 정말 많은걸 생각하게 되였지.

그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인민의 생활을 최상의 높이에로 향상시키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대하여, 그 높으신 뜻을 하루빨리 꽃피울 일념으로 온 심신을 깡그리 태우는 지배인동지의 불같은 마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길에서 청춘의 행복도, 인생의 보람도 다 찾으며 살려는 영혜동무의 순결한 마음에 대하여…

나는 당의 품속에서 대학공부를 한 고기가공전문가로서 마땅히 우리 나라의 타조가공업을 세계 최첨단수준으로 이끌어올리는데 나의 지식과 기술, 한생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야 함을 깨닫게 되였소. 바로 이 길에 우리의 사랑도 행복도 아름답게 꽃펴난다는것을 말이요.》

《정우동지!…》

영혜는 가슴가득 넘쳐나는 행복감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자기를 위해 마음을 쓴 박수혁지배인이 더없이 고마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구수한 타조장국냄새와 코를 찌르는 타조불고기냄새가 풍기는 타조료리전문식당에로 향하고있었다. 이 뜻깊은 날 인민의 기쁨이 꽃피는 타조료리식당을 배경으로 사진 한장 찍고 자기들의 땀이 깃든 타조료리로 점심식사를 하자는 주병호의 발기에 따른것이였다.

류별나게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타조료리전문식당가까이에 거의 가닿았을 때였다.

림정우가 문뜩 멈춰서며 놀란 소리를 쳤다.

《가만! 저게 누구요?》

《어디? 어느 사람말이예요?》

영혜가 두리번거리자 정우는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기… 창문으로 식당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말이요.》

《아니? 지배인동지가?…》

영혜의 입에서 놀라움에 찬 외마디소리가 흘러나왔다. 글쎄 풍채도 남다른 박수혁지배인이 식당창유리에 거의 이마를 맞붙이다싶이 하고 꺼꺼부정하니 서서 정신없이 안을 들여다보고있지 않는가? 더우기 희한한것은 무슨 좋은 구경을 하는지 벌어진 입을 다물줄 모르고 혼자 흐물흐물 웃고있는 모습이였다.

《정말 놀라운데? 내가 공장에 온 몇달이래 지배인동지가 저렇게 웃는걸 처음 보누만.》

《전 이태만에 처음이예요. 뭘 봤기에 저리도 좋아하시는걸가?》

그들이 이상해서 멈춰선 사이 주병호와 영혜 삼촌도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도 지배인의 어울리지 않는 모양을 보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혹시 머리가 잘못된게 아니야? 하도 신경을 쓰더니…)

주병호에겐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무엇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라면 잠간 들여다보고 물러설것이지 왜 그냥 늘어붙어있겠는가? 넋을 잃은 사람처럼, 무엇에 빨려드는 사람처럼… 더우기 혼자서 히죽히죽 웃는 저 모양이야말로 정상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과묵하고 내성적

인 박수혁이… 신경소자가 하나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수 있단 말인가?

한편 겁도 나고 한편 걱정도 되여 어찌할바를 모르고있는데 림정우가 다가가며 불렀다.

《아니, 지배인동지! 여기서 뭘 보십니까?》

《오―림동무요? 마침 잘 왔소. 자, 여기 와서 좀 들여다보오. 어떤가?》

박수혁은 기다리기라도 했던듯이 못내 반가와하며 림정우를 끌어당겼다. 혼자 보기 아쉬웠던 모양인가? 봐야 식사하는 사람들이겠는데 왜?…

주병호도 호기심에 끌려 그쪽으로 다가섰다.

종이테프들이 줄줄이 드리우고 은은한 서정음악이 흘러나오는 넓은 실내의 수십개 식탁들마다에 타조고기장국밥과 타조불고기판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들의 기쁨넘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머리 흰 로인들로부터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동의 흔적인듯 얼굴빛이 검스레 탄 골격굵은 사나이들과 얌전해보이는 녀성들도 있었다.

《저기 중절모 쓰고 개화장 짚고 나오는 로인이 보이지?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동지요. 나이가 80인데 얼마나 혈기와 정력이 넘쳐보이오? 우리가 생산하는 타조고기가 비전향장기수동지들의 건강장수에도 도움을 주게 되였단 말이요.》

림정우와 박영혜는 기쁨에 넘친 지배인의 말을 들으며 서로 눈물이 글썽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리구 이쪽에 앉은 회색저고리 입은 할머니 있잖아? 우리 아빠트 한 현관에 사는 동화력로동자의 어머닌데 올해 일흔이요. 저렇게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같이 와서 식살 하는구만. 얼마나 기뻐하는가 보란 말이요. 주름살이 금

시 펴지는것 같애.》

주병호는 오늘따라 입이 헤퍼지고 다사해진 박수혁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뭉클함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나 기뻤으면 주위세계를 다 잊고 천진한 어린애처럼 저러는것일가? 그가 지금껏 그렇게도 고생을 사서하며 아글타글 해온것이 이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였단 말인가?

그러자 자연히 자기의 경우를 돌이켜보게 되였다. 나는 언제한번 이런 날, 이런 순간의 기쁨을 그려본적 있었던가? 힘들 때마다 이런 광경을 그려보며 일해본적이 있었던가? 주병호는 자기와 박수혁의 차이를 이제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되는것 같았다.

《저걸 보라구. 그릇도 얼마나 멋있나? 반들반들 윤기나는게. 그속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여오르는 타조고기국, 보기만 해도 달고 구수하지 않소? 저 접시들에 무둑무둑 담긴건 우리가 만든 남새꼴바싸요. 타조고기에 완두콩과 홍당무를 섞어 만든거. 야—저 사람들 좋아하는거 좀 보라, 응? 아니, 저 불고기 먹는 사람들은 또! 셋이 먹다 둘 죽어도 모르겠는걸, 하하…》

박수혁이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할수록 주병호는 자책감에 눈물이 났다.

림정우와 영혜도 뜨거운것을 삼키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지배인의 소원, 기쁨, 행복이 바로 이것이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냥 가슴을 쳐서였다.

영혜가 목메인 소리로 말을 비쳤다.

《지배인동지! 이렇게 서서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어서 들어가 식사를 하십시다.》

《얼마나 좋소!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타조고기를 먹으

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게…

이런 날을 보자고 우리가 애써 일하는게 아니요? 난 정말이지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게 먹는것보다 더 배부르구만.》

그 말에 주병호는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사람두 참, 자넨 대체 뭘루 빚어진 사람이길래 이 모양인가!》

《아, 처장동지도 나오셨습니까? 그러구보니 내가 그만 림동무네 약혼식 축하하는걸 잊었댔구만.》

《그럼 저희들을 축복해주시는 의미에서 사진 한장 찍읍시다.》

《그래야지!》

두 젊은이가 박수혁의 량옆에 와서자 주병호가 사진기를 들고 나섰다.

《가만, 〈타조료리전문식당〉이라는 이 간판이 배경에 꼭 나와야겠는데?》

《걱정말라구. 자, 웃기나 하게.》

세사람은 만시름을 잊고 활짝 웃었다.

그날 밤 박수혁은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하나의 소원이 간절히 불타고있었다. 타조고기를 맛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이날을 마련해주신 장군님께로 생각은 달려가는것이다.

어제까지 천마리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내는것과 함께 24가지의 타조고기가공품을 전부 완성한 그들은 정히 포장한 시제품들을 오늘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그것은 타조고기가공공장 전체 종업원들의 열화같은 심정이 담긴, 장군님께서 공장에 안겨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편지,

보답의 편지였다.

장군님께서 우리들이 만들어올린 고기제품을 맛보아주셨을가? 온 한해 초강도강행군길에 계신 장군님께서 태양절이 아침 한끼만이라도 타조고기가공품을 맛있게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가? 소원으로 불타는 하루낮, 하루밤이 또 흘렀다.

4월 17일 아침은 그렇게 밝아왔다.

오전 10시경에 윤재철국장이 차를 타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흥분이 어려있었다. 우둥부둥한 얼굴에 가늘게 뜬 눈이 심상치 않은 빛으로 번뜩이는것이 어쩐지 성난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무슨 일일가?

한순간 박수혁의 가슴은 긴장으로 얼어붙는것 같았다. 리태성비서도 불안한 눈길을 보냈다.

그런데 국장의 입에선 뜻밖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배인동무, 기뻐하오. 어제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들이 만들어올린 타조고기가공품을 몸소 맛보아주시고 맛이 참 좋고 포장도 잘했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소.》

《예?! 그게… 정말입니까?!》

박수혁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두눈에 뜨거움이 왈칵 샘솟았다. 리태성도 흥분하여 그의 손을 꽉 잡아쥐였다.

윤재철이 격정에 넘쳐 부르짖었다.

《그렇소. 장군님께서는 여러 단위에서 만들어올린 식료제품가운데서 확실히 타조고기제품이 아주 좋다고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오.》

《장군님께서… 정말 그렇게까지 기뻐하셨단 말입니까? 국장동지!》

수혁은 그만 목이 콱 메여 머리를 숙였다. 너무도 과분한

치하에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나도 방금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구 너무 기뻐 이리로 달려나온 길이요. 지배인동무! 비서동무! 정말 수고가 많았소.》
윤재철국장이 두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아흔들었다.
수혁은 북받치는 울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못했다. 눈앞엔 뽀얗게 물안개가 서리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껏 감격의 오열을 터치고싶을뿐이였다. 아! 종업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랴!
그들과 한시바삐 기쁨을 나누고싶었다.
윤국장은 숙연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이 진귀한 타조고기가공품을 우리 인민에게 맛보이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 태양절을 맞으며 시내 식당들에 타조고기를 공급하게 했는데 다들 좋아할거라고 거듭 만족해하시였소. 그러시면서 앞으로 평양시뿐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타조고기를 맛보이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타조가금업은 21세기의 리상적인 가금업이라고 또다시 확신성있게 말씀하시였다오.》
수혁의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심장이 마냥 높뛰였다.
장군님 펼쳐주신 21세기의 리상적인 가금업!
눈앞이 황홀해진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무리져 뛰여노는 타조떼의 모습이 안겨온다. 농촌마을 집집의 뜨락가에서 춤추며 재롱부리는 새끼타조들이 보인다. 곳곳에 일떠선 타조고기가공기지들에서 폭포처럼 쏟아져나온 가공품들이 집집의 식탁마다 흘러간다.
아!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 눈앞에 다가오는가! 만수대

거리와 같은 리상거리에서 비단옷을 입고 진귀한 과일에 진귀한 고기를 먹으며 살게 된 우리 인민의 행복이여!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저절로는 오지 않는다.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장군님의 리상을 자기의 리상으로, 자기 삶의 목표로 내세우고 그 리상의 언덕에 오르기 위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사랑과 진심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갈 때만이 이루어지는것이다.

박수혁은 크나큰 사명감을 느끼며 말했다.

《국장동지, 우리에겐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며 점령해야 할 목표는 아직도 높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소. 우리는 지금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길을 따라 첫걸음마를 뗀데 불과하오. 그러나 우리의 어깨우에 지워진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장군님께서 안고계시는 중하를 덜어드리는 우리의 긍지는 그만큼 클것이요.》

국장의 마지막말마디는 박수혁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가 탄 차가 떠나간 다음에도 박수혁과 리태성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있었다.

꽃향기 풍기는 타조거리에 4월의 아침해빛은 찬연하였다.

편 집 후 기

필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성장해온 40대의 녀성작가이다.

황해남도 신천군의 평범한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문학에 대한 남다른 꿈을 안고 중학시절을 마쳤으며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를 졸업하고 20년가까이 교원생활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름없는 농촌학교 교원이 지닌 포부와 창작적열망을 깊이 헤아리시여 주체94(2005)년 4월 그를 꿈에도 소원했던 현역작가대오에 세워주시였다.

단편소설 《아름다움을 자랑하라》로 문단에 첫 자욱을 찍은 후 필자는 자기 고향에 새겨진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을 형상한 《신천》, 《영원한 노을》 등 여러편의 단편소설을 창작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체험한 교육현실을 소재로 하여 《눈빛》, 《다시 본 모습》, 《교정의 수삼나무》 등 15편의 교육주제 단편소설을 창작발표하였다.

1996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첫 상봉》은 필자의 재능과 개성을 뚜렷이 보여준 작품으로서 《6월4일문학상》을 수여받았으며 그것을 계기로 작가동맹 맹원이 될수 있었다.

또한 1999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모성의 권리》는 작가의 환상력과 세련된 필체를 높은 경지에서 보여줌으로써 《조선문학》축전상을 수여받았다.

작가를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주시며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훌륭한 소설창작으로 기쁨드릴 일념안고 가슴불태우면서 필자는 첫 장편소설 《인생의 열매》를 창작발표하였다.

타조목장에 대한 소설창작과제를 받고 현지에 나간 작가는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리상과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그것을 중편소설 《리상의 언덕》에 담아 이번에 내놓게 되였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우리 나라 타조가금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그 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창작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